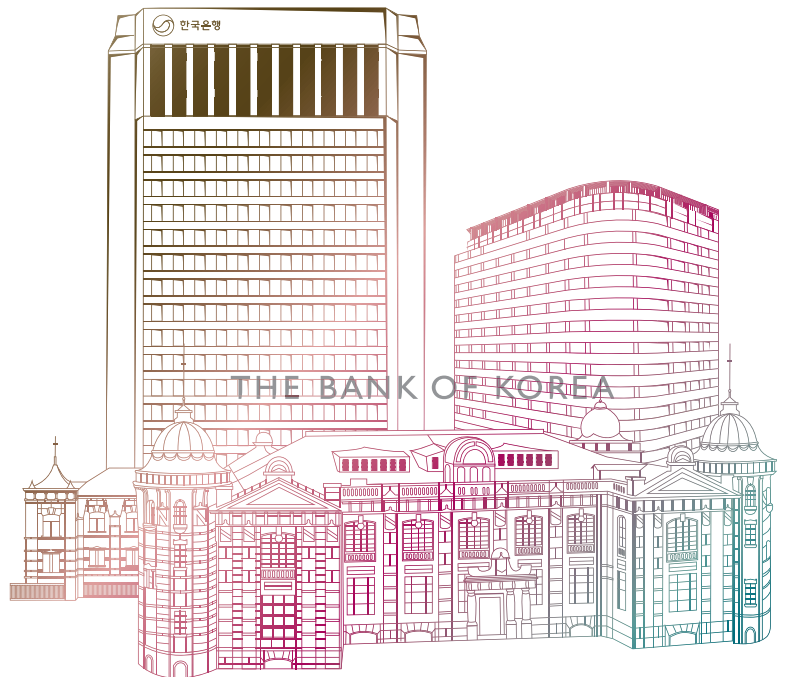


# 2015년도 연차보고서

2016. 3



# 2015년도 연차보고서

2016. 3



## 「 한국은행법 」

###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비전 및 조직가치

## 설립목적

## Mission

-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

## 비전

## Vision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선진 중앙은행**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으로 경제안정을 주도하고, 금융·경제에 대한 권위 있는 조사 연구와 국민편의 위주의 금융·경제서비스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중앙은행을 지향

## 조직가치

## Value

- **공 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함
- **중 립**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 **책 임**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책무를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음
- **소 통** 임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함
- **전문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어 책무 수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함





## 총재 서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 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잠재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여건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등으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대하여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상황 불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등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한국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익, 중립, 책임, 소통, 전문성 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러한 5개의 가치들이 조직운영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구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6년 우리 경제는 연초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과, 국내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둔화, 국제유가 및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는 국제유가로 인한 하락압력이 약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겠지만, 경제 내 유희생산능력 상존 등으로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우리 경제의 기초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 기조를 지속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상황 분석 능력과 정책운용 역량 확충을 통한 정책의 시의성과 유효성 제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 강구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역량 강화와 내부 혁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2015년 중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상황과 경영현황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 경제의 상황과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한국은행 총재 이 주 열

이 주 열



금융통화위원회

의 장	이 주 열
위 원	하 성 근
위 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 〈차례〉

I. 한국은행 개요	1
1. 연혁 및 설립목적	3
2. 조직	4
II. 경제동향	9
1. 실물경제	11
2. 금융·외환시장	28
III. 업무상황	43
1. 중점추진전략	45
2. 통화신용정책	46
3. 금융안정업무	56
4. 발권업무	61
5. 지급결제업무	66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72
7. 조사통계업무	82
8. 국고 및 증권업무	89
9. 대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94
IV. 경영상황	99
1. 조직 운영	101
2. 재무 현황	107
부 록	123

## 〈차례〉 표

〈표 Ⅰ- 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	5
〈표 Ⅰ- 2〉 한국은행 주요 부서장 명단 .....	8
〈표 Ⅱ- 1〉 세계경제 성장률 .....	11
〈표 Ⅱ- 2〉 세계 실업률 .....	14
〈표 Ⅱ- 3〉 세계교역 신장률 및 주요국 경상수지 .....	15
〈표 Ⅱ- 4〉 경제성장률 .....	15
〈표 Ⅱ- 5〉 소비동향 .....	16
〈표 Ⅱ- 6〉 고정투자동향 .....	17
〈표 Ⅱ- 7〉 경제활동별 성장률 .....	18
〈표 Ⅱ- 8〉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	18
〈표 Ⅱ- 9〉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	19
〈표 Ⅱ-10〉 고용 관련 지표 .....	20
〈표 Ⅱ-11〉 임금 관련 지표 .....	20
〈표 Ⅱ-12〉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을 .....	21
〈표 Ⅱ-13〉 생산자물가 상승률 .....	22
〈표 Ⅱ-14〉 수출입물가 상승률 .....	22
〈표 Ⅱ-15〉 부동산가격 상승률 .....	23
〈표 Ⅱ-16〉 경상수지 요약표 .....	23
〈표 Ⅱ-17〉 주요 품목별 수출 .....	24
〈표 Ⅱ-18〉 주요 지역별 수출 .....	24
〈표 Ⅱ-19〉 주요 품목별 수입 .....	25
〈표 Ⅱ-20〉 서비스수지 .....	25
〈표 Ⅱ-21〉 본원 및 이전소득수지 .....	25
〈표 Ⅱ-22〉 금융계정 및 자본수지 .....	26
〈표 Ⅱ-23〉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	26
〈표 Ⅱ-24〉 권역별 주요 지표 .....	27
〈표 Ⅱ-25〉 주요 국제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	28
〈표 Ⅱ-26〉 은행 여수신금리 .....	32
〈표 Ⅱ-27〉 주식발행 .....	34
〈표 Ⅱ-28〉 채권거래 .....	35

〈표 II-29〉 외국인 채권 순매수 및 보유 증감 .....	35
〈표 II-30〉 주요 금융기관 수신 .....	36
〈표 II-31〉 금융기관 대출 .....	37
〈표 III- 1〉 2015년 중점추진전략 목표 및 계획 .....	45
〈표 III- 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 .....	48
〈표 III- 3〉 한국은행 예수금 .....	48
〈표 III- 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 조정 내역 .....	49
〈표 III- 5〉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황 .....	51
〈표 III- 6〉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	51
〈표 III- 7〉 한국은행 RP매입 증거금률 제도 개선 .....	53
〈표 III- 8〉 총재 참석 간담회 등 현황 .....	53
〈표 III- 9〉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활동 .....	54
〈표 III-10〉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	57
〈표 III-11〉 화폐 발행·환수 및 발행잔액 .....	61
〈표 III-12〉 화폐 제조규모 .....	61
〈표 III-13〉 일중 결제유동성 공급규모 .....	67
〈표 III-14〉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	74
〈표 III-15〉 외화자산 구성 내역 .....	75
〈표 III-16〉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	78
〈표 III-17〉 역내 금융협력체 주요 논의 내용 .....	79
〈표 III-18〉 BOK-KPP 실적 .....	80
〈표 III-19〉 CBSP 개최 실적 .....	80
〈표 III-20〉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	81
〈표 III-21〉 IMF에 대한 용자 현황 .....	81
〈표 III-22〉 국고금 수납 및 지급 .....	89
〈표 III-23〉 국고대리점 현황 및 수납금액 .....	90
〈표 III-24〉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	90
〈표 III-25〉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	91
〈표 III-26〉 대정부 일시대출금 및 재정증권 평잔 .....	91
〈표 III-27〉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황 .....	91

〈표 Ⅲ-28〉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황 .....	92
〈표 Ⅲ-29〉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의 주요 내용 .....	92
〈표 Ⅲ-30〉 한국은행의 기금관리 주요 내용 .....	93
〈표 Ⅲ-31〉 기금 조달(운용) 현황 .....	93
〈표 Ⅲ-32〉 홈페이지(메인) 방문자수 .....	94
〈표 Ⅲ-33〉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	95
〈표 Ⅲ-34〉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 .....	95
〈표 Ⅲ-35〉 화폐박물관 관람자수 .....	96
〈표 Ⅲ-36〉 현장 경제교육 실적 .....	97
〈표 Ⅳ- 1〉 한국은행의 조직가치 .....	102
〈표 Ⅳ- 2〉 연중 내부 주요 회의 개최 횟수 .....	103
〈표 Ⅳ- 3〉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 직무파견 현황 .....	104
〈표 Ⅳ- 4〉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 .....	106
〈표 Ⅳ- 5〉 대차대조표 .....	109
〈표 Ⅳ- 6〉 손익계산서 .....	111
〈표 Ⅳ- 7〉 자본변동표 .....	113
〈표 Ⅳ-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114

## 〈차례〉 그림

〈그림 1- 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	4
〈그림 1- 2〉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	6
〈그림 2- 1〉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	13
〈그림 2- 2〉 국제유가 .....	13
〈그림 2- 3〉 곡물 및 비철금속가격 .....	14
〈그림 2- 4〉 주요 선진국 주가 및 신흥시장국 MSCI 지수 .....	29
〈그림 2- 5〉 주요 환율 .....	30
〈그림 2- 6〉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 .....	31
〈그림 2- 7〉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 .....	31
〈그림 2- 8〉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금리 .....	32
〈그림 2- 9〉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	33
〈그림 2-10〉 코스피 거래대금 및 주가변동성 .....	33
〈그림 2-11〉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및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	34
〈그림 2-12〉 채권발행 .....	35
〈그림 2-13〉 가계대출 증감 및 증가율 .....	37
〈그림 2-14〉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	38
〈그림 2-15〉 기업대출 연체율 및 자금사정 BSI .....	38
〈그림 2-16〉 원/달러 및 원/엔 환율 .....	39
〈그림 2-17〉 원/달러 환율 변동폭 .....	39
〈그림 2-18〉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	40
〈그림 2-19〉 CDS 프리미엄 .....	41
〈그림 2-20〉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차환율, 장·단기 가산금리 .....	41
〈그림 3- 1〉 기준금리 .....	48
〈그림 3- 2〉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	51
〈그림 3- 3〉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	52
〈그림 3- 4〉 단기시장금리 .....	52
〈그림 3- 5〉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회 .....	54
〈그림 3- 6〉 금융통화위원 산업 현장 방문 .....	55
〈그림 3- 7〉 2015년도 발행 기념주화 .....	62
〈그림 3- 8〉 화폐 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	63
〈그림 3- 9〉 위조지폐 발견장수 .....	64

〈그림 Ⅲ-10〉 화폐 폐기규모 .....	64
〈그림 Ⅲ-11〉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규모 .....	66
〈그림 Ⅲ-12〉 원·위안 직거래 및 청산은행 위안화 결제규모 .....	68
〈그림 Ⅲ-13〉 개편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업무처리 절차 .....	69
〈그림 Ⅲ-14〉 「지금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 개요 .....	70
〈그림 Ⅲ-15〉 BOK-SNB 외환보유액 운용 워크숍 .....	76
〈그림 Ⅲ-16〉 창립 65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83
〈그림 Ⅲ-17〉 2015년 조사통계 국제콘퍼런스 .....	87
〈그림 Ⅲ-18〉 경제통계 Open API 사이트 .....	88
〈그림 Ⅲ-19〉 통화정책 경시대회 .....	95
〈그림 Ⅲ-20〉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 .....	96
〈그림 Ⅲ-21〉 한국은행 임직원 사회봉사 활동 .....	97
〈그림 IV- 1〉 2016년도 신입직원 입학식 .....	105

## 〈차례〉 참고

〈참고 Ⅲ- 1〉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 .....	77
-------------------------------	----



I

# 한국은행 개요





## 1. 연혁 및 설립목적<sup>1)</sup>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 가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그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업무는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개시되었다. 한국은행의 법적 성격은 설립 당시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역할을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2년 「한국은행법」은 정부주도 성장정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통화·신용·외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그 구성에 있어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와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

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담당하던 은행감독 기능은 신설 통합 금융감독 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을 통해서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기능도 부여되었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가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이 개정(12월 17일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2012년 다시 개정(제9차)된 「한국은행법」(4월 22일 시행)은 대한민국의 화폐단위가 '원'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1)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제3장 업무상황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 2. 조직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경제 각계를 대표하는 5인의 임명직 위원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인의 임명직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추천기관<sup>2)</sup>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원 상임<sup>3)</sup>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인 한국은행 부총재(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sup>4)</sup>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한다.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림 1-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2015년 12월 31일 현재)



**이 주 열**  
(한국은행 총재, 2014년 4월 1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부총재



**하 성 군**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2012년 4월 21일~)

〈주요경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정 해 방**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2012년 4월 21일~)

〈주요경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순 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2012년 4월 21일~)

〈주요경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현대자동차 기획총괄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문 우 식**  
(한국은행 총재 추천, 2012년 4월 21일~)

〈주요경력〉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함 준 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2014년 5월 13일~)

〈주요경력〉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바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장 병 화**  
(한국은행 부총재, 2014년 6월 25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울외국환증개 대표이사

자료 : 한국은행

2)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한다.

3)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 시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래 비상근이던 임명직 위원의 근무형태를 전원 상근으로 변경하였다.

4) 단 총재, 부총재는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권 발행, 여수신정책, 공개시장운영, 지급결제, 금융기관 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한국은행의 예·결산, 조직 및 기구, 직원의 보수 등 경영 관련 기본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5년 중 정기회의 24회, 임시회의 2회 등 본회의를 26회 개최하였다. 또한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 주요 현안 토의 및 본회의 상정안건 사전심의 등을 위해 위원협의회를 94회 개최하였다.<sup>5)</sup> 그리고 예산 등 주요 의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13회 열었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와 이와 관련한 보고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표 1-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단위: 회)

연도	본회의	정기		위원 협의회	심의 위원회	계
		정기	임시			
2013	25	24	1	110	15	150
2014	25	24	1	108	15	148
2015	26	24	2	94	13	133

자료: 한국은행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구체적인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정기회의<sup>6)</sup>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자를 매년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또한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서는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 여수신정책, 금융기관 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과 한국은행의 예·결산, 조직 및 기구 등 경영 관련 기본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된 경우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 이 중 통화신용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이 기록된 의사록을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통화정책방향 결정 내용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 나. 집행간부 및 감사

한국은행은 집행간부로서 총재, 부총재 및 부총재보 5인을 두고 있다. 총재는 국무회의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절차<sup>7)</sup>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며, 한국은행의 대표로서 한국은행법 등에 의

5) 위원협의회 개최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안건들을 일괄 심의한 회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6) 금융통화위원회는 12월 24일 통화정책 결정의 적정 시계를 확보하고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연 12회인 통화정책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2017년부터 연 8회로 조정하고 4회를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7) 국회 인사청문절차는 제9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동 법 시행(2012년 4월 22일) 후 최초로 임명된 이주열 총재부터 적용되었다.

(그림 1-2)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2015년 12월 31일 현재)



총재  
이주열  
(2014년  
4월 1일~)



부총재  
장병화  
(2014년  
6월 25일~)



부총재보  
허재성  
(2013년  
7월 16일~)



부총재보  
서영경  
(2013년  
7월 16일~)



부총재보  
이흥모  
(2014년  
8월 5일~)



부총재보  
김민호  
(2015년  
1월 16일~)



부총재보  
윤면식  
(2015년  
3월 5일~)



감사  
하성  
(2015년  
6월 13일~)

자료 : 한국은행

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도 지닌다. 현 이주열 총재는 2014년 4월 1일 임명되었다.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총재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총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2015년 말 현재 한국은행은 본부에 16개 부서(12국 1실 3원)와 10개 국소속실, 1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17개 부와 138개 팀(133팀 5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본부는 서울과 지방에 16개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7개 기획조사부와 45개 팀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5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직원수는 2,215명<sup>8)</sup>이다.

8)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부총재 포함), 집행간부 및 감사 등 13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각 부서의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은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조직 및 정원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부서 간 업무 조정,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통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관리, 법규 검토,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교류협력, 국제협력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국은 대내외 의견수렴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조정·통할, 화폐박물관 운영,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홍보,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정보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 대한 경제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 전산정보국

전산정보국은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전산기기의 도입 및 관리 등 IT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 인사경영국

인사경영국은 인사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업무와 부동산 및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은 한국은행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 조사국

조사국은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산업 동향 분석 및 산업정책 관련 조사연구,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물가안정목표 설정 및 조사연구, 계량모형 개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해외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국은 통화금융, 국민소득, 국제수지, 물가,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등 경제통계의 편제, 분석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상황 분석·종합평가, 시스템리스크 측정·분석 및 모형 개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및 파급경로 분석, 은행 및 비은행 관련 조사연구, 금융제도 관련 조사연구,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분석 및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통화정책국

통화정책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입안, 정책수단 기획 및 운용, 통화신용정책 여건 및 효과 분석, 통화신용정책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시장국

금융시장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통화·

금리 분석 및 전망, 금융시장 및 기업금융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및 감시, 지급결제제도 관련 조사연구, 금융정보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여수신 및 국고, 증권, 기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발권국

발권국은 화폐의 발행과 유통·관리, 화폐 및 발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발권업무 기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국제국

국제국은 외환·국제금융에 관한 기획·조사·분석, 외환시장 및 환율 관련 업무, 보유외환 및 외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외환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검사, 외환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외자운용원

외자운용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 기획, 국외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운용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담당하며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표 1-2〉 한국은행 주요 부서장 명단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본부	기획협력국장	정상돈	금융시장국장	신호순
	커뮤니케이션국장	장택규	금융결제국장	박이락
	전산정보국장	전경진	발권국장	박성준
	인사경영국장	임형준	국제국장	홍승제
	인재개발원장	차현진	외자운용원장	채선병
	조사국장	장 민	경제연구원장	최운규
	경제통계국장	전승철	감사실장	오인석
	금융안정국장	조정환	정책보좌관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허진호	공보관	서봉국	
지역 본부	부산본부장	조희근	인천본부장	안희욱
	대구경북본부장	성병희	제주본부장	하근철
	목포본부장	김한중	경기본부장	김태석
	광주전남본부장	이명종	경남본부장	조용승
	전북본부장	강성대	강릉본부장	박운섭
	대전충남본부장	김한수	울산본부장	오호일
	충북본부장	신수용	포항본부장	은호성
	강원본부장	강순삼	강남본부장	김인섭
국외 사무소	뉴욕사무소장	유상대	런던사무소장	정영택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강성윤	북경사무소장	김대형
	동경사무소장	장광수		

자료 : 한국은행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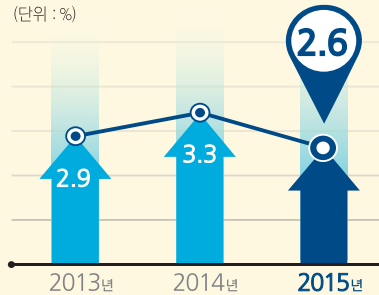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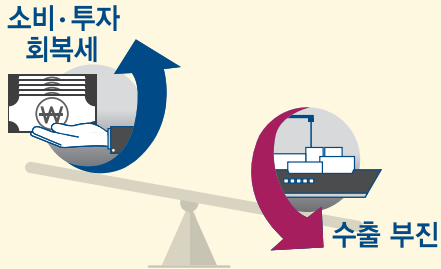
## 경제동향



# 2015 우리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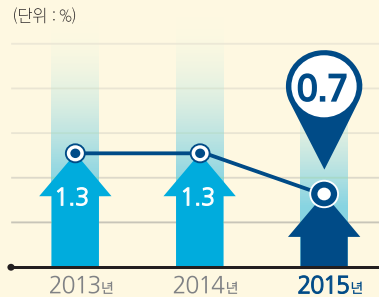
## 성 장 률

경제성장률(실질 기준)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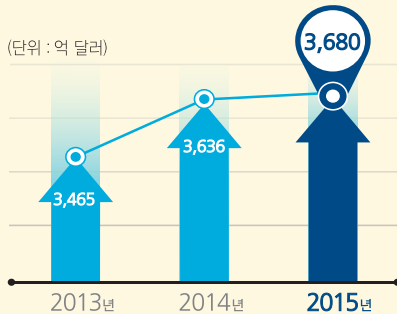
## 물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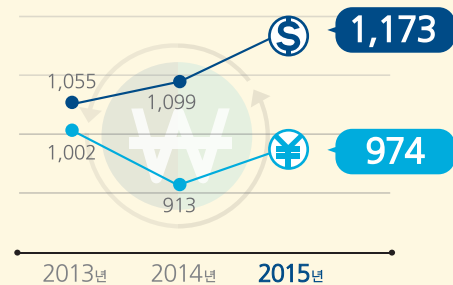


## 외환보유액 · 환율

외환보유액(연말 기준)은 3,680억 달러



환율(원/달러, 원/100엔, 연말 기준)은 상승



# 1. 실물경제

## 가. 세계경제

### 세계경제 성장을 하락

2015년 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유로지역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본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신흥시장국은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의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미국은 1/4분기 중 기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및 3/4분기 중에는 개인소비의 견조한 증가 등에 힘입어 2~3%대의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다만 4/4분기 들어서는 수출 감소와 재고조정으로 성장률이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개인소비지출과 주택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순수출은 부진하였다.

유로지역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통화완화 정책<sup>9)</sup>에 따른 저금리와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회원국별로는 독일과 스페인이

노동시장 및 금융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도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졌다. 반면 그리스는 제3차 구제금융 지원 등에 따른 긴축적 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부진하였다.

일본은 1/4분기 중 주택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가 2/4분기 중에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어 3/4분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신흥시장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4/4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표 II-1〉 세계경제 성장률<sup>1)</sup>

	2013	2014	2015e
세계경제 성장률	3.3	3.4	3.1
선진국	1.1	1.8	1.9
미국	1.5	2.4	2.4
유로지역	-0.3	0.9	1.6
일본	1.4	0.0	0.5
신흥시장국	5.0	4.6	4.0
중국	7.7	7.3	6.9
브라질	3.0	0.1	-3.8
러시아	1.3	0.7	-3.7
인도	6.4	7.0	7.3
아세안 5개국 <sup>2)</sup>	5.2	4.6	4.8

주 :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자료 : IMF, 각국 발표치

신흥시장국은 국내의 수요의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중국은 수출 부진이

9) ECB는 2015년 1월 정책위원회에서 2015년 3월~2016년 9월 중 매달 60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단행하였으며, 12월에는 수신품리 인하, 양적완화 기간 연장(2016년 9월~2017년 3월), 채권매입 대상 추가(지방채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심화되는 가운데 과잉설비 조정에 따른 투자 증가율 하락 등으로 1990년의 3.8% 이후 가장 낮은 6.9% 성장에 그쳤다. 브라질은 높은 물가 상승률, 정정 불안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3%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등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데다 저유가로 인해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후반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반면 인도는 완화적 통화정책,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sup>10)</sup> 등에 따른 내수 확대에 힘입어 7%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아세안(ASEAN) 5개국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4%대 후반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 글로벌 물가 오름세 둔화 지속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마이너스 GDP갭<sup>11)</sup>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다만 브라질, 러시아 등 일부 신흥시장국의 경우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으로 0%대 초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9월 이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 상승률은 1.3% 내외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면

서 연준 목표치(2%)를 밑돌았다. 유로지역은 에너지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ECB의 물가목표(below but close to 2%)를 크게 하회하였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서비스 및 공산품 가격의 상승 등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1/4분기 중 2%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소비세율 인상<sup>12)</sup> 효과가 소멸된 4월 이후 크게 낮아져 0%대 초반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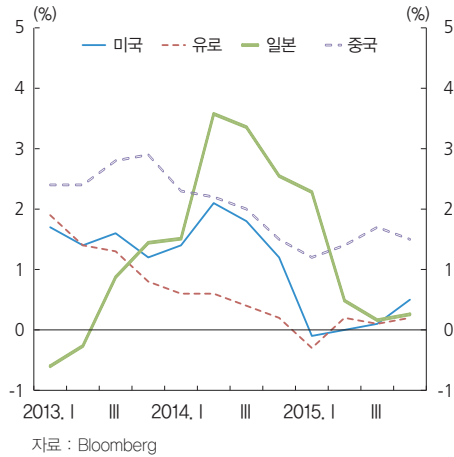
신흥시장국의 소비자물가를 보면 브라질과 러시아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중국, 인도, 아세안 5개국 등은 상승률이 낮아졌다. 브라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의 6.3%에서 9.0%로 높아졌으며, 러시아의 경우에도 루블화 약세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전년의 7.8%에서 15.6%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중국의 경우 식료품가격이 2.3% 상승하였으나 비식료품 가격의 오름폭이 1.0%에 그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의 2.0%에서 1.4%로 둔화되었다. 인도의 물가상승률도 농산물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의 6.6%에서 4.9%로 낮아졌다. 아세안 5개국도 저유가와 식료품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

10) 2015년 9월 말 현재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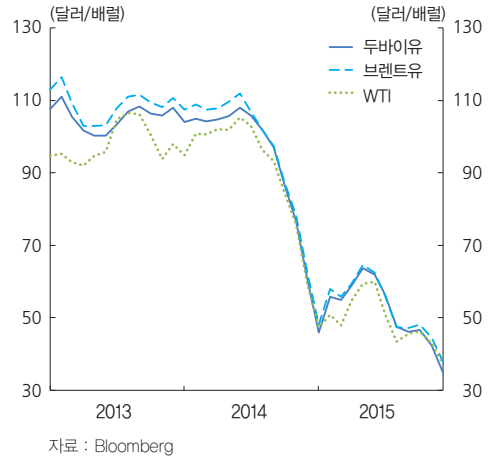
11) GDP갭은 잠재GDP(물가상승률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과 실질GDP의 격차이다. 마이너스 GDP갭은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2) 2014년 4월에 소비세율이 기존 5%에서 8%로 인상되었다.

〈그림 II- 1〉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분기 평균)



〈그림 II- 2〉 국제유가  
(월평균)



2015년 1월 중 40달러대 중반에 머물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미국의 원유시추설비 가동기수 감소 등에 따라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반기 중 60달러 내외 수준까지 반등하였다. 그러나 7월 이후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원유생산량 증가 전망<sup>13)</sup>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2월 들어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감산합의 실패<sup>14)</sup> 및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유가 하락이 더욱 가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연말에는 배럴당 32.1달러까지 낮아졌으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7.1% 하락하였다.

곡물가격은 전년에 이어 생산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S&P GSCI(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곡물지수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15.7% 하락하였다. 연초의 기상여건 호조로 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6월 하순 이후 엘니뇨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일시 반등하였다. 그러나 엘니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호주 이외 지역에서 작황 호조로 곡물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8월 이후로는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곡물별로는 소맥 가격이 전년 말 대비 20.3%, 옥수수가격이 9.6%, 대두가격은 14.5% 각각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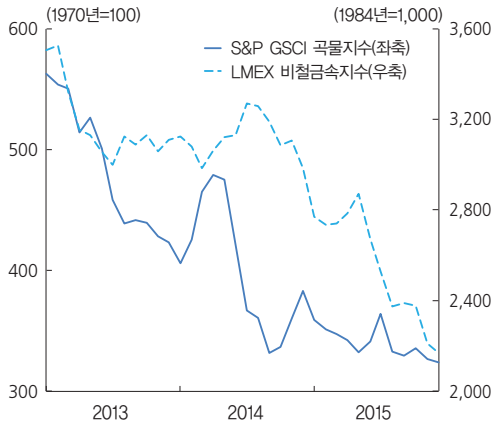
비철금속가격은 주요 광산의 파업 등으로 4~5월 중 일시 상승하였으나 6월 이후 중국의 수요 둔화,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LME(London Metal Exchange Index)

13)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 시 6개월 내에 일평균 100만 배럴의 원유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및 캔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각각 1년 내 일평균 40만 배럴 및 50만 배럴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14) OPEC은 2015년 12월 4일 개최된 제167차 정기총회 후 공동선언문에서 명확한 생산목표를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회원국들간 생산목표 합의에 실패하였다.

비철금속지수 기준으로 연간 24.4%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구리가격이 전년 말 대비 26.1%, 알루미늄가격이 17.8%, 니켈가격은 41.8% 각각 하락하였다.

(그림 II-3) 곡물 및 비철금속가격 (월평균)



자료 : Bloomberg

가장 낮은 10.4%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경우 실업률이 3% 초반까지 낮아지고, 유효구인배율<sup>16)</sup>도 12월 말 현재 1.27배를 기록하여 1991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다.

신흥시장국의 고용사정은 국가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실업률이 4.1%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브라질과 러시아는 실업률이 각각 전년보다 높아졌다.

(표 II-2) 세계 실업률<sup>1)</sup>

			(단위 : %)		
			2013	2014	2015e
선진국			7.9	7.3	6.8
미국		국	7.4	6.2	5.3
유로지역			12.0	11.6	10.9
일본		본	4.0	3.6	3.4
중국		국	4.1	4.1	4.1
브라질		질	5.4	4.8	6.8
러시아		아	5.5	5.2	5.6

주 :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자료 : IMF, 각국 발표치

### 미국·유로지역·일본의 고용사정 개선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미국, 유로지역, 일본 모두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sup>15)</sup>하고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등 고용사정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유로지역은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경기 회복세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12월에는 2011년 9월 이후

### 세계교역 신장률 신흥시장국 중심으로 둔화

세계교역(물량 기준) 신장률은 글로벌 공급체인(Global Value Chain) 약화,<sup>17)</sup> 중국 및 자원 수출국의 수입 둔화 등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유로지역도 경기 개선에 따라 수입물량이 늘어났다. 다만 일본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의 성장

15) 2015년 중 비농업취업자가 월평균 22만 명 증가하여 2014년(26만 명)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6) 유효구인배율(有效求人倍率)은 구직자 1인당 구인자수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17)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장 통합(중국 및 동유럽 국가의 교역 참여, NAFTA 및 EU 출범), 수송비용의 감소 등에 힘입어 글로벌 공급체인이 빠르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생산분업에 따른 교역확대 효과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중국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 추진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표 II-3〉 세계교역 신장률 및 주요국 경상수지

	2013	2014	2015e
세계교역 신장률(%)	3.3	3.4 <sup>1)</sup>	2.6 <sup>1)</sup>
(미 국) <sup>2)</sup>	1.0	4.0	4.6
(유 로 지 역) <sup>2)</sup>	-0.5	2.9	3.8
(일 본) <sup>3)</sup>	-1.5	0.6	-1.0
(중 국) <sup>3)</sup>	4.2	9.5	5.3
주요국 경상수지(10억 달러)			
(미 국)	-377	-390	-484
(유 로 지 역) <sup>4)</sup>	193	246	314
(일 본) <sup>5)</sup>	39	26	166
(중 국)	148	220	348

주 : 1) 2016년 1월 IMF 발표치 기준  
 2) 수입 물량 증감률(%)      3) 수출 물량 증감률(%)  
 4) 10억 유로                      5) 1,000억 엔  
 자료 : IMF, 각국 발표치

경상수지는 미국을 제외한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에서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국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달러화 강세 등으로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해외투자 수익도 감소함에 따라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유로지역은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일본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소득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중국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 나. 국내경제

### (1) 경제성장

#### 수출부진으로 회복세 약화

2015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 성장률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2014년의 3.3%에서 2.6%로 낮아졌다.

기간별로 보면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의 움직임에 따라 성장률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4분기 중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어 전기 대비 0.8% 성장하였으나 2/4분기에는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사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0.4% 성장에 그쳤다. 3/4분기 들어 민간소비가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고 주택경기도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1.2%로 반등하였으나 4/4분기에는 건설 및 설비투자가 조정되면서 0.7%로 다시 낮아졌다.

〈표 II-4〉 경제성장률<sup>1)</sup>  
(전기 대비)

	2014	2015p								
		연간	I	II	III	IV				
G D P	3.3	2.6	0.8	(2.4)	0.4	(2.2)	1.2	(2.8)	0.7	(3.1)
최종소비	2.0	2.4	0.8	(1.9)	0.1	(2.1)	1.2	(2.4)	1.3	(3.4)
고정투자	3.4	3.8	3.1	(2.6)	1.0	(2.2)	2.2	(5.1)	-0.9	(5.4)
재고증감 <sup>2)</sup>	0.5	0.9	-0.5	(0.9)	0.2	(1.1)	0.5	(0.7)	0.5	(0.8)
수 출	2.0	0.8	0.6	(0.5)	-0.1	(-0.4)	-0.3	(0.5)	2.1	(2.5)
수 입	1.5	3.2	0.9	(2.1)	0.4	(1.6)	1.4	(3.1)	3.2	(6.1)
국민총소득	3.4	6.5	4.0	(7.5)	0.0	(5.8)	1.5	(7.5)	0.0	(5.5)

주 :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포인트)  
 자료 : 한국은행

수요부문별로 보면 최종소비가 민간 및 정부 소비 모두 증가폭이 커지면서 2.4%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2/4분기 중 메르스 충격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저유가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소비심리 개선,<sup>18)</sup> 정부의 정책 대응 등으로 회복흐름을 유지하여 2.2% 늘어났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 중 승용차 등 내구재와 통신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4분기 들어 메르스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와 여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3/4분기 이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임시공휴일 지정,<sup>19)</sup> 개별소비세 인하,<sup>20)</sup>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실시<sup>21)</sup> 등 정부의 연이은 소비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었다.

정부소비는 추가경정예산<sup>22)</sup> 집행 등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지출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sup>23)</sup>로 사회보장 지출도 늘어나면서

3.4% 증가하였다.

〈표 II-5〉

소비동향<sup>1)</sup>  
(전기 대비)

(단위 : %)

	2014		2015p			
	연간		I	II	III	IV
최종소비	2.0	2.4	0.8 (1.9)	0.1 (2.1)	1.2 (2.4)	1.3 (3.4)
(민 간)	1.7	2.2	0.8 (1.5)	-0.1 (1.7)	1.1 (2.2)	1.4 (3.3)
(정 부)	3.0	3.4	0.5 (3.2)	0.9 (3.3)	1.3 (3.0)	1.0 (3.9)

주 :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고정투자는 설비투자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어 전년 대비 3.8% 늘어났다.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3.9%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연장,<sup>24)</sup> 저금리 등으로 주택거래, 분양 및 착공<sup>25)</sup>이 크게 늘어나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1/4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토목건설이 급증하며 5.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

18)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년 12월 101에서 2015년 5월 105까지 상승하였다. 메르스가 확산된 6월 중 98로 낮아졌으나 이후 상승세를 재개하여 11월에는 105를 기록하였다.

19)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광복 70주년 기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 정부는 8월 말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였다.

21)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92개 업체와 200개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여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였다.

22) 1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SOC 예산 1조 3천억 원 포함)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3) 2015년 7월부터 임플란트 및 틀니의 보험 적용대상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24) 정부는 8월 1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를 현행수준(각각 70%, 60%)에서 1년 연장하였다.

25) 2015년 중 주택 착공, 아파트 분양, 주택매매거래가 모두 큰 폭 증가하였다. 다만 4/4분기 들어 아파트 분양과 주택매매거래 증가세는 상당 폭 둔화되었다.

주택 관련 지표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2014		2015p			
	연간		I	II	III	IV
주택 착공	18.3	41.2	29.0	36.2	53.6	42.9
아파트 분양	17.1	56.1	33.8	42.0	108.6	48.0
주택매매거래	18.0	18.8	18.3	39.1	21.0	0.1

자료 : 국토교통부(주택착공, 주택매매거래), 부동산114(아파트 분양)

다. 다만 4/4분기 들어서는 그간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반사효과, 주택매매거래 둔화, 기상여건 악화<sup>26)</sup> 등으로 감소로 전환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투자확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sup>27)</sup> 등으로 5.3%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 중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3/4분기 들어 IT 분야의 투자가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4/4분기에는 운송장비 투자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기계류 투자가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부진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기업 수익성 악화로 둔화됨에 따라 전년의 5.4%보다 크게 낮은 1.5% 증가에 그쳤다. 기간별로는 1/4분기 중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출<sup>28)</sup>이 확대되면서 1.7% 늘어났으나 이후에는 소폭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재고는 생산자 재고<sup>29)</sup>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 2천억 원 증가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글로벌 경기 및 교역신장세 둔화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품목별로는 휴대폰 부품, 반도체 등 IT제품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단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 기계류 등은 글로벌 투자수요 둔화,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부진하였으며 선박의 경우도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해양플랜트 인도가 연기되면서 감소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3.2% 늘어나 전년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자동차 수입이 수입차 선호 증대 등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원유, 천연가스 등 광산품도 국제유가 하락 및 수출수요 확대로 증가하였다.

한편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반면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내수 기여도는 소비와 재고투자를 중심으로 전년의 2.9%포인트에서 3.6%포인트로 확대되었으며 순수출 기여도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수입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의 플러스 0.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1%포인트로 크게 감소하였다.

국민총소득(실질 GNI)은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GDP 성장률을 큰 폭 상

(표 II-6) 고정투자동향<sup>a)</sup>  
(전기 대비) (단위 : %)

	2014		2015p			
	연간	I	II	III	IV	
고 정 투 자	3.4	3.8	3.1 (2.6)	1.0 (2.2)	2.2 (5.1)	-0.9 (5.4)
건 설	1.1	3.9	5.5 (0.9)	1.8 (1.0)	3.3 (5.6)	-2.4 (7.5)
(건 물)	6.3	7.4	2.5 (3.0)	4.9 (4.0)	5.6 (7.8)	0.3(13.8)
(토 목)	-7.3	-2.5	11.4 (-3.1)	-3.8 (-4.4)	-1.4 (0.8)	-8.0 (-2.9)
설 비	6.0	5.3	0.5 (5.8)	0.8 (5.1)	1.8 (6.7)	0.5 (3.9)
(기 계 류)	5.0	2.1	0.1 (7.2)	-2.9 (2.8)	0.8 (3.6)	-3.0 (-4.4)
(운송장비)	8.3	12.5	1.5 (2.7)	9.3 (9.3)	3.7(14.1)	7.4(24.0)
지식재산 생 산 물	5.4	1.5	1.7 (1.9)	-0.6 (0.9)	0.3 (1.1)	0.7 (2.1)

주 : 1)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6) 2015년 11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2.7배인 128.2mm를 나타냈으며 강우일수도 15.1일로 197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27)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반기 중 공공기관의 에너지·안전 투자(2조 원 규모) 등을 추진하였다.

28) 2015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외지급액은 전분기 대비 35.4%(계절조정 기준) 늘었다.

29) 2015년 중 제조업 재고율 지수(연평균 125.9)는 수출부진 심화로 1998년(160.8)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회하는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민소득(명목 NI)의 분배 측면에서는 영업 잉여가 3.8% 늘어났으며 피용자보수는 4.8%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전년(62.8%)과 비슷한 62.9%를 기록하였다. 한편 미 달러화 표시 1인당 국민총소득은 원/달러 환율(연평균 기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의 28,071달러에서 27,340달러로 2.6% 감소하였다.

총저축률은 명목소득 증가율이 명목소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의 34.5%에서 35.4%로 상승하였으며, 국내총투자율은 28.5%를 기록하였다.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성장세 둔화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건설업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둔화되었다.

〈표 II-7〉 경제활동별 성장률<sup>1)</sup>  
(전기 대비)

	2014		2015p				
	연간	연간	I	II	III	IV	
농림어업	3.6 [2.3]	-1.5 [2.3]	3.7	-11.0	4.7	-2.6	
광업	-0.1 [0.1]	-0.7 [0.2]	-1.3	5.6	3.3	-5.1	
제조업	3.5[30.2]	1.3[29.5]	0.4	0.9	0.4	0.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6 [2.8]	6.2 [3.2]	-0.8	0.8	5.5	0.8	
건설업	0.8 [5.0]	3.0 [5.1]	1.8	-0.1	5.5	0.7	
서비스업	3.3[59.6]	2.8[59.7]	0.7	0.2	1.1	0.7	
국내총생산	3.3	2.6	0.8	0.4	1.2	0.7	

주 : 1) [ ] 내는 명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제조업은 1.3% 성장에 그쳐 전년 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저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생산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비금속광물제품은 건설업의 호조에 따른 건설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확대되었다. 반면 운송장비의 경우 조선업 업황 부진이 지속된 데다 자동차 수출도 줄어들어 감소로 전환되었다.

〈표 II-8〉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전기 대비)

제조업	2014		2015p			
	연간	연간	I	II	III	IV
음식료품 및 담배	3.5	1.3	0.4	0.9	0.4	0.7
섬유 및 가죽제품	-0.8	-5.4	-2.3	0.6	-2.8	0.2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4.4	-0.4	0.1	1.5	-2.9	4.1
석탄 및 석유제품	4.9	8.0	4.0	1.5	0.9	3.0
화학제품	4.5	5.1	1.8	0.0	2.9	1.9
비금속광물제품	2.1	4.9	-1.7	4.4	6.6	-4.0
1차 금속제품	3.2	-0.2	-4.3	3.0	1.3	-1.4
금속제품	4.2	2.0	1.2	-3.1	6.4	-2.0
기계 및 장비	1.6	1.6	-0.7	2.5	-2.7	-1.6
전기 및 전자기기	4.9	1.8	2.6	-0.5	0.6	3.6
정밀기기	6.7	1.9	3.2	0.4	-4.7	4.0
운송장비	2.2	-1.8	-1.8	4.3	-2.4	-1.8
기타	6.0	3.0	4.3	-3.3	-1.5	0.5

자료 : 한국은행

건설업은 주택경기 호조로 주거용 건물건설이 크게 늘어나 3.0% 성장하였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발전효율이 높은 원자력의 비중이 커지면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농림어업은 가뭄 등에 따른 작황 부진, 재배면적 축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1.5%)으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다소 낮은 2.8% 성장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가계 대출 확대 및 증권시장 거래호조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반

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되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의료비 지출의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표 II-9〉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전기 대비) (단위 : %)

	2014	2015p				
		연간	I	II	III	IV
서비스업	3.3	2.8	0.7	0.2	1.1	0.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4	2.1	0.7	-0.4	0.9	1.7
(운수 및 보관업)	2.3	2.7	0.3	-1.4	2.5	0.6
(금융 및 보험업)	5.6	6.3	1.4	2.3	2.1	-1.1
(부동산 및 임대업)	3.3	1.9	0.7	0.3	0.5	0.3
(정보통신업)	4.5	2.3	-0.1	-0.5	3.5	-0.9
(보건 및 사회복지)	6.8	5.6	1.5	-1.0	2.2	3.2

자료 : 한국은행

## (2) 고용 및 임금

### 취업자수 완만한 증가세

취업자수는 경기 회복세 약화 등으로 연간 34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의 53만 명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자동차, 금속가공 및 가구 업종을 중심으로 15만 6천 명 늘어나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금융·보험업의 구조조정과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의 부진으로 25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예년 증가폭<sup>30)</sup>을 하회하였다. 한편 건설업 취업자수는 2만 7천 명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은 10만 7천 명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임시직의 증가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업황부진 등으로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60.3%를 기록하였다. 한편 실업률은 전년의 3.5%에서 3.6%로 소폭 상승하였다.

30) 2010~2014년 중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35만 명 증가하였다.

〈표 II-10〉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만 명, %)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경제활동인구	2,654	2,691	2,636	2,714	2,717	2,699
경제활동인구증가율 <sup>1)</sup>	2.6	1.4	1.6	1.4	1.3	1.4
경제활동참가율	62.4	62.6	61.5	63.2	63.0	62.5
취업자수	2,560	2,594	2,527	2,610	2,624	2,614
취업자수증감 <sup>1)</sup>	53.3	33.7	35.4	30.8	31.0	37.6
〈산업별〉						
농림어업	-6.8	-10.7	-8.7	-12.7	-10.9	-10.6
광공업	14.3	15.7	13.4	14.5	16.5	18.2
(제조업)	14.6	15.6	13.9	14.7	16.4	17.6
건설업	4.2	2.7	7.2	4.4	1.1	-1.9
서비스업	42.4	25.0	22.3	23.5	23.3	31.0
(도소매)	13.2	-0.8	7.4	3.1	-3.6	-10.2
(음식·숙박)	12.7	8.2	7.3	9.9	8.6	6.8
(보건·사회복지)	13.9	7.7	12.5	6.8	5.0	6.4
(금융·보험)	-2.6	-4.8	-6.7	-5.8	-4.9	-2.0
〈중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54.8	48.7	44.2	42.2	52.1	56.5
상용근로자	44.3	43.2	35.5	33.2	50.5	53.6
임시근로자	14.0	5.4	8.2	0.3	0.1	12.9
일용근로자	-3.5	0.1	0.4	8.7	1.5	-10.0
비임금근로자	-1.5	-15.1	-8.8	-11.4	-21.1	-18.9
실업자수	93.7	97.6	108.9	104.2	92.9	84.5
실업률(계절조정전)	3.5	3.6	4.1	3.8	3.4	3.1
(15~29세)	9.0	9.2	10.3	9.9	8.4	8.0
고용률(계절조정전)	60.2	60.3	59.0	60.7	60.9	60.5

주 : 1)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통계청

임금 상승폭 확대

명목임금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은 3.5%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정액급여가 전년 수준의 오름세를 보이고 특별급여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이 커졌으며 임시·일용근로자 임금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도 2.7% 늘어나 전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및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명목임

금이 전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시간당 명목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표 II-11〉

임금 관련 지표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명목임금 <sup>1)</sup>	2.5	3.5	3.1	3.4	3.8	3.4
(실질임금) <sup>2)</sup>	1.3	2.7	2.5	2.8	3.1	2.4
〈내역별〉						
상용근로자	2.4	3.3	2.8	3.1	3.7	3.6
정액급여	3.2	3.3	3.0	3.1	3.3	3.9
초과급여	9.3	7.4	10.1	8.0	6.8	5.0
특별급여	-3.7	1.6	0.0	0.3	4.3	1.5
임시·일용근로자	0.7	2.7	-0.5	2.9	4.3	3.9
〈산업별〉						
(제조업)	4.0	3.2	2.1	3.4	3.3	3.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2	5.4	3.8	4.6	8.8	4.4
(건설업)	3.4	3.8	4.4	4.8	3.3	2.5
(도소매업)	1.2	2.7	3.2	1.2	2.3	3.6
(음식 및 숙박업)	0.7	2.2	3.0	4.3	0.5	1.3
(금융·보험업)	3.5	4.9	8.0	4.0	5.2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	3.2	-1.4	2.8	5.5	4.7
(교육서비스업)	3.5	3.2	4.0	3.1	4.4	0.9
비농림어업 시간당 명목임금 <sup>3)</sup>	3.3	2.8	4.4	1.7	2.2	2.7
비농림어업 노동생산성 <sup>4)</sup>	1.4	0.0	1.7	-1.4	-0.7	0.2
비농림어업 단위노동비용 <sup>5)</sup>	1.9	2.8	2.6	3.1	2.9	2.5

주 :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비농림어업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비농림어업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 고용노동부

### (3) 물가

#### 소비자물가 오름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0.7% 상승하여 전년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 중 농산물가격 하락,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2/4분기에도 농산물가격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면서 0.5% 상승에 머물렀다. 3/4분기에는 수도권 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0.7% 상승하였으며 4/4분기 들어서는 석유류가격의 물가하락 효과 축소,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1% 올라 상승률이 다소 높아졌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농산물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축산물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감에 따라 지난 2년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2.0% 상승하였다. 공업제품가격은 0.2% 하락하였는데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서비스요금은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집세가 전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공공서비스요금은 수도권 교통요금 인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은 외식비 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전기·수도·가스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7.4% 하락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 지표<sup>31)</sup>를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가 각각 2.2%, 2.4% 상승하여 오름폭이 확대되었

다.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로 저유가에 기인함에 따라 근원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표 II-12〉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율<sup>1)</sup>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가중치)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소비자물가 <1000.0>	1.3	0.7	0.6	0.5	0.7	1.1
농축수산물 <77.6>	-2.7	2.0	0.3	2.1	2.9	2.6
(농산물) <44.1>	-10.0	1.2	-2.8	2.1	3.0	3.0
(축산물) <22.2>	9.5	3.7	4.6	2.7	4.2	3.1
공업제품 <326.6>	1.3	-0.2	-0.4	-0.3	-0.2	0.0
(석유류) <56.7>	-4.3	-19.2	-22.0	-19.1	-18.1	-17.3
(가공식품) <71.8>	3.7	1.3	2.3	1.5	0.7	0.7
(내구재) <51.6>	-0.4	-0.5	-1.0	-1.0	-0.3	0.2
전기·수도·가스 <49.0>	3.9	-7.4	-3.7	-8.0	-10.8	-7.1
서비스 <546.8>	1.6	1.8	1.6	1.6	2.0	2.2
(집세) <92.8>	2.3	2.5	2.3	2.4	2.7	2.8
(공공서비스) <142.6>	0.8	1.2	0.5	0.5	1.8	2.0
(개인서비스) <311.4>	1.7	1.9	1.8	1.9	1.8	2.2
외식 <119.0>	1.4	2.3	1.8	2.4	2.5	2.6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sup>2)</sup> <887.2>	2.0	2.2	2.3	2.1	2.1	2.4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sup>3)</sup> <760.8>	1.7	2.4	2.3	2.2	2.5	2.7

주 : 1)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 농산물 및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제외  
2)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류 이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 통계청

#### 생산자물가 하락폭 확대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4.0% 하락하여 전년보다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가격은 농산물가격이 채소류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고 축산물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감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공산품가격은 주로 저유가의 영

31)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을 제외한 장기적이며 기초적인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계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등 두 가지의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향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전력·가스·수도요금은 도시가스요금의 인하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서비스요금의 경우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표 II-13〉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가중치)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생산자물가 <1000.0>	-0.5	-4.0	-3.6	-3.6	-4.4	-4.4
상 품 <665.1>	-1.4	-6.4	-5.8	-5.8	-6.9	-7.2
(농림수산물) <32.3>	0.7	2.3	-0.2	3.7	4.2	1.6
(공 산 품) <566.5>	-2.1	-6.7	-6.3	-5.9	-7.2	-7.5
(전력·가스·수도) <64.0>	5.3	-7.9	-4.0	-8.9	-10.0	-8.7
서 비 스 <334.9>	1.5	1.2	1.4	1.3	1.1	1.2

자료 : 한국은행

### 수출입물가 하락세 지속

수출물가(원화 기준)는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5.2% 하락하였으나 전년보다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반면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원재료가격이 대폭 낮아지면서 15.3% 하락하였다.

이처럼 수입물가 하락폭이 수출물가 하락폭을 상회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sup>32)</sup>은 크게 개선되었다.

〈표 II-14〉 수출입물가 상승률<sup>1)</sup>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가중치)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수 출 물 가 <1000.0>	-6.0	-5.2	-7.8	-3.9	-1.9	-7.0
수 입 물 가 <1000.0>	-7.5	-15.3	-18.1	-15.2	-13.6	-14.2
(원 재 료) <288.9>	-9.8	-34.0	-34.5	-32.4	-34.8	-34.1
(중 간 재) <491.4>	-7.4	-8.5	-12.0	-8.0	-5.7	-8.1
(최 종 재) <219.7>	-3.3	1.3	-2.0	-0.1	5.6	1.6
순상품교역조건	-	0.4	11.2	10.7	12.2	11.9
			9.8			

주 : 1) 원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오름세 확대

주택매매가격(말월 기준)은 4.4% 상승하여 전년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sup>33)</sup>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호전된 데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대구, 광주 등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주택전세가격(말월 기준)은 5.6% 상승하여 전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sup>34)</sup>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등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재건축 이주 수요 확대 등으로 전세수요 우위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강남지역의

32)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한다.

33) 2014년 12월 29일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건축조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4) 정부는 2015년 9월 주택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가월철 전세임대 조기공급,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규모 재건축으로 이주수요<sup>35)</sup>가 크게 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어 비수도권에 비해 오름폭이 컸다.

한편 주택월세가격(말월 기준)<sup>36)</sup>은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에 따른 공급 우위가 지속되면서 0.4% 하락하였다.

【표 II-15】 부동산가격 상승률 (전기 말월 대비) (단위 : %)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주택매매가격	2.1	4.4	0.8	1.3	1.3	1.0
〈수도권〉	1.3	4.4	0.7	1.3	1.4	1.0
〈지방광역시〉	3.5	6.0	1.2	1.8	1.7	1.1
주택전세가격	3.8	5.6	1.2	1.6	1.5	1.2
〈수도권〉	4.6	7.2	1.5	2.1	2.0	1.4
〈지방광역시〉	3.2	4.6	1.1	1.3	1.2	0.9
주택월세가격 <sup>36)</sup>	-1.8	-	-0.1	-0.1	-0.2	-0.2
〈수도권〉	-2.4	-	-0.2	-0.2	-0.4	-0.4
〈지방광역시〉	-0.7	-	0.1	0.0	0.0	-0.1
토지가격	2.0	2.4	0.5	0.6	0.6	0.7

주 : 1)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기준  
 2) 2015년 7월부터 표본수 확대, 월세 세분화 등을 통해 기존 월세 지수를 개편한 새로운 월세지수를 공표  
 자료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 (4) 국제수지

###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되어 1,0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흑자 규모가 전년의 889억 달러에서 1,20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표 II-16】 경상수지 요약표

(단위 : 억 달러)

	2013	2014(A)	2015p(B)	증감액(B-A)
경 상 수 지	811.5	843.7	1,058.7	215.0
상 품 수 지	827.8	888.9	1,202.9	314.0
수 출 <sup>1)</sup>	6,181.6	6,130.2	5,484.4	-641.8
수 입 <sup>2)</sup>	5,353.8	5,241.4	4,285.5	-955.9
서 비 스 수 지	-65.0	-36.8	-157.1	-120.3
본 원 소 득 수 지	90.6	41.5	59.0	17.5
이 전 소 득 수 지	-41.9	-49.8	-46.1	3.7

주 : 1) 국제수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수출 감소

수출(통관 기준)은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한 5,2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비IT제품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IT제품도 감소로 반전하였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의 경우 해외생산기지의 부품수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모바일기기용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패키징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4/4분기 들어 단가 하락폭 확대 및 물량 증가세 둔화로 큰 폭 감소하면서 연간으로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석유제품과 화공품 수출이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감소하였으며, 철강·금속제품 수출은 중국의 과잉공급 등으로 줄어들었다. 자동차 수출은 신흥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선박 수출도 해양플랜트 등에서 부진하여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35) 2015년 중 재건축 사업 이주수요 집중으로 강남4구의 주택전세가격은 10.0% 상승하였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전세난 심화 및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강남 재개발 구역 일부의 인가시기를 조정하였다.

36) 한국감정원의 월세지수 개편(2015년 7월)으로 시계열이 단절되어 2015년 7월 이전 수치와 이후 수치를 비교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하반기 중 동향만 살펴보았다.

(표 II-17)

##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 %)

	2014		2015p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 T 제 품	4.4	<23.9>	-0.3	<25.9>
반 도 체	9.2	<11.0>	0.4	<12.0>
무 선 통 신 기 기	7.3	<4.9>	8.1	<5.8>
디 스플 예 이 패 널	-2.5	<4.2>	-13.9	<4.0>
비 I T 제 품	1.7	<76.1>	-10.4	<74.1>
자 동 차	1.1	<13.2>	-5.6	<13.5>
화 공 품	1.8	<11.5>	-14.8	<10.6>
석 유 제 품	-3.8	<8.9>	-36.8	<6.1>
기 계 류	4.9	<8.6>	-0.8	<9.3>
철 강 · 금 속 제 품	8.9	<8.3>	-12.8	<7.9>
선 박	7.0	<6.8>	0.3	<7.4>
총 수 출 <sup>1)</sup>	2.3	[5,727]	-8.0	[5,268]

주 : 1) [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소유품 변동률 기준을 하는 '경상  
수지 요약표' 상의 수출과 차이가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지역별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다. 먼저 대선진국 수출은 대미 수출이 무선통신기기와 철강·금속제품을 중심으로 부진을 보이면서 감소하였으며, 대EU·일본 수출도 유로화·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신흥시장국으로의 수출은 대중 수출이 중국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입 수요 위축, 글로벌 공급과잉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디스플레이패널,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중남미·중동으로의 수출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자원 수출국들의 경기둔화, 현지 통화 약세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의 영향에 따라 자동차를 중심으로 부진하였다.

(표 II-18)

## 주요 지역별 수출

(단위 : %)

	2014		2015p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신 흥 시 장 국	0.9	<59.9>	-8.0	<59.9>
중 국	-0.4	<25.4>	-5.6	<26.0>
동 남 아	1.2	<22.2>	-7.6	<22.3>
중 남 미	-1.1	<6.3>	-14.6	<5.8>
중 동	7.7	<6.1>	-12.6	<5.8>
선 진 국	5.9	<26.9>	-6.9	<27.2>
미 국	13.3	<12.3>	-0.6	<13.3>
E U	5.7	<9.0>	-6.9	<9.1>
일 본	-7.2	<5.6>	-20.5	<4.9>
기 타	2.0	<13.2>	-10.4	<12.9>
총 수 출 <sup>1)</sup>	2.3	[5,727]	-8.0	[5,268]

주 : 1) [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소유품 변동률 기준을 하는 '경상  
수지 요약표' 상의 수출과 차이가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수입 감소

수입(통관 기준)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16.9% 감소한 4,3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체 수입의 약 60%(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이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29.6% 감소하면서 총수입의 감소를 이끌었다. 자본재 수입은 전기·전자기기와 수송장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하였다. 무선통신기기 수입이 휴대폰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며, 반도체 수입도 국내기업의 해외생산기지로부터의 역수입 물량 증가 등으로 늘어났다. 수송장비 수입의 경우 국내항공사들의 신형 항공기 도입으로 증가하였다. 소비재 수입은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2.1% 증가하였다.

〈표 II-19〉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 %)

	2014		2015p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 자 재	-0.6	<59.2>	-29.6	<50.2>
원 유	-4.5	<18.1>	-41.9	<12.6>
화 공 품	1.6	<8.3>	-9.8	<9.1>
천 연 가 스	0.7	<7.0>	-41.0	<4.9>
철 강 재	9.9	<5.1>	-21.7	<4.8>
자 본 재	3.3	<28.3>	1.3	<34.6>
전기·전자기기	4.4	<16.1>	3.5	<20.0>
(반 도 체)	5.2	<7.1>	5.0	<9.0>
(무 선 통 신)	45.9	<0.8>	40.1	<1.4>
기계류·정밀기기	1.4	<9.7>	-3.4	<11.2>
(정 밀 기 기)	1.9	<2.4>	1.2	<2.9>
(반도체제조장비)	22.2	<1.6>	1.3	<1.9>
수 송 장 비	2.6	<2.2>	6.5	<2.8>
소 비 재	12.1	<12.4>	2.1	<15.3>
내 구 소 비 재	17.4	<4.7>	8.0	<6.1>
직 접 소 비 재	15.5	<3.2>	2.3	<3.9>
비 내 구 소 비 재	11.9	<3.1>	-0.0	<3.7>
곡 물	-6.2	<1.5>	-12.7	<1.6>
내 수 용 수 입	3.6	<59.3>	-11.2	<63.4>
수 출 용 수 입	-0.4	<40.7>	-25.3	<36.6>
총 수 입 <sup>1)</sup>	1.9	[5,255]	-16.9	[4,365]

주 : 1) [ ]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소유권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수지 요약표' 상의 수입과 차이가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적자폭 확대 및 운송·건설수지 흑자폭 축소로 1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여행수지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여행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운송수지는 교역 물동량 축소와 운임 하락으로 흑자 규모가 30억 달러로 줄었으며 건설수지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가 105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는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3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II-20〉 서비스수지

(단위 : 억 달러)

	2013	2014	2015p
서 비 스 수 지	-65.0	-36.8	-157.1
가 공 서 비 스	-57.1	-56.4	-54.9
운 송	73.5	61.9	30.2
여 행	-70.2	-53.6	-96.7
건 설	155.2	152.9	104.9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55.1	-53.8	-36.3
기타사업서비스	-104.6	-95.3	-108.1
기 타 <sup>1)</sup>	-6.8	7.5	3.9

주 : 1) 보험·금융·통신·정부서비스 등  
 자료 : 한국은행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 중 이자수지가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59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II-21〉 본원 및 이전소득수지

(단위 : 억 달러)

	2013	2014	2015p
본 원 소 득 수 지	90.6	41.5	59.0
급 료 및 임 금	-4.5	-4.5	-0.5
투 자 소 득	95.0	46.0	59.5
수 입	293.9	260.5	271.6
(배 당 금)	170.1	150.1	157.2
(이 자)	123.8	110.4	114.4
지 급	198.8	214.5	212.0
(배 당 금)	139.5	144.4	154.5
(이 자)	59.3	70.1	57.5
이 전 소 득 수 지	-41.9	-49.8	-46.1
수 입	87.8	88.7	89.2
지 급	129.7	138.6	135.4

자료 : 한국은행

##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

준비자산을 제외한 금융계정은 977억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하였다. 직접투자는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가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으나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면서 순자산이 226억 달러 증가하였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늘어난 데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순회수로 전환됨에 따라 순자산 규모가 486억 달러 확대되었다. 기타투자는 은행부채 순상환 등의 영향으로 순자산이 240억 달러 증가하였다.

〈표 II-22〉 금융계정 및 자본수지

(단위 : 억 달러)

	2014	2015p				
		연간	I	II	III	IV
금 융 계 정 <sup>1)</sup>	893.3	1,097.3	238.0	286.7	296.2	276.4
(준비자산 제외)	(714.5)	(976.8)	166.9	213.7	339.0	257.2
직 접 투 자	187.7	226.0	43.9	74.7	49.2	58.2
직접투자(자산)	280.4	276.4	57.0	70.2	78.0	71.1
직접투자(부채)	92.7	50.4	13.1	-4.4	28.8	12.9
증 권 투 자	306.1	485.9	78.4	69.9	151.0	186.6
증권투자(자산)	398.2	413.1	103.3	160.0	41.9	107.8
증권투자(부채)	92.1	-72.9	24.9	90.1	-109.1	-78.8
파 생 금 융 상 품	-38.3	25.3	-0.4	-4.6	40.4	-10.1
기 타 투 자	259.0	239.5	45.1	73.7	98.4	22.3
기타투자(자산)	384.1	155.0	27.7	105.3	75.2	-53.1
기타투자(부채)	125.1	-84.5	-17.4	31.6	-23.3	-75.4
준 비 자 산 <sup>2)</sup>	178.9	120.5	71.1	73.0	-42.9	19.3
자 본 수 지	-0.1	-0.6	-0.2	-0.3	-0.3	0.1

주 : 1) 순자산 기준, 자산·부채 증가는 (+), 자산·부채 감소는 (-)  
자료 : 한국은행

총외채(대외채무 기준)는 2015년 말 현재 3,966억 달러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는 1,087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77억 달러 감소하였고 장기외채는 2,878억 달러로 202억 달러 감소하였다. 단기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2015년 말 현재 대외채권은 보험사의 해외채권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말에 비해 362억 달러 늘어난 7,1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은 전년 말의 2,592억 달러에서 3,232억 달러로 640억 달러 확대되었다.

〈표 II-23〉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sup>1)</sup>  
(기말 기준)

(단위 : 억 달러)

	2014 (C)	2015p				증감액 (D-C)
		I	II	III	IV(D)	
대외채무(A) <sup>2)</sup>	4,244 <30.1>	4,193	4,236	4,082	3,966 <28.8>	-278
단 기	1,164 (27.4)	1,156 (27.6)	1,252 (29.5)	1,196 (29.3)	1,087 (27.4)	-77
장 기	3,080 (72.6)	3,036 (72.4)	2,985 (70.5)	2,887 (70.7)	2,878 (72.6)	-202
대외채권(B)	6,836	6,832	7,169	7,206	7,197	362
외환보유액	3,636	3,628	3,747	3,681	3,680	44
순대외채권 (B-A)	2,592	2,639	2,933	3,123	3,232	640

주 : 1) ( ) 내는 구성비(%)  
2) < > 내는 명목 GDP대비 비율(%)  
자료 : 한국은행

## (5) 지역경제동향

권역별 생산활동을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은 동남권, 대경권 등에서 조선과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및 석유정제·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제주권에서는 음식료품 생산이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sup>37)</sup>을 살펴보면 소매판매가 저유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건축착공면적이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강원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가 기준치(100)를 하회하였다.

수출은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등에서 석유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충청권 등에서는 반도체와

휴대폰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는 수도권, 충청권 및 대경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에서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수도권, 동남권 등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및 전기·가스요금 하락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1% 이내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수도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충청권에서는 상승률이 축소되었다.

〈표 II-24〉

권역별 주요 지표

(단위 : %)

	수도권 <sup>1)</sup>		동남권 <sup>1)</sup>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sup>1)</sup>		강원권		제주권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b>생 산</b>														
제조업생산지수 <sup>2)</sup>	3.2	1.8	-1.9	-3.8	1.6	3.1	-1.0	3.7	0.2	-3.5	-1.0	-1.1	1.3	6.5
서비스업생산지수 <sup>2)</sup>	2.4	2.3	2.3	2.8	2.5	2.9	1.2	2.0	2.2	2.3	1.9	2.8	3.6	6.1
<b>수 요</b>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1.5	2.9	0.7	3.1	1.0	3.6	0.5	2.7	0.7	3.0	2.6	4.1	5.7	7.8
건축착공면적 <sup>2)</sup>	6.0	72.6	24.5	11.9	-9.8	30.4	8.0	0.4	15.4	1.1	3.5	26.4	32.6	44.8
설비투자 BSI (기준치=100)	94	91	94	95	95	97	96	94	95	85	103	101	94	101
수 출 <sup>3)</sup>	7.6	-3.2	1.0	-14.4	2.5	2.9	-5.1	-15.9	-2.5	-14.7	-4.8	-9.1	3.0	13.8
<b>고 용</b>														
취업자 수 증감 <sup>4)</sup>	31.3	14.7	3.6	3.7	8.4	6.7	2.1	3.8	5.4	1.1	1.3	2.0	1.2	1.7
실업률	4.0	4.2	3.1	3.3	3.3	3.2	2.7	2.4	3.4	3.3	3.1	3.3	2.0	1.9
고용률	60.9	60.8	58.0	58.0	61.4	61.7	59.1	59.5	60.7	60.6	56.5	57.5	66.6	67.9
<b>물 가</b>														
CPI <sup>5)</sup>	1.4	1.0	1.3	0.7	0.8	0.1	1.2	0.1	1.2	0.4	0.7	0.0	1.1	0.6
주택매매가격 <sup>6)</sup>	1.3	4.4	2.5	4.2	3.1	0.7	0.2	2.3	5.6	6.5	1.2	3.6	4.7	10.4
주택전세가격 <sup>6)</sup>	4.6	7.2	2.4	3.0	3.2	1.2	0.7	1.8	5.0	5.4	1.9	3.8	4.2	9.5

주 :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3) 통관기준, 전년 대비 증감률    4) 전년 대비 증감(만 명)    5) 전년 대비 상승률    6) 전년 말월 대비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국민은행

37) 소매판매액지수, 건축착공면적, 설비투자BSI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소비, 건설 및 설비투자 동향을 추정하였다.

## 2. 금융 · 외환시장

### 가. 국제금융시장

#### 국제금리 국가별로 상이한 움직임

주요국의 단기금리(3개월 만기 국제 수익률 기준)는 통화정책 차별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단기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에 머물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및 실제 인상<sup>38)</sup>에 따라 11월 이후 상승하였다. 유로지역의 단기금리는 ECB의 양적완화 조치 시행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본의 단기금리는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이 지속<sup>39)</sup>되면서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였다.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제수익률 기준)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변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연중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상반기 중 미국경제의 성장세 확대, 국제유가의 반등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3/4분기 들어 중국발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일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10월 이후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로 재차 반등하면서 전년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다. 유로지역의 장기금리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로 상승하였다가 7월 이후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sup>40)</sup>되면서 반락하였으나 연간으로는 경

제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말보다 0.09%포인트 상승하였다. 일본의 장기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진 데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하였다.

신흥시장국의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과 신흥시장국 채권지수(EMBI+, Emerging Market Bond Index+) 가산금리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채무부담 증대,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가능성 등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21bp와 23bp 상승하였다.

〈표 II-25〉 주요 국제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단위 : 연%, bp)

	2014	2015			
		I	II	III	IV
<b>단 기 금 리<sup>a)</sup></b>					
(미 국)	0.04	0.02	0.01	-0.02	0.16
(유 로 지 역)	-0.05	-0.16	-0.18	-0.20	-0.45
(일 본)	0.00	0.01	0.00	-0.02	-0.04
<b>장 기 금 리<sup>b)</sup></b>					
(미 국)	2.17	1.92	2.35	2.04	2.27
(유 로 지 역)	0.54	0.18	0.76	0.59	0.63
그 리 스	9.75	11.63	15.42	8.28	8.29
(일 본)	0.32	0.41	0.47	0.36	0.27
<b>리스크 프리미엄(bp)</b>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sup>c)</sup>	253	256	282	320	315
(Euribor-OIS 스프레드)	103	115	106	104	104
(신흥시장국 CDS 프리미엄) <sup>d)</sup>	338	320	309	386	359
(신흥시장국 가산금리) <sup>e)</sup>	387	402	394	443	410

주 : 1) 3개월 만기 국제 수익률 기준  
 2)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기준  
 3)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4) Markit이 15개 신흥시장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5) JP Morgan이 신흥시장국 가산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는 EMBI+ 기준  
 자료 : Bloomberg, JP Morgan, Markit

38) 미 연준은 2015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0.0~0.25% → 0.25~0.5%) 인상하였다.

39)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및 성장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의 증가목표(연간 80조 엔)를 2015년 중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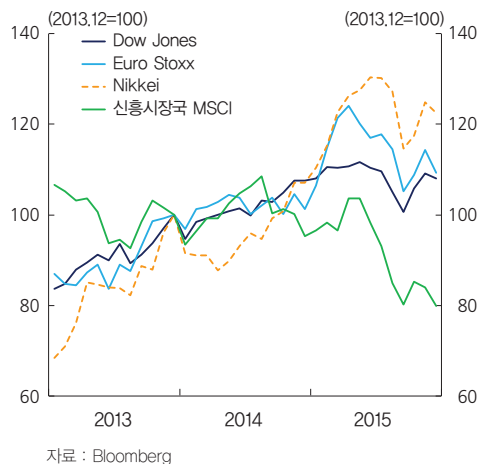
40) 2015년 7월 13일 그리스와 채권단의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을 그리스, 독일 등 회원국 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그리스는 향후 3년간 85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다.

### 신흥시장국 주가 하락

선진국의 주가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연초 일본과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관련 리스크의 부각<sup>41)</sup> 등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다우존스(Dow Jones) 지수는 노동시장 개선과 양호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가 급락, 글로벌 경기 부진 가능성 등으로 전년 말 대비 2.2% 하락하였다. ECB의 양적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연초 급등하였던 유로지역의 유로스톡스(Euro Stoxx) 지수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연간 상승폭이 3.8%에 머물렀다. 일본의 닛케이(Nikkei) 지수는 상반기 중 엔화 약세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 등으로 크게 반락하여 전년 말 대비 9.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중국·인도의 기준금리 인하,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상반기에 일시 상승하였던 신흥시장국 주가(신흥시장국 MSCI 지수 기준)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전년 말 대비 17.0% 급락하였다.

〈그림 II- 4〉 주요 선진국 주가 및 신흥시장국 MSC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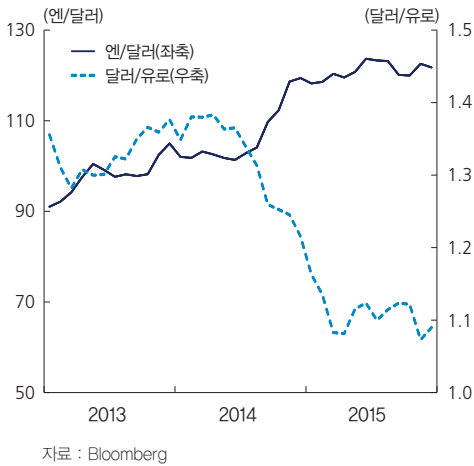
###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강세

미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모두 강세를 나타내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ECB의 양적완화정책 및 추가완화 조치 시행, 미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및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강세를 보여 전년 말 대비 11.4% 절상되었다. 엔화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이어갔으나 절상폭은 전년 말 대비 0.5%에 그쳤다. 이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수요 증가,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 약화<sup>42)</sup> 등에 기인한다.

41) 중국의 2015년 GDP 성장률이 6.9%로 1990년의 3.9%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2월 말 현재 연중 최고치(6월 12일, 5,166) 대비 31.5% 하락하였다.

42) 일본은행의 물가목표 달성시점 연기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의 양적·질적 완화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II- 5) 주요 환율



## 나. 국내금융시장

### (1) 금리

#### 국내 장기금리 큰 폭 하락

2015년 들어 국고채(3년) 금리는 3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ECB, 호주중앙은행 등의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4월 중순 1.70%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하였다. 다만 이후에는 미국, 독일 등의 국채금리 급등,<sup>43)</sup> 안심전환대출 관련 대규모 장기물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발행<sup>44)</sup>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5월 하순경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sup>45)</sup> 등으로 다시 하락 반전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하반기 들어 국고채(3년) 금리는 1.75%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8월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실시 및 중국 증시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지연 기대까지 높아지면서 9월 30일 사상 최저치인 1.57%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12월 FOMC 회의까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면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12월 FOMC 회의에서의 향후 완만한 인상 속도 시사, 중국 증시 불안 재현, 국제유가 약세 등으로 다시 하락하여 연말에는 전년 말 대비 0.44%포인트 하락한 1.66%를 나타내었다.

한편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국고채(3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역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9월 이후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로 미국 국채(10년) 금리가 국고채(10년) 금리를 상회하는 한·미 국채금리 간 역전현상<sup>46)</sup>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단기금리인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11월 중에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강화,<sup>47)</sup>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확산, 연말 자금수요 등으로 일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한

43) 4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독일, 미국 등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였다.

4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하여 5~6월 중 7조 9천억 원의 장기물(10년 이상) MBS를 발행하였다.

45) 다만 6월 11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는 기준금리 저점인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 가능성 등으로 국고채(3년) 금리는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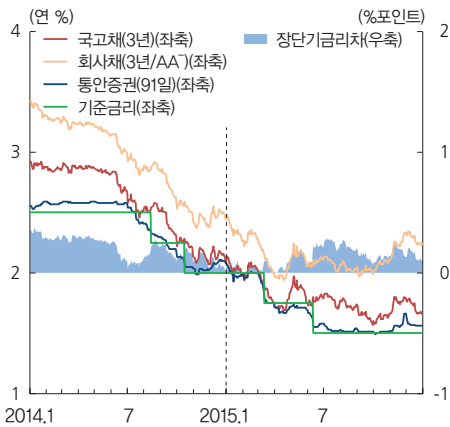
46)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미 국채의 경우 만기가 동일한 여타국 국고채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47) 은행에 대해서는 2015년 도입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2019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증권사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국은행의 여유로운 유동성관리 등에 힘입어 다시 하락하였다.

회사채(3년, AA-등급) 금리는 상반기 중 국고채(3년) 금리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크게 하락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신용경계감 증대 등으로 상승 전환하였으며 연말에는 전년 말보다 0.20%포인트 낮아진 2.24%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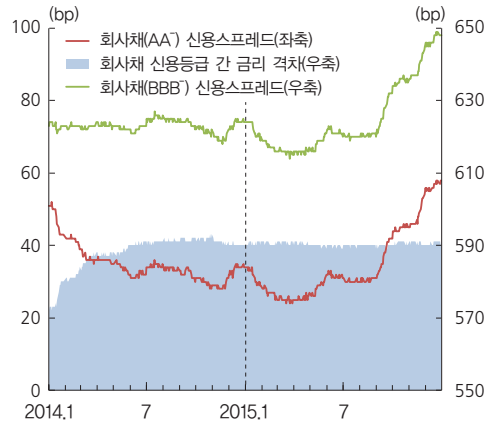
〈그림 II-6〉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sup>4)</sup>



주 :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금리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8월까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9월 이후 기업업황 부진 지속에 따른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기업구조조정 이슈 부각 등으로 2015년 중 0.24%포인트 확대되었다. 한편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BBB-등급 - AA-등급)는 우량등급과 비우량등급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연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7〉 회사채 신용스프레드<sup>1)</sup>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sup>2)</sup>



주 : 1) 국고채(3년) 금리 대비  
 2) 회사채(3년, BBB-) 금리 - 회사채(3년, AA-) 금리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은행 여수신금리 큰 폭 하락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전년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여신금리는 3~4월 중 저금리 안심전환대출 취급<sup>48)</sup>의 영향도가세하면서 큰 폭 하락하는 등 10월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1월 이후 여신금리는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노력 약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높아져 12월 중 전년 동월 대비 0.45%포인트 하락한 3.46%를 나타내었다. 수신금리도 여신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9월 중 사상 최저 수준인 1.54%로 낮아진 후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소폭 반등하여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0.44%포인트 하락한 1.72%를 나타

48)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연 2.5~2.6%대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015년 3~4월 중 두 차례에 걸쳐 40조 원 한도로 출시하였다.

내었다. 12월 중 은행의 여수신금리차는 전년 동월보다 0.01%포인트 낮아진 1.7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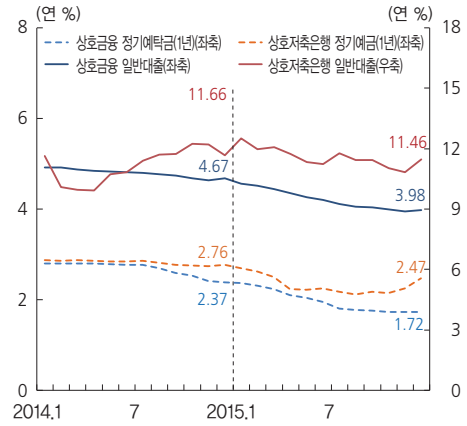
(표 II-26) 은행 여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단위 : 연 %, %포인트)

	2014		2015				D-C
	12월 (C)	3월	6월	9월	12월 (D)		
여신금리(A)	3.91	3.61	3.49	3.43	3.46	-0.45	
기업대출금리	4.07	3.81	3.61	3.56	3.62	-0.45	
가계대출금리	3.55	3.21	3.22	3.11	3.23	-0.32	
수신금리(B)	2.16	1.92	1.67	1.54	1.72	-0.44	
여수신금리차 (A-B, %포인트)	1.75	1.69	1.82	1.89	1.74	-0.01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상호금융의 여수신금리도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12월 중 상호금융의 여신 및 수신금리는 전년 말월 대비 각각 0.69%포인트 및 0.65%포인트 하락한 3.98% 및 1.72%를 나타내었다.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금리도 크게 낮아진 가운데 수신금리의 경우 대출재원 확보를 위한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특판 등으로 하락폭이 다소 제한되었다. 12월 중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금리는 전년 말 대비 0.20%포인트 하락한 11.46%를, 수신금리는 0.29%포인트 하락한 2.47%를 나타내었다.

(그림 II-8)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2) 자본시장

### 코스피 큰 폭 상승 후 반락

코스피는 2015년 초반에는 주요국의 통화완화기조의 영향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1~3월 중 ECB를 비롯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 약화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4월에는 국제유가 하락, 저금리 등에 따른 국내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어 4월 23일 연중 최고치인 2,173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에는 대외 리스크 전개 양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를 지속하였다. 5~8월 중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메르스 사태, 엔화 약세 등에 따른 국내기업 실적 부진 우려가 더해짐에 따라 큰 폭 하락하여 8월 24일 연중 최저치인 1,830을 기록하였다. 9~10월 중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지속, 중국의 예대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sup>49)</sup> 등으로 일시 반등하였으나 11월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재차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연말 코스피는 전년 말 대비 2.4% 상승에 그친 1,961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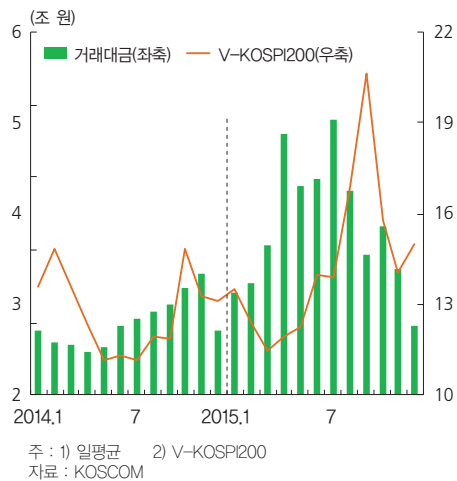
코스닥지수는 정부의 중소기업 성장촉진 정책, 바이오·핀테크 산업 육성방안 시행 등으로 7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sup>50)</sup>하였다가 8월 이후 코스피 약세 지속과 더불어 반락하였다. 코스닥지수의 연중 상승률은 25.7%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II-9)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주식거래대금(코스피, 일평균 기준)은 상반기 중 주가 강세, 6월 15일부터 시행한 가격제한폭 확대<sup>51)</sup> 등으로 전년의 4조 원에 비해 큰 폭 증가한 5조 4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II-10) 코스피 거래대금<sup>1)</sup> 및 추가변동성<sup>1), 2)</sup>



추가변동성(V-KOSPI200)<sup>52)</sup>은 연초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6월 이후 중국 증시 불안 등 대외 리스크 부각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8월 24일에는 V-KOSPI200이 28.6까지 상승하여 유럽 재정위기 시기인 2011년 12월 9일의 3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외국인은 연중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3조 9천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하였다. 외국인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5월까지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6월 이후에는 중국 증시 불안, 국제유가 하락,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우려 등으로 큰 폭의 순매도<sup>53)</sup>를 보였다. 연간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 시기인 2011년에 9조 4천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

49) 중국인민은행은 10월 23일 대출금리(1년 만기)를 기존 4.6%에서 4.35%로, 예금금리(1년 만기)를 1.75%에서 1.50%로 낮췄으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하였다.

50) 7월 20일 코스닥지수는 783으로 2007년 11월 7일(79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51)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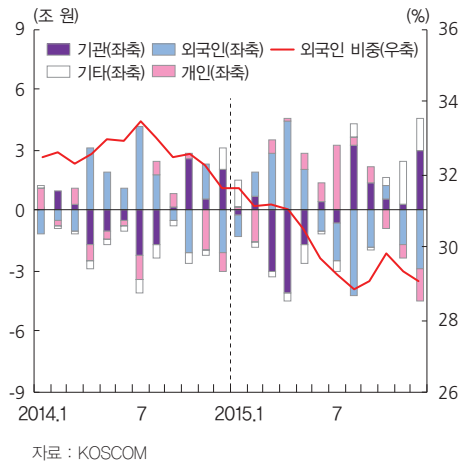
52)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KOSPI200 지수의 변동성으로,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상품의 가격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53) 다만 10월 중에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ECB의 추가 완화 실시 기대 등으로 일시 순매수(+6천억 원)하였다.

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은 2014년 말 31.6%에서 2015년 말 29.1%로 하락하였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연기금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순매도로 연중 7천억 원을 순매도하였다. 개인투자자는 연중 2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II-11〉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및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한편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형 기업 공개(IPO) 및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sup>54)</sup> 상장제도 개선<sup>55)</sup> 등으로 전년의 5조 8천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8조 원을 기록하였다.

〈표 II-27〉 주식발행<sup>1)</sup>

(단위: 억 원)

	2014		2015			
	연간	연간	I	II	III	IV
유상증자	40,129	48,553	14,835	2,696	14,129	16,893
기업공개	17,533	31,568	576	4,246	12,530	14,216
합 계	57,662	80,121	15,411	6,942	26,659	31,109

주: 1) 증권신고서 제출(공모) 기준, 납입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채권 발행 및 거래 규모 증가

채권시장에서는 순발행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채권종류별로 보면 국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sup>56)</sup> 등으로, 자산유동화채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관련 대규모 주택저당증권 발행<sup>57)</sup> 등으로, 은행채는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재원 조달,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강화<sup>58)</sup>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RP 매각 등 여타 유동성조절 수단의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순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회사채는 대우조선해양 사태,<sup>59)</sup> 기업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순상환되었다.

54) 미래에셋생명보험(3천억 원) 등은 기업공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9,560억 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4,142억 원) 등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55) 한국거래소는 2015년 3월에 상장 활성화 위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심사제도(상장 심사항목 축소, 심사기준 구체화 등), 4월에는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상장 관련 제도(기술평가 수수료 인하 및 평가기간 단축 등)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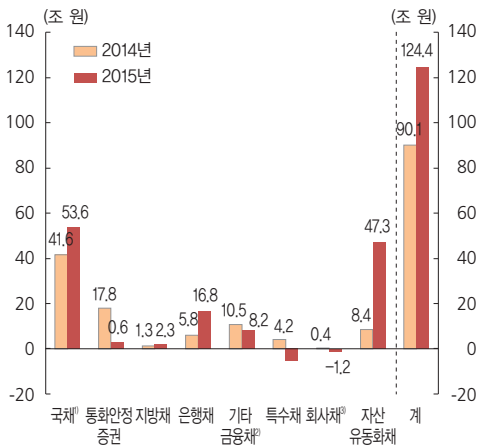
56)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가물, 수출 부진 등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고채를 7조 6천억 원 추가 발행하였다.

57) 주택저당증권 발행규모는 2014년 14조 5천억 원에서 2015년 55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58) LCR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기관에 도입한 규제비율로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 내 순현금유출액'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2014년 8월 26일 일반은행 기준으로 동 비율을 2015년 80%(특수은행 60%)에서 2019년까지 매년 5%(10%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은행채 발행으로 30일 내 순현금유출액을 낮추는 방식 등을 통해 LCR 비율을 높일 수 있다.

59) 7월 15일, 일각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동 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이 우려되면서 동사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회사채 가격도 급락하였다.

〈그림 II-12〉 채권발행  
(순발행액 기준)



주 : 1) 정부보증채(예금보험기금채, 부실채권정리기금채)를 제외한 국고채, 국민주택채, 재정증권  
 2) 카드채, 할부금융채, 리스채  
 3) 금융자주회사, 유통화전문회사, 사모 제외  
 자료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채권 거래 규모(일평균)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분기별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던 1/4분기와 2/4분기에는 거래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12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연말 기관의 회계결산 등으로 거래 규모가 감소하였다. 채권종류별로는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의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 II-28〉 채권거래  
(일평균 기준)

(단위 : 조 원)

구분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국채	17.1	18.2	19.4	19.7	17.9	16.0
특수채	1.2	1.2	1.2	1.6	1.0	0.9
통화안정증권	5.0	5.1	5.7	5.7	4.7	4.3
은행채	1.5	1.7	1.7	1.6	1.7	1.6
금융채	0.9	0.7	0.8	0.8	0.8	0.6
회사채	0.6	0.5	0.5	0.5	0.5	0.4
합계	26.5	27.5	29.5	29.9	26.8	24.0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1조 원 늘어난 데 그쳐 전년의 5조 7천억 원 증가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주요국의 통화완화 기조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미국 달러화 강세, 신흥시장국의 외화 유동성 사정 악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큰 폭의 감소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다만 4/4분기 중에는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표 II-29〉 외국인 채권 순매수 및 보유 증감

(단위 : 조 원, %)

구분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순매수	37.2	34.8	8.6	14.7	4.2	7.2
보유 증감 <sup>1)</sup>	5.7	1.0	2.2	3.0	-3.8	-0.5
보유 비중 <sup>2)</sup>	6.4	6.1	6.4	6.4	6.1	6.1

주 : 1) 순매수에서 만기 도래분 제외 2) 기간 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3) 금융기관 여수신

#### 은행 수신 증가 규모 큰 폭 확대

2015년 중 은행 수신은 113조 2천억 원 증가하여 전년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수시입출식예금과 요구불예금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단기 대기성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정기예금은 예대율 규제 완화, 은행권이 보유한 안심전환대출채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앞 양도 등으로 예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은행의 동 예금 조달 유인이 약화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반면 낮은 예대율의 영향으로 CD, 은행채 등 예대율 산정 시 예수금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성수신은 상당폭 증가하였다. 한편 외화예금은 달러화 예금이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으나 위안화 예금이 중국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 등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 II-30〉 주요 금융기관 수신  
(증감액 기준)

(단위: 조 원)

	2014	2015				
		연중	I	II	III	IV
은행수신 <sup>1)</sup>	80.9	113.2	20.3	36.2	26.2	30.5
요구불예금	11.4	32.6	7.7	13.3	10.0	1.6
저축성예금	59.4	50.6	4.3	14.6	9.4	22.3
수시입출식	37.6	59.9	13.9	17.9	12.0	16.1
정기예금	19.1	-8.5	-8.8	-3.9	-2.3	6.5
외화예금	17.3	3.3	2.4	3.7	-1.5	-1.3
시장성수신 <sup>2)</sup>	-7.2	26.8	5.9	4.6	8.4	7.9
C D	-5.8	9.2	1.0	1.7	4.2	2.4
은행채 <sup>3)</sup>	1.0	16.4	4.6	2.1	4.2	5.5
자산운용회사	42.4	44.4	23.5	15.2	8.1	-2.3
M M F	16.0	11.0	19.1	4.2	-4.4	-7.8
주식형펀드	-6.2	2.1	-0.5	-2.4	4.2	0.7
채권형펀드	14.8	14.4	6.0	6.1	1.7	0.6
신종펀드	12.7	16.0	1.2	4.5	4.4	5.9
금전신탁 <sup>4)</sup>	38.6	34.2	24.8	8.3	-7.9	9.0
상호저축은행	-0.7	5.3	1.5	0.4	0.9	2.5
신용협동기구 <sup>4)</sup>	25.5	27.7	5.5	8.3	5.4	8.5

주: 1) 합병 및 분사에 따른 은행채 편입·이관 효과 제외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은행·증권사·보험사 금전신탁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수신은 44조 4천억 원 늘어나 전년보다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다. 머니마켓펀드(MMF)로의 자금유입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채권형펀드가 지난해와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신종펀드는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주식형펀드는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자금 유입 등으로 늘어나면서 연간으로는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다. 금전신탁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투자자들의 수익 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신용협동기구 수신은 비과세 혜택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상호저축은행 수신도 일부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종료 이후 영

업활동의 본격화 등으로 증가로 전환되었다.

###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기업 및 가계 대출은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은행의 기업대출을 보면 대기업대출이 대출 수요 감소, 은행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전년 대비 4조 3천억 원 줄어 들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 및 기술신용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54조 3천억 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보험기관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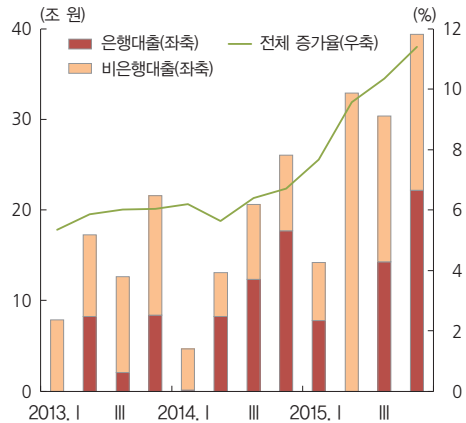
**(표 II-31) 금융기관 대출 (증감액 기준)** (단위: 조 원)

	2014 <sup>4)</sup>	2015				
		연간	I	II	III	IV
은행대출	86.3	96.7	23.0	10.7	30.7	32.4
대기업	10.0	-4.3	0.3	-4.6	0.8	-0.8
중소기업	34.8	54.3	15.1	16.1	16.2	6.8
개인사업자 <sup>5)</sup>	18.8	29.7	5.2	8.3	9.9	6.3
가계	38.5	44.1	7.8	-0.2	14.3	22.2
비은행대출						
기업 및 기타 <sup>2)</sup>	18.5	18.1	1.9	3.1	6.3	6.8
가계 <sup>3)</sup>	26.0	72.7	6.4	32.9	16.1	17.2
신용협동기구	19.2	19.1	0.6	4.2	5.7	8.5
보험기관	4.4	8.0	0.8	1.5	2.0	3.6
기타금융중개회사	-3.5	38.3	3.2	25.4	6.5	3.2

주: 1) 간이조사 기준  
 2)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기관 기준  
 3)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기준  
 4) 은행대출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합병(12월)에 따른 편입효과 제외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44조 1천억 원<sup>60)</sup> 증가하여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 매매거래 및 분양시장 호조, 저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였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은 72조 7천억 원 증가하며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신용협동기구와 보험기관의 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기타 금융중개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및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이 늘어나고 은행권이 보유한 안심전환대출채권이 동 공사로 양도<sup>61)</sup>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II-13) 가계대출 증감<sup>1)</sup> 및 증가율<sup>2)</sup>**



주: 1) 기간 중 2)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 통화 증가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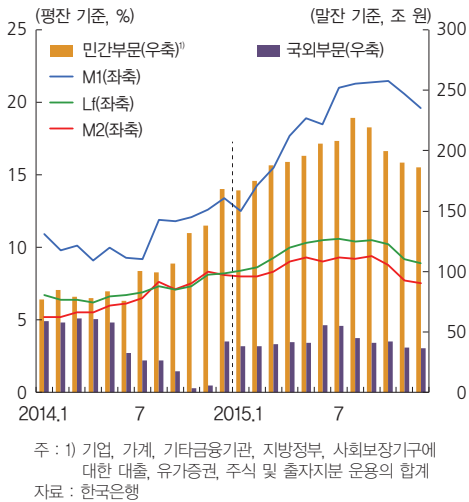
통화 증가율(평잔 기준)은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먼저 M2(광의통화) 증가율은 은행대출

60)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은행의 정책모기지론(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포함할 경우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약 78조 원으로 추정된다.

61) 2015년 3~4월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31조 7천억 원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었는데, 이중 31조 5천억 원이 2015년 5~11월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었다.(나머지 2천억 원은 원리금 상환에 쓰임)

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간으로 전년의 6.6%에서 8.6%로 높아졌다. 월별로 살펴보면 M2 증가율이 9월 9.4%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10월 이후 기저효과 등으로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sup>62)</sup>된 데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국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도 축소되면서 12월에는 7.5%로 낮아졌다. Lf(금융기관유동성) 증가율은 전년의 7.0%에서 9.7%로, M1(협의통화) 증가율도 전년의 10.9%에서 18.6%로 높아졌다.

〈그림 II-14〉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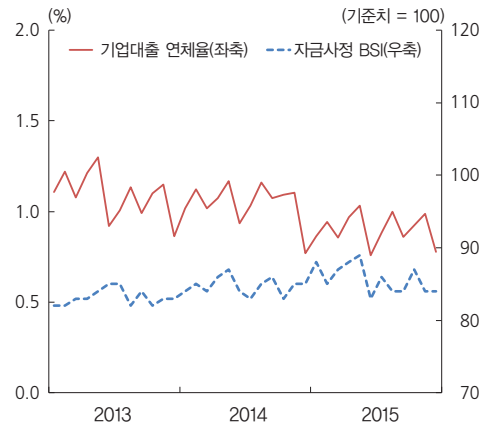
## (4) 자금사정

### 기업의 자금사정 대체로 양호

기업의 자금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기준)은 연평균<sup>63)</sup> 1.0%로 전년의 1.1%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의 연체율이 조선업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기업 자금사정 BSI는 2015년 들어 소폭 상승하다가 연말에는 전년 평균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림 II-15〉 기업대출 연체율<sup>1)</sup> 및 자금사정 BSI<sup>2)</sup>



62) 민간신용 증가를 견인해 온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큰 폭 증가함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예금취급기관의 회사채·CP 등 유가증권 투자도 2015년 9월 이후 신용 경계감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63) 매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등으로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분기 말월을 제외한 평균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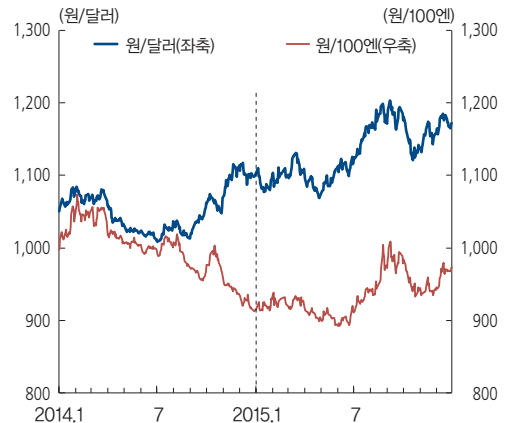
## (5) 외환시장

### 원/달러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은 연초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3월 16일 1,131.5원까지 상승하였다가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미국 달러화 강세 조정,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4월 29일 연중 최저점인 1,068.6원까지 하락하였다. 5월 이후에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Yellen 연준의장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등으로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 우려 및 중국 등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도 가세하면서 9월 7일 연중 최고점인 1,203.7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가 확대되면서 10월 19일 1,121.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미국과 주요국 간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 부각,<sup>64)</sup> 중국 경기 둔화 및 위안화 추가 절하, 저유가 지속 등으로 상승하였다. 연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72.5원으로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전년 말에 비해 6.2% 절하되었다.

한편 원/엔 환율(100엔당)은 글로벌 미국 달러화 강세 기조 하에서 중국 등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우려가 가세하며 원화는 큰 폭 절하된 반면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로 소폭 약세에 그침에 따라 상당폭 상승하였다. 연말 기준 원/엔 환율은 974.1원으로 원화가 일본 엔화에 대해 전년 말 대비 6.3% 절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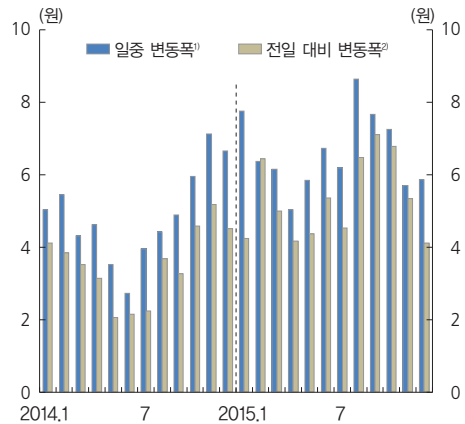
〈그림 II-16〉 원/달러 및 원/엔 환율<sup>1)</sup>



주 : 1) KEB하나은행 당일 최고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자료 : 한국은행, KEB하나은행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연평균 각각 6.6원 및 5.3원을 기록하여 전년(각각 4.9원 및 3.5원)에 비해 상당폭 확대되었다.

〈그림 II-17〉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 1) (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당일 종가 - 전일 종가) 절대값의 평균  
자료 : 한국은행

64) 10월 이후 매파적(hawkish)으로 평가된 FOMC 의사록(10월)의 영향으로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는 강화된 반면 유로지역 및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ECB 및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조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ECB는 12월 정책위원회에서 예금금리를 추가 인하(-0.2% → -0.3%)하고 양적완화 프로그램 기간의 종료시점을 2016년 9월에서 2017년 3월로 연기하였다.

##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하락

외환스왑레이트<sup>65)</sup>(3개월물)와 통화스왑(CRS, Currency Swap) 금리<sup>66)</sup>(3년물)는 하락하였다. 외환스왑레이트는 상반기 중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등 외화자금 수요 확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7월 이후 비거주자가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을 대규모 순매수하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 대한 선물환 순매도 포지션을 헤지(hedge)하는 과정에서 외화자금이 공급되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가, 12월 들어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등으로 재차 하락하였다. 통화스왑금리는 연초 수입업체의 선물환 매수, 국고채금리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6월 이후 그리스 디폴트 우려, 중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10월 이후에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 등에 따른 국고채금리 상승에 연동되어 소폭 상승하였다. 연말 기준으로 외환스왑레이트는 0.75%, 통화스왑금리는 1.30%로 전년 말에 비해 각각 0.91%포인트, 0.06%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 II-18〉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자료 : 한국은행, 한국자금중개(주), 한국 톨렛프레본 외국환중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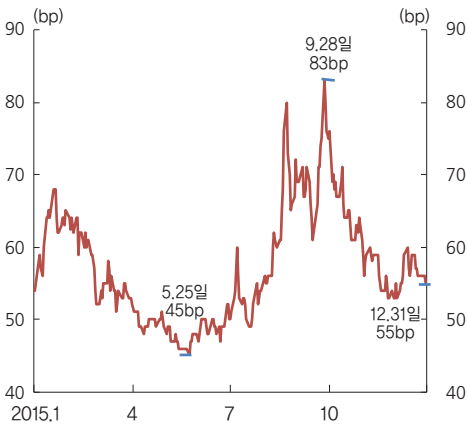
## 대외 외화차입 여건 대체로 양호

2015년 중 대외 외화차입 여건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중국 경기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시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외화표시 채권의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CDS프리미엄은 상반기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강화, 그리스 채무협상 난항,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불안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로 전환하여 83bp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중국의 금리인하 등으로 신흥국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되면서 12월 말 55bp까지 하락하였다.

65)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 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간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66) 통화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비슷하지만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한다는 점, 최초 교환 시 및 만기 시 교환 원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통화스왑금리는 LIBOR 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말한다. 통화스왑금리와 외환스왑레이트 모두 시중에 외화유동성이 풍부하여 외화를 원화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승하고, 반대로 외화유동성이 부족하여 외화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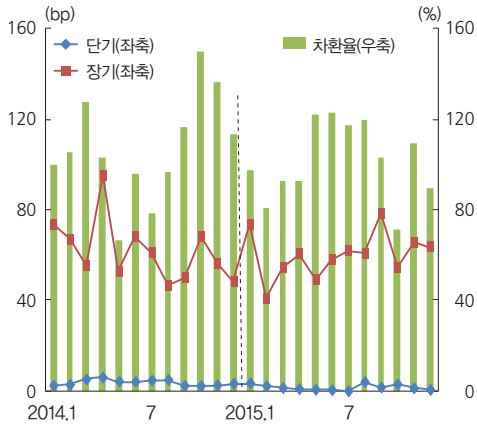
〈그림 II-19〉 CDS 프리미엄<sup>1)</sup>



주 : 1)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년 만기 기준  
 자료 : Bloomberg

외화차입금의 만기연장비율을 의미하는 차환율은 양호한 외화 자금사정 등으로 대체로 100%를 상회하였고 장·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 또한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그림 II-20〉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차환율<sup>1)</sup>, 장·단기 가산금리<sup>2)</sup>



주 : 1) 기간 중 신규 차입액/기간 중 만기도래액  
 2) LIBOR 기준 가산금리(9개 국내은행 기준), 차입금액 가중 평균  
 자료 : 한국은행



# III

## 업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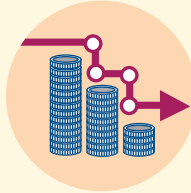


# 2015 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



물가안정목표 설정  
(2016~2018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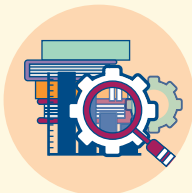


기준금리 인하  
(3월, 6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운영  
(5조원 증액)

## 금융안정 책무 수행



금융시스템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 개최



비상대응체제 가동으로  
시장안정 도모  
「통화금융대책반」 운영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 수행

## 조직 및 인력의 경쟁력 강화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사연구 강화



대국민 소통 및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합리화  
조직개편  
조직가치 설정

# 1. 중점추진전략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을 완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앙은행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행적 차원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 수행 목표와 우선순위를 부여한 3년 시계의 중점추진전략을 2012년부터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동 전략에 따라 당해 연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중점추진전략은 전년도 전략목표에 「화폐의 원활한 공급 및 신뢰 제고」라는 발권업무 부분의 전략목표를 새롭게 포함하여 주요 업무 분야별로 9개의 전략목표와 32개의 전략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각 절에는 업무분야별 주요 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표 III-1〉 2015년 중점추진전략 목표 및 계획

<b>1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b>
금융경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 구축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통화정책효과 분석의 고도화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b>2 금융안정 책무의 효과적 수행</b>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적 수행 체계 구축
금융안정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조사연구 강화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b>3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도모</b>
금융·외환시장의 충격대응능력 제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현안에 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b>4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효율성 확보</b>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리스크관리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의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진화 도모

<b>5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사연구 강화</b>
경제 분석 및 예측의 정도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 등에 따른 변화된 통계편제시스템의 정착
경제전망 및 분석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및 확충
대내외 연구교류 강화
<b>6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b>
외화자산의 안정적 운용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투자다변화 전략의 효율적 추진
외화자산 운용역량 강화
<b>7 화폐의 원활한 공급 및 신뢰 제고</b>
화폐수급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화폐관리 체계 구축
원화 국제화 진전에 대비한 위변조 방지장치 강화
화폐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사연구 확대
<b>8 대국민 소통 및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b>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수준 향상
국제회의체, 국제기구 및 외국중앙은행과의 정책협력·교류강화
<b>9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합리화</b>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리스크 관리 체계의 재정비 및 관련 문화 조성
인력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합리적인 보수·복지제도 확립
패적이고 효율적인 근무인프라 조성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강화

자료 : 한국은행

## 2016년 중기전략

한국은행은 세계경제 및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 유연성 및 경영효율 제고 기대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2016년에 추진할 3년 시계의 중기전략<sup>67)</sup>을 수립하였다. 2016년 중기전략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 수행에 중점을 두어 금융안정 관련 전략 목표 및 전략계획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대국민 경제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직원들의 직무 연관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략계획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 체계의 효과적 정착 및 업무수행 방식의 효율화」를 전략계획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67) 2015년 6월 23일 기준 「중점추진전략」을 「중기전략」으로 변경하였다.

## 2.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도 정책결정은 물가상황 외에 경제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편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3~2015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5%의 물가안정목표를 운영하였다. 소비자물가는 2013년 이후 1% 내외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적용기간 중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을 지속적으로 밑돌았다. 이는 수요 부진이 지속된 측면도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 농산물가격 하락 등 여러 공급충격이 중첩적으로 발생한 데 크게 기인하였다. 또한 2012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동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물가안정목표 하회에 일부 기여하였다.

2015년 12월 16일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는 지난 3년간의 물가안정목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 국내외 최신 연구,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경제 현실에 보다 잘 부합하도록 설정되었다.

2016년 이후 3년간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기준 2.0%로 정해졌다. 이 목표 설정 시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경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물가안정목표 제시방식은 목표범위(target range, 2013~2015년 중 2.5~3.5%) 방식에서 단일목표치(point target)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에서는 경직적 임계치가 없으므로 보다 신축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에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였다.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설명은 기존에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연 2회 이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기적 설명책임 이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pm 0.5\%$ 포인트 초과 또는 하회할 경우 총재의 기자회견담회 등을 통해 초과 원인, 물가 전망경로, 통화정책방향 등을 설

명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8년 말 이전에 경제여건 변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물가안정목표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 나. 기준금리

2015년 중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하여 한국은행은 완화적 정책기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였다.<sup>68)</sup> 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와 가계 부채·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금리 조정 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sup>69)</sup>

상반기 중에는 3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연 1.50%로 인하하였다. 이는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미흡, 수출 부진, 메르스 사태의 충격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점 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6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주체의 심리 및 실물경제 활동에 대한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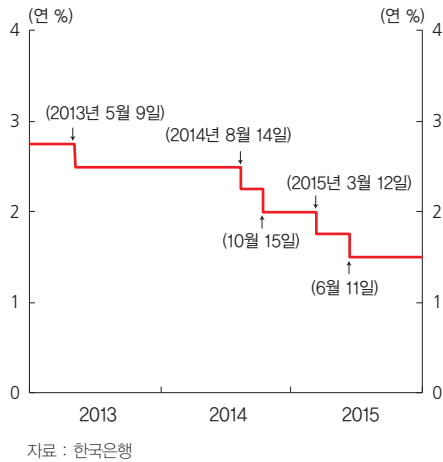
하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연 1.50%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금리동결은 국내경제가 그 동안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메르스 사태의 소멸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완만하나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점도 고려하였다. 또한 하반기 중 금리동결 지속은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이다.

한편 3월과 6월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기관 여수신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주요 시장금리도 연초 대비 상당폭 하락하는 등 금리인하 효과가 금융시장으로 유의하게 파급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금융상황의 완화는 국내경제가 내수 위축에서 회복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정책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가운데 대외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는 완만하였다.

6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에 기술되어 있다.

69) 2015년 중 총 12차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여덟 차례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소수의견이 네 차례(3·4·5·6월) 있었다. 3월에는 정해방 위원과 문우식 위원이 금리동결을 주장하였다. 하성근 위원은 4월에 소폭 인하, 5월에는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제시하였다. 6월에는 문우식 위원이 금리동결을 주장하였다.

〈그림 Ⅲ- 1〉 기준금리



## 다. 여수신제도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여신제도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제도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15년 말 현재 18조 7,296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조 5,672억 원 증가하였다. 세부 내역별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이 15조 2,98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조 5,949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대출 잔액은 3조 4,31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77억 원이 감소하였다.

〈표 Ⅲ- 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sup>1)</sup>

(기말 기준)

(단위 : 10억 원)

	잔 액		증 감 액	
	2014	2015	2014	2015
금융중개지원대출	10,703.4	15,298.3	2,013.3	4,594.9
특별대출 <sup>2)</sup>	3,459.0	3,431.3	2,965.4	-27.7
계	14,162.4	18,729.6	4,978.7	4,567.2

주 :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출한 금액  
자료 : 한국은행

예수금은 2015년 말 현재 136조 2,329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8,162억 원 늘어났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금이 1,696억 원 감소한 반면 외화예금은 9,858억 원 증가하였다.

〈표 Ⅲ- 3〉 한국은행 예수금

(기말 기준)

(단위 : 10억 원)

	잔 액		증 감 액	
	2014	2015	2014	2015
원 화 예 금	59,180.6	59,011.0	6,182.6	-169.6
금 용 기 관	54,478.8	54,820.6	5,459.1	341.8
비 거 주 자 <sup>1)</sup>	4,701.8	4,190.4	723.5	-511.4
외 화 예 금	76,236.1	77,221.9	-8,650.0	985.8
계	135,416.7	136,232.9	-2,467.4	816.2

주 : 1) IMF 등 외국기관의 원화예금

자료 : 한국은행

##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운용

2015년 4월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기여도가 높은 설비투자과 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2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하였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다.

먼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7조 원으로 4조

원 증액하고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sup>70)</sup>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의 대출취급 종료시기를 2016년 8월 말로 1년간 연장하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예외적 조치인 점을 감안하여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대출취급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형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5조 원으로 2조 원 증액하였으며 금융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술력 보유요건을 명확히 하고 우수기술 보유 재창업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였다.<sup>71)</sup> 아울러 신용대출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한도 1조 원)을 폐지하되 여타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우대<sup>72)</sup>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은행의 대출취급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효과 제고 등을 위해 무역금융, 설비투자,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연 1.0%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다.

〈표 III-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 조정<sup>73)</sup> 내역

(단위: 조 원, 연 %, %포인트)

프로그램명	한도 (조정폭)	금리 (조정폭)	지원목적
무역금융지원	1.5	0.75 (△0.25)	수출금융 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0.5	0.5	영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경감
기술형창업지원	5.0 (+2.0)	0.5	우수 기술 보유 창업기업 지원
설비투자지원	7.0 (+4.0)	0.75 (△0.25)	신규 설비투자 촉진
지방중소기업지원	5.9	0.75 (△0.25)	지방중소기업 지원
총 계 <sup>73)</sup>	20.0 (+5.0) <sup>73)</sup>		

주: 1) 2015년 4월 1일 시행 2) 한도 유보분 1천억 원 포함  
3) 설비투자 및 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한도가 6조 원 증액되었으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1조 원이 폐지에 따라 총 5조 원 증가  
자료: 한국은행

또한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원 규모는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특별지원한도 1조 원 중 여유분인 약 5,500억 원으로 하되,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1,000억 원)을 추가로 활용<sup>73)</sup>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 업종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특별지원한도 지원부문인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및 여가업과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이 커졌던 병·의원업과 교육서비스업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특별지원한도의 은행 대출

70) 설비투자 기여도와 산업연관효과가 크지만 중소기업 출업에 따른 정책지원 축소, 신용 경계감으로 인한 회사채 발행 애로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71) 보증대출 및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에 대한 기술력 보유요건(예: 기술등급 '양호' 이상)을 설정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재지원 보증 등을 받는 우수기술 보유 재창업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지원비율을 75%로 우대(일반기업의 경우 통상 50%) 하기로 하였다.  
72)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일반지원부문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2배로 우대하기로 하였다.  
73) 2015년 9월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도 유보분 700억 원을 한국은행의 일부 지역본부에 추가로 지원하였다.

취급 종료 시기를 당초 2015년 8월 말에서 2015년 12월 말로 연장하여 운영하였다.

### 한국은행 대출 등의 담보증권 확대

한국은행은 2015년 11월 안심전환대출 취급 과정<sup>74)</sup>에서 증대된 은행의 자산운용 부담<sup>75)</sup>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은행의 의무보유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여 담보증권 확대조치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지원

2015년 10월 한국은행은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sup>76)</sup>에 의거하여 회사채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3조 4,313억 원) 및 통화안정증권 상대대출(액면금액 3조 4,487억 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500억 원 규모)을 지원하였다.

## 라. 공개시장운영<sup>77)</sup>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Repurchase Agreement) 매매, 통화안정계정 운용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조절하였다. 2015년 11월 중 단기시장금리가 급등하였을 때에는 여유로운 유동성 관리를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 RP매입 증거금률 제도를 개선하여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유동성 조절

2015년 중 통화안정증권은 191조 5천억 원 발행되고 188조 6천억 원 상환되어 연말 발행잔액은 184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 9천억 원 늘어났다. 이와 같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대규모 정상수지 흑자 지속,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위해 연중 경쟁입찰 등을 173회 실시하였으며, 만기별로는 2년물 및 91일물이 각각 70조 원 및 64조 6천억 원 발행되어 전체 발행액의 70.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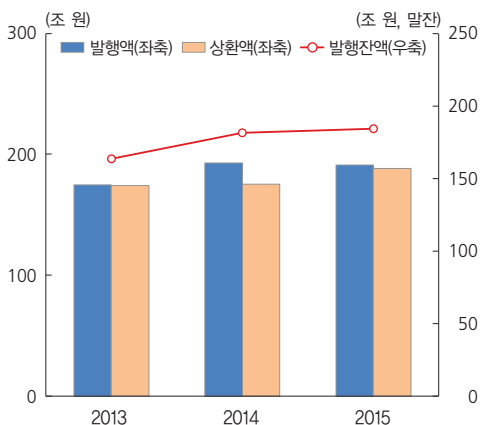
74) 2015년 3월 24일~5월 6일 중 총 31조 7천억 원(32조 7천 만건)이 공급되었다.

75)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동 대출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76) 2013년 7월 일부 업종의 유동성 부족이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동 방안을 마련하였다.

77) 「공개시장조작」 용어는 조작(操作, 기계 따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움직임)의 동음이의어인 조작(造作,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들)으로 혼동될 수 있는 데다 다변화된 수단과 기능을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용어가 지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시장친화적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일반국민과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16년 1월 28일 규정개정을 통해 「공개시장조작」 용어를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III- 2〉 통화안정증권 발행<sup>1)</sup> 및 상환<sup>2)</sup>



주 : 1)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763억 원 (2014년 발행, 2015년 상환)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487억 원(2015년 발행, 2016년 상환) 포함  
자료 : 한국은행

〈표 III- 5〉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단위 : 조 원)

	2014 말 잔액	2015 중			2015 말 잔액
		발행 (A)	상환 (B)	순발행 (A-B)	
통화안정증권	181.5	191.5	188.6	2.9	184.4
9 1 일	15.8	64.6	65.1	-0.6	15.2
182일	8.8	18.8	20.1	-1.4	7.4
364일	3.5	3.4	3.5	0.0	3.4
1 년	30.7	34.8	30.7	4.1	34.8
2 년	122.8	70.0	69.2	0.8	123.6

자료 : 한국은행

RP(순)매각(RP매각에서 RP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 규모는 보유국채의 활용도 제고, 증권대차 실시 등으로 전년의 16조 원에서 17조 4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 증가하였다. 한편 증권대차의 경우 연중 4회에 걸쳐 총 21조 9천억 원의 국채가 차입되어 RP매각에 활용되었다.

〈표 III- 6〉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평잔 기준)

(단위 : 조 원)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RP순매각잔액	16.0	17.4	19.1	20.1	15.1	15.3
R P 매 각	16.1	17.4	19.1	20.1	15.1	15.3
R P 매 입	0.0 <sup>1)</sup>	0.0 <sup>2)</sup>	0.0 <sup>2)</sup>	-	-	-
통안계정예치	12.6	14.0	14.4	15.5	14.0	12.1

주 : 1) 2014년 4월 9일 1일물 RP매입(2조 4,900억 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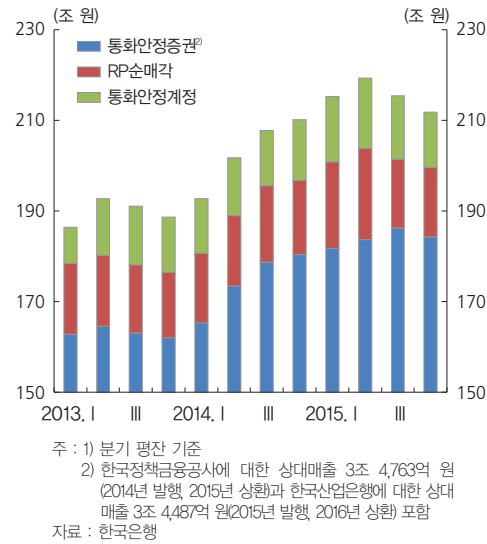
2) 2015년 3월 11일 1일물 RP매입(2조 원) 실시

자료 :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은 은행들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운용 규모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예치금 평잔이 전년의 12조 6천억 원에서 14조 원으로 1조 4천억 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유동성 조절 수단 중 통화안정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행잔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중 85.9%에서 2015년 중에는 85.4%로 축소되었다. 반면 RP(순)매각및 통화안정계정의 비중은 2014년 중 각각 7.9% 및 6.2%에서 2015년 중에는 각각 8.1% 및 6.5%로 소폭 확대되었다.

〈그림 III- 3〉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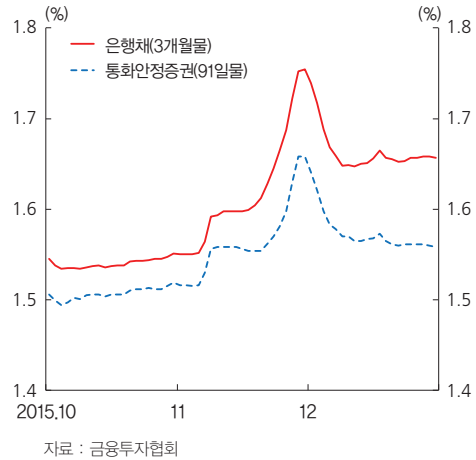
### 단기금융시장 안정 도모

11월 중 은행채(3개월물) 및 통화안정증권(91일물) 금리가 각각 0.20%포인트 및 0.14%포인트 오르는 등 단기시장금리가 짧은 기간 내에 큰 폭 상승하였다. 이는 연말 계절적인 자금 수요<sup>78)</sup>에 더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은행권의 단기자금 수요가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시장금리 급등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등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채(3개월물) 및 통화안정증권(91

일물) 금리는 12월 1~8일 중 각각 0.10%포인트 및 0.09%포인트 하락하는 등 급등세가 진정되었다.

〈그림 III- 4〉 단기시장금리



### 한국은행 RP매입 증거금률 제도 개선

2015년 1월 한국은행의 RP매입 시 적용되는 증거금률<sup>79)</sup> 제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증거금률을 잔존만기별 5개 구간으로 세분하여 잔존만기가 길수록 높아지게 변경하였다. 이는 동일한 폭으로 금리가 변화하더라도 잔존만기가 길수록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변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은행의 RP매입 대상 증권

7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 말에서 당년 12월 말로 단축되어 지자체의 자금인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은행권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79) 증거금률은 RP매입 체결 전 영업일 현재 대상증권의 시장가격을 신용공여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을 의미한다.

중 최하 신용등급을 설정함으로써 대상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표 III-7〉 한국은행 RP매입 증거금률 제도 개선

(단위 : %)

대상증권		잔존만기					
		1년이하	1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	
국채 등 <sup>1)</sup>	변경 전	105					
	변경 후	102	103	104	105	107	
한국주택 금융공사 발행 주택 저당증권 (MBS)	변경 전	AAA	106			107	109
		AAA미만	107			108	110
	변경 후	AAA	104	105	106	107	109
		AAA미만 ~AA이상	105	106	107	108	110

주 : 1)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자료 : 한국은행

##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을 꾸준히 개선하였다. 2016년부터는 통화정책방향 의결 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통화신용정책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수록하고 매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요약·게재하는 등 정책결정 배경과 고려사항을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 보고서에 최신 경제전망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 발간시기를 3월 말과 9월 말에서 4월 말과 10월 말로 조정하였다. 이밖에도 3월에는 금융시장 참가자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문회의」를 신설하여 매분기 운영하는 등 통화정책 수행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 채널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국회,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등 각 분야 경제주체들과 활발히 소통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임직원들은 연중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 출석하여 한국은행의 정책 및 업무 수행과 금융·경제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다. 또한 경제동향간담회(11회), 금융협의회(4회), 기업CEO 간담회,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비은행 금융협회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경제 현안과 통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밖에 각종 국제콘퍼런스 등에도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연설 및 강연을 실시하였다.

〈표 III-8〉 총재 참석 간담회 등 현황

간담회·회의 명칭	주요 참석자	개최주기 <sup>1)</sup>	최초개최
경제동향간담회	경제연구원(소)장, 경제단체 임원 및 대학교수	월	2002년 4월
금융협의회	시중은행장	분기	2002년 5월
투자은행 전문가와의 간담회	투자은행 전문가	분기	2010년 5월
업계 CEO와의 간담회	대기업 및 중소기업 CEO	분기	2010년 9월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비은행 금융협회장	반기	2013년 7월
비은행금융기관 CEO 협의회	비은행금융기관 CEO	연	2013년 3월

주 : 1) 개최주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매분기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경제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수, 기업 임직원, 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29회의 강연 및 연설,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11월 19일 칠레중앙은행에서 개최된 「Monetary Policy through Asset Markets」, 11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연준에서 개최된 「Asia Economic Policy Conference」, 12월 4일 호주중앙은행에서 개최된 「The 5th Annual Meeting of the Asian Central Banks Watchers Group」 등에 토론 패널로 참가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임원 및 국제금융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교환하는 등 해외에서의 활동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세미나 사회 및 참석 등을 하여 학계,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표 Ⅲ- 9〉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활동

분 류	주요 참석자	개최주기
기자간담회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	분기
학회 활동 및 강연	경제연구원(소)장 및 대학교수, 대학생	수시
국외 세미나	중앙은행 임원 및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	수시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 경제단체 임원 및 중소기업 CEO	수시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Ⅲ- 5〉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2015년 8월 13일)



자료 : 한국은행

이밖에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화학공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둘러보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충북본부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편 통화정책 수행 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각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언론, 정부·국회, 학계, 시장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수행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업무 수행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림 III- 6〉

금융통화위원 산업 현장 방문  
(2015년 7월 15일, 청주)



자료 : 한국은행

### 3. 금융안정업무

#### 가. 금융안정 상황 분석·점검

금융안정 책무<sup>80)</sup>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하여 금융안정 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안정 관련 조사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 상황 및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공표<sup>81)</sup>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6월에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거시 충격이 가계부채 부실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 하락 현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시장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비은

행 부문의 외화자산 운용 확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12월에는 인구 고령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만성적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외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신흥시장국 경제불안이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이외에도 2015년부터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연 2회 개최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종합 점검체계를 구축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금융기관 경영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관련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9월 회의에서는 대외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취약 가계 및 기업 현황, 증권사의 위험채권 운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잠재리스크 포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 11월에 설치된 「가계부채 점검반」의 운영을 통하여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분석 기반 확충을 위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AMP, 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sup>82)</sup>을 활용하여 미 연준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가계부채

80)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

81)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은행법〕 제96조. 일부 기초 통계의 편제시기 조정, 여타 보고서 발간 시기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시기를 종전 4월 말, 10월 말에서 6월 말, 12월 말로 변경하였다.

82) 2012년 7월 개발되었는데,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 있어 핵심 사항인 시스템적 리스크의 측정과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macro stress test)를 단일 체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모형이다.

등 주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특히 12월에는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예금취급기관에 한정되었던 SAMP의 분석 대상 범위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분석 역량도 강화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스트레스 테스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양 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정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금융안정 관련 조사연구 강화

거시건전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에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을 측정하고 이를 감안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밖에 글로벌 금융규제의 영향, 가계부채,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 11건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거시건전성정책의 국경 간 파급효과와 관련된 해외 중앙은행 연구그룹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 국내에 도입 예정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sup>83)</sup> 규제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 금융기관 검사업무의 유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현장정보 수집 및 시스템적 리스크의 선제적 포착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기존의 종합검사 위주가 아닌 부문검사 위주로 공동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수검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다. 특정 부문에 대하여 여러 은행을 동시에 점검하는 부문검사를 연 5회로 확대한 반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는 시중 및 지방 은행에 대해 각각 연 1회로 축소하였다.

은행의 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취급상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부실우려기업 현황과 은행의 구조조정 추진상황, 자영업자대출의 취약성 및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급증, 외은지점의 국내 자금운용 상황, 파생상품거래 동향 등과 관련한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표 III-10〉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단위 : 회)

	2013	2014	2015
종합 검사	7	4	2
부문 검사	1	3	5

자료 : 한국은행

83)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이란 부실화되거나 도산 시 국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을 의미한다. 이는 2012년 10월 바젤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서 금융당국은 은행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평가부문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금융안정 저해요인의 조기 포착,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 등을 위해 금융검사실 내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면담, 전화인터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금융기관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 요구자료를 대폭 축소하고 경영상황에 대한 수검기관의 사전브리핑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수검기관이 검사결과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기관의 이사회 및 관련부서 앞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피드백 과정도 강화하였다.<sup>84)</sup>

한편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 수집 및 감독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주관하는 스탠다드 차타드 및 HSBC 은행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주관하는 씨티은행 감독자협의회에도 신규로 가입하였다.

##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협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은 국제기구의 금융 규제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sup>85)</sup>하는 한편 동 규제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지원<sup>86)</sup>하고 있다. 2015년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규제개혁 논의에 참여하여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 은행감독실무그룹(EMEAP Working Group on Banking Supervision) 의장기관 및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내 금융안정 논의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2016년부터 실시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의 바람직한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 규제의 원활한 국내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정 유관기관과의 정책협력 및 정보공유에도 힘썼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협약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5년 6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증대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sup>87)</sup>하였다. 또한 「거시경제금융회의<sup>88)</sup>」에 참여하여 국내외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의 위협요인 등 금융안정 상황

8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의 금융검사업무 개선 현황」 보도자료(2015년 9월 2일)에 정리되어 있다.

85) 한국은행은 FSB의 3개 실무그룹, BCBS의 16개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2016년 1월 시장리스크 최종 규제안을 확정하였고 2017년 1월 말까지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레버리지비율, 자본하한 설정 등의 최종 규제안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86) 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시 한국은행의 참여(사전협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87)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04년 설립 지원을 위해 3,100억 원, 2012년 고정금리부 가계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1,350억 원, 2015년 가계부채 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00억 원 등 총 6,450억 원을 출자하였다.

88)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정보공유 양해각서(MOU)<sup>89)</sup>」에 따라 금융정보가 유관기관 간에 활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sup>90)</sup>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은 정부와 공동으로 외환파생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정책 수행 여건에 대한 점검 강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그리스 채무협상 난항, 중국 경기 둔화,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리스크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 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신흥시장국 금융불안이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 대외부채 변동과 구조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등 정책의 원활한 운용

기존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를 개선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 제도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 도입되었으며, 제도 도입 시에는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sup>91)</sup>를 대상으로 계약만기별 0.02%~0.2%의 부과요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됨에 따라 금융업권 간 형평성 문제와 차입만기의 인위적 조정에 따른 부담금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정부는 은행 이외에 증권사, 보험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부과대상에 포함<sup>92)</sup>시키는 한편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단일요율(0.1%)<sup>93)</sup>을 적용하도록 부과요율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89)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중복 보고 등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 9월에 체결되었다. 2014년 1월에는 기관 간 정보공유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었다.

90) 「2010년도 연차보고서」까지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나 「2011년도 연차보고서」부터는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과 '외국환업무' 부문에 포함하여 수록하였다.

91) 비예금성외화부채는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 경과성 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92)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이 1천 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였다.

93) 장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할인요율(만기 2년 초과 0.02%포인트, 3년 초과 0.03%포인트, 4년 초과 0.04%포인트 할인)을 적용하였다.

## 신외환전산망 구축 등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한편 금융시장의 연계성 심화, 대외개방도 확대에 따른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외환전산망에 반영하고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외환전산망을 재구축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1월부터 「신외환전산망」(FEIS 2.0, Foreign Exchange Information System 2.0)을 가동하였다.

신외환전산망은 첨단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손쉽게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외환거래 정보 외에도 국제금융시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해복구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 다.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여건 변화, 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통화금융대책반」<sup>94)</sup> 운영 등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예상되었던 3월, 그리스 사태가 악화되었던 6월과 7월,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가운데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던 8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증대되었던 9월과 12월에 각각 「통화금융대책반」을 운영하였다. 특히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12월에는 FOMC 회의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통화금융대책반」을 개최하고 국외사무소와 연계하여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였다.

94) 부총재, 통화정책·국제담당 부총재보,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 4. 발권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화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 행사 등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 식별 요령 홍보, 위조방지 장치 개선 등 다양한 위조지폐 유통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손상된 화폐를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깨끗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화폐발행 및 유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 가. 화폐 발행

#### 화폐수요에 대응

2015년 중 한국은행은 35조 9,282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24조 1,205억 원을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말 현재 화폐 발행잔액은 전년 말보다 15.8% 증가한 86조 6,314억 원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오만원권이 전년 말 대비 23.7% 증가하였으나 만원권은 4.0% 감소하였다.

〈표 III-11〉 화폐 발행·환수 및 발행잔액<sup>1)</sup>

(단위 : 10억 원, %)

	2015 중			2015 말 발행잔액
	발행 (A)	환수 (B)	순발행 (A-B)	
은행권	35,825.0	24,106.9	11,718.2	84,362.0 (16.1)
오만원권	20,570.3	8,250.1	12,320.2	64,323.6 (23.7)
만원권	14,388.5	15,105.0	-716.4	17,229.9 (-4.0)
오천원권	412.4	355.0	57.4	1,307.1 (4.6)
천원권 <sup>2)</sup>	453.9	396.8	57.1	1,501.4 (4.0)
주화 <sup>3)</sup>	103.2	13.6	89.5	2,269.4 (4.1)
계	35,928.2	24,120.5	11,807.7	86,631.4 (15.8)

주 : 1) ( )내는 전년 말 대비 증감률(%) 2) 구권 포함

3) 기념주화 제외

자료 : 한국은행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한 제조화폐는 13억 6,013만 장으로 전년에 비해 15.2% 증가하였다. 은행권이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10.4% 증가하였고 주화는 오백원화 및 백원화를 중심으로 21.3% 증가하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조 5,300억 원으로 은행권과 주화 모두 상당폭 늘어나면서 전년에 비해 55.6% 증가하였다.

〈표 III-12〉 화폐 제조규모<sup>1)</sup>

	장 수(100만 장)		금액(10억 원)	
	2014	2015	2014	2015
은행권	670.0 (15.5)	740.0 (10.4)	9,950.0 (8.2)	15,460.0 (55.4)
주화 <sup>2)</sup>	511.1 (-25.9)	620.1 (21.3)	29.9 (-47.2)	70.0 (134.5)
계	1,181.1 (-7.0)	1,360.1 (15.2)	9,979.9 (7.8)	15,530.0 (55.6)









주 : 1)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2) 기념주화 제외

자료 : 한국은행

## 기념주화 7종 발행

2015년 중 한국은행은 4회에 걸쳐 총 7종의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이 가운데 2회는 국제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해당 조직위원회가 특별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에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함에 따라 발행되었다. 「제7차 세계물포럼<sup>95)</sup>」 기념주화는 3종재질화<sup>96)</sup> 1종으로 3월 25일에 발행되었으며,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sup>97)</sup>」 기념주화는 황동화 1종으로 9월 16일에 발행되었다. 두 기념주화 모두 조직위원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전량 인수하여 일반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고자 「광복 70년」 기념주화를 8월 3일에 발행하였다. 은화 2종과 황동화 1종 등 총 3종으로 이를 나란히 배치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파노라마 구도를 기념주화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문화유산」 시리즈의 기념주화를 12월 7일 발행하였다. 은화 2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 중 ‘경주역사유적지구’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소재로 하였다.

〈그림 III- 7〉 2015년도 발행 기념주화

명칭	도안	소재·규격	
제7차 세계물포럼		· 3종재질(구리, 아연, 니켈) · 지름 28.2mm · 무게 10.1g	
광복 70년		· 은 99.9% · 지름 40mm · 무게 31.1g	
		· 은 99.9% · 지름 33mm · 무게 15.55g	
		· 구리 65.0%, 아연 35.0% · 지름 33mm · 무게 16.0g	
	〈앞면 횡렬 배치도〉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 구리 65.0%, 아연 35.0% · 지름 33mm · 무게 16.0g	
한국의 문화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		· 은 99.9% · 지름 33mm · 무게 15.55g	
한국의 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 은 99.9% · 지름 33mm · 무게 15.55g	

자료 : 한국은행

95) 3년마다 열리는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회의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등에서 개최되었다.

96) 3종재질화는 주화를 3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 상이한 재질의 금속재료를 사용하는 제조방법으로 외부는 구리 75%, 아연 21%, 니켈 4%, 내부는 구리 75%, 니켈 25%, 중심은 구리 65%, 아연 35%를 사용하였다.

97)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4년마다 열리는 국제종합경기대회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경북 문경시 등 8개 시·군에서 개최되었다.

## 나. 화폐 유통

### 위조지폐 유통 방지 등 홍보 강화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유통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버스나 지하철 등을 활용한 광고와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알기 쉬운 위조지폐 식별 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경찰서, 재래시장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위조지폐 제작·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르고 깨끗한 화폐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화폐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응모된 동영상 작품수가 전년(99편)보다 크게 늘어난 144편에

이르렀으며, 이 중 12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아울러, 위조지폐 발견에 크게 공헌한 시민과 경찰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였다.

2015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3,031장으로 전년 대비 876장 줄었다. 이는 위조지폐 유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 증대에 기인하였다. 다만 오만원권 위조지폐 수량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2,040장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1월 중 대량(2,012장)의 위조지폐가 한꺼번에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유통은행권 1백만 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7장으로 전년보다 0.2장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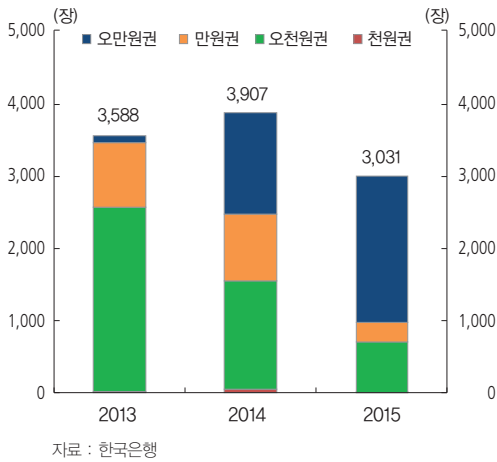
〈그림 III- 8〉

화폐 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15년 11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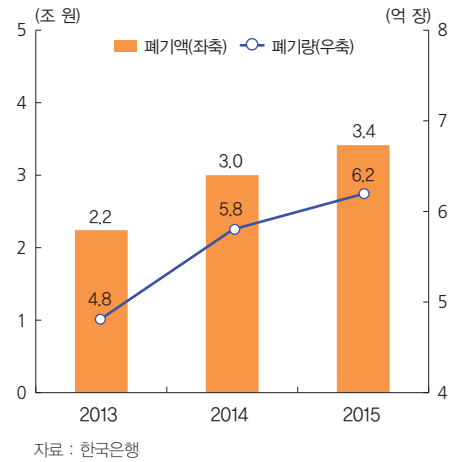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III-9〉 위조지폐 발견장수



〈그림 III-10〉 화폐 폐기규모



###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 제고

한국은행은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5년 9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화폐수급거래 대상지역을 서울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회수한 화폐 중 재사용하기 부적합한 손상화폐를 폐기함으로써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2015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 3,955억 원(6억 2,069만 장)으로 전년보다 13.8%(장수 기준 7.9%) 증가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3조 3,939억 원(6억 317만 장)으로 13.8%(장수 기준 8.0%) 증가하였으며, 주화는 15억 9,826만 원(1,751만 장)으로 9.1%(장수 기준 5.5%) 증가하였다. 한편 일반국민의 과도한 신권 선호를 완화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광고를 실시하였다.

### 주화 유통 원활화

한국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2만여 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2억 6,231만 개(362억 원)의 주화를 회수하였는데 이는 2014년 주화 발행량의 34.7%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전 모금 사업에 소형 저금통 39만 개를 지원한 결과 약 8억 원의 동전을 모금하여 시중에 다시 유통시킴으로써 주화의 유통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였다.

### 다. 국내외 협력

한국은행은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위조지폐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검찰청으로부터 수사 또는 재판이 종료된 위조 화폐를 인도받아 관리하면서 위조지폐의 제작 수준이나 방식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한편 매 2년마다 개최되는 「통화 콘퍼런스」(Currency Conference), 「태평양연안국 은행권 콘퍼런스」(Pacific Rim Banknote Conference) 등 국제 콘퍼런스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중앙은행 및 조폐기관과의 업무연락체계를 공고히 하고 최신 은행권 위조방지장치 개발동향, 은행권 및 주화에 관한 주요 이슈 등도 공유하였다.

## 5. 지급결제업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 당좌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금융기관 간 거래 자금이체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를 감시<sup>98)</sup>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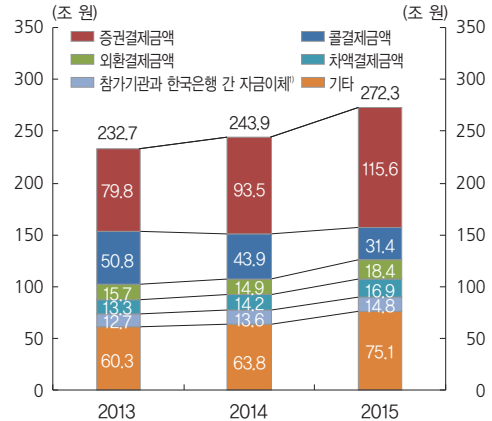
### 가. 한은금융망 운영

#### 증권결제자금 이체 증가세 지속

2015년 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이체는 일평균 1만 4,289건 및 272조 3천억 원으로 건수는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금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종류별로는 금융투자회사의 콜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단기자금 시장 개편<sup>99)</sup> 등의 영향으로 콜 결제자금은 감소한 반면 기관 간 RP를 포함한 증권결제자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관 간 RP거래 증가는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 금융투자회사 뿐 아니라 은행들도 자금조달 및 운용 수단으로 RP거래를 확

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00)</sup> 이에 따라 전체 원화자금 결제 규모 대비 증권결제 비중은 2014년 38.3%에서 42.5%로 확대되었다.

〈그림 Ⅲ-11〉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규모 (일평균)



주 : 1)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자료 : 한국은행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 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게 일중 일시결제 부족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 중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82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구성 면에서는 일중

98)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99) 단기자금시장의 콜시장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한국은행 등이 추진해 온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콜 차입 한도가 2014년 중 자기자본의 25%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2015년 3월 부터는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회사의 콜시장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100) RP금리는 무담보 콜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거나 우리나라의 경우 콜거래의 편리성, 담보증권 관리 등에 따른 추가비용, 거래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그간 RP금리가 콜금리보다 높았다. 그러나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시행 이후 RP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RP-콜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됨에 따라 은행 간 자금 대차 시에도 RP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당좌대출<sup>101)</sup> 이용금액이 일부 은행 간 합병으로 인한 자금관리체계 통합, 은행들의 지속적인 일중 유동성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4% 감소하였다. 반면 일중RP<sup>102)</sup> 이용금액은 전년보다 8.4% 증가한 일평균 2조 6,137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III-13〉 일중 결제유동성 공급규모 (일평균)

	(단위 : 10억 원, %)			
	2013	2014	2015	증감률 <sup>2)</sup>
일중당좌대출 <sup>1)</sup>	629.1	495.6	394.5	-20.4
일 중 R P	2,257.5	2,411.8	2,613.7	8.4
계	2,886.6	2,907.4	3,008.2	3.5

주 :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결제전용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 당좌대출 기준  
 2) 2014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시장인프라 평가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인프라<sup>103)</sup>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sup>104)</sup>(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미

비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5년 중에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청산소(CCP)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과 증권결제시스템(SSS, Securities Settlements System)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sup>105)</sup> 그 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였으나 리스크 관리 및 자금결제 등의 측면에서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담보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채권 상환거래에 대한 증권대금동시결제 확대를 추진할 것 등을 각각 권고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에 대해 전산침해 등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위안화 청산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2015년 4월 한국은행은 국내은행 간 위안화 이체 등을 처리하는 위안화 청산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청산시스템 이용기관의 위안화 유동성 부족으로 대부분의 결제가 청산은행이 제공한 일중당좌대출을 활용하여

101) 은행들의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102)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따라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에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결제 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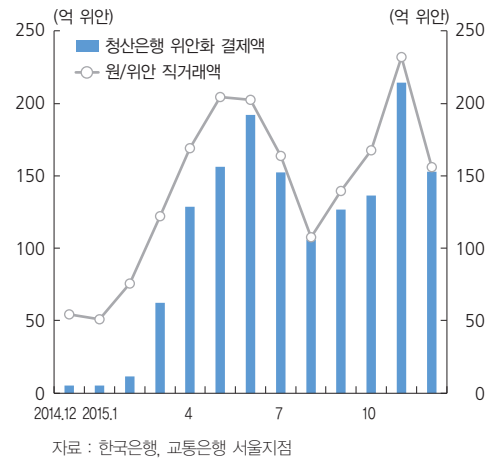
103)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 시스템,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로 구성된다.

104)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가 국제증권감독기구(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공동으로 기존의 지급결제에 관한 국제기준들을 대폭 강화하여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새로운 국제기준이다.

105) 금번 평가부터는 CCP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 증거금 체계 등을 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협의회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루어짐에 따라 청산은행은 관련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산시스템 이용기관과 미이용기관 간 결제 시 중국과 홍콩을 경유하는 다단계 프로세스<sup>106)</sup>를 거침에 따라 외환결제 리스크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II-12〉 원·위안 직거래 및 청산은행 위안화 결제규모 (일평균)



이에 한국은행은 5월 청산은행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청산시스템 운영 현황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국내 금융기관의 청산시스템 이용이 확대되고 위안화 예치금이 증가하면서 일중당좌대출 의존도가 상당부분 완화<sup>107)</sup>되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국내은행 2개와 금융투자회사 3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고 금융투자회사 1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앞으로 검사를 요구하였다.<sup>108)</sup>

검사결과 국내은행은 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중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나,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 및 업무지속계획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와 관련하여 신용약정(credit line) 체결내용, 결제유동성 부족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내부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에 신속히 보고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적격증권 매매 시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RP 방식의 일중 결제유동성 이용 현황을 점검하여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간대 증권결제대금 집중 현상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06) 청산은행 계좌 이용기관과 미이용기관 간 위안화 자금이체는 미이용기관의 환거래은행(홍콩 소재 외국계 은행 등) ⇨ 중국은행 홍콩지점(홍콩 내 위안화 청산은행) ⇨ 중국인민은행(CNAPS시스템) ⇨ 교통은행(상해 본점) ⇨ 교통은행 서울지점(한국 내 위안화 청산은행) 간의 여러 단계를 거쳐 실행된다.

107) 청산은행 이용 금융기관의 결제액 대비 일중당좌대일 사용액 비중(일평균 기준)은 2015년 1~5월 중 59.8%에서 동년 6~12월 중 28.2%로 크게 감소되었다.

108)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은행은 그 결과를 통보받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 개선

한국은행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한은금용망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직접 송금할 수 있는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를 통해 고객자금을 처리할 경우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과는 달리 참가기관 간 결제를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고 10억 원 이상의 거액자금도 한번에 이체된다.<sup>10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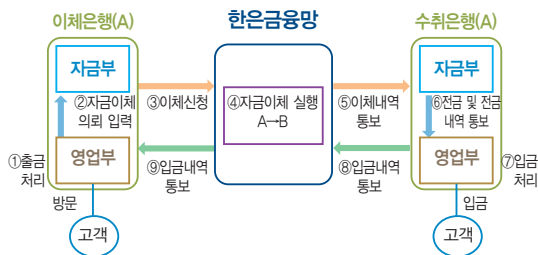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는 고객의 자금이체 지시를 처리하는 이체은행과 이를 수취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수취은행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 같은 수작업 처리방식은 담당자 오류 등으로 인한 운영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함께 이체에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15년 중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12월부터 가동하였다. 개편된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시스템은 업무처리 전 과정에 일관처리체계를 도입함으

로써 이체은행 영업점 담당자가 고객의 의뢰 내역을 입력하면 수취은행 영업점의 수취인 계좌 앞 입금까지 모든 절차가 자동적으로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체고객의 자금이 수취고객의 계좌에 최종 입금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이와 같은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시스템 개편으로 운영리스크가 감소하고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거액자금이체 고객의 편의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I-13〉 개편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업무처리 절차 (전과정 자동화 일관처리)



자료 : 한국은행

### 일중 RP지원 적격채권에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채권 포함

RP 방식의 일중 결제유동성 지원 대상 적격채권에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채권<sup>110)</sup>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동 채권의 거래 활성화 및

109)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은 차액결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1회 자금이체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거액자금 이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단위로 분할 처리되고 있다. 타행환공동망도 같은 사유로 1회 자금이체 한도가 5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거액자금 이체가 5억 원 단위로 분할 처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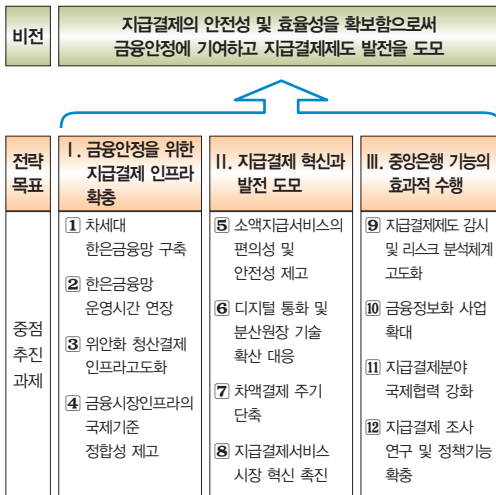
110)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채권 혹은 스트립(STRIPS,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이란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할인채권(zero coupon bond)으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014년 12월 「2015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은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단기채 수급기반을 확충하고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협의를 통하여 2015년 3월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채권이 한국거래소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상장되었다.

매매시 대금결제의 조기화 등 원활한 결제를 도모하였다.

###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수립

혁신적 지급서비스가 확산되고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규제체계가 형성되는 등 지급결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12월 수립하였다. 동 전략은 지급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비전 하에 추진되었으며, 3대 전략목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할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그림 III-14)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 개요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을 토대로 유관 정책당국 및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지급결제 정책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발전을 지원하는 촉진자(catalyst)로서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 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지원 준비

정부는 IT·금융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에 참가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2015년 12월 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한 데 이어 앞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마.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동아시아·대양주지역 중앙은행 협력체(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Pacific Central Banks), 동남아시아 중앙은행기구(SEACEN, 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등 각종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정례회의, 실무그룹 등 다양한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PFMI 이행 상황 점검 상설그룹, 사이버복원력 워킹그룹 등 주요국 중심의 실무 협의체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요 이슈에 적시 대응하였다. 또한 ASEAN+3 증권결제인프라(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연계, 아시아 역내 소액결제망 허브를 통한 다자 간 소액결제 네트워크 연계 논의에 대응하고 있다.

이 밖 에 도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감시위원회 및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감시포럼<sup>111)</sup> 활동을 통해 국가 간에 다양한 통화를 결제하거나 여러 국가에 걸쳐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협조감시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정책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담당직원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11) 국제금융거래 관련 전문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WIFT의 주 감시자인 벨기에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G10 이외 국가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WIFT에 대한 감시정책 수립 시 이들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CPMI 회원국들로 구성된 SWIFT 감시포럼을 신설하였다.

##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및 역내 금융협력 강화

#### 가. 외국환업무

한국은행은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위기대비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외환정보 집중기관으로서 외환전산망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난항, 중국 금융·경제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비상대응계획을 재정비하고,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장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흔들림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2015년 7월 한국은행은 유사시 한·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위안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중 통화스왑자금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sup>112)</sup>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향후 국내 위안화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경우 위안화 자금 수요에 직접 대응하여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공시효과를 통해 투자심리의 안정에도 기여함으로써 시장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한·중 통화스왑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위안화 금융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요 금융시장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양국 간 무역결제에서 원화 및 위안화 사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스왑자금을 꾸준히 지원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2015년 ASEAN+3 통화·금융 협력 분야 공동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다자간 스왑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행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개정된 CMIM 협정문<sup>113)</sup>에 따라 세부 운용

112)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 담보 대출을 적용하여 공급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최저 응찰금리 이상에서 복수가격 방식(필요 시 단일가격 방식)을 적용한다.

113) CMIM 스왑규모 2배 확대(1,200억 달러→2,400억 달러), 위기에방 프로그램(Precautionary Line) 도입, IMF 대출과 연계 없이 지원 가능한 자금 인출비율 확대(20%→30%)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4년 7월 발효되었다.

지침<sup>114)</sup>을 보완하고 자금지원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자금 수혜 적격성 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회원국 중앙은행과의 협업작업을 통해 CMIM 연구과제인 ‘트로이카(EC, ECB, IMF)의 유럽 구제금융 사례’를 연구하여 지역 금융안전망의 발전방안 논의에 적극 활용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한·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운용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역내 무역결제에서의 자금 통화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노력

지난 2014년 12월 1일 개설된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시장조성자<sup>115)</sup> 제도 운영 등에 힘입어 2015년 중 일평균 거래량이 약 24억 달러로 같은 기간 원/달러 일평균 거래량의 28%에 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직거래 환율도 원/달러 및 위안/달러 환율의 재정환율과 동조화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존의 원/달러-위안/달러 2단계 거래가 원/위안 간 직거래로 바뀌면서 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안화 무역결제가 확대되면서 대중국 무역의 위안

화 결제 비중<sup>116)</sup>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 외환거래분야 규제완화 도모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 및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외환거래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규제 완화도 추진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외환제도 개혁 T/F」에 적극 참여하여 환전업무의 관세청 이관, 상계·제3자 지급 등 비전형적 거래의 신고범위 최소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의 원칙적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선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14) 금융위기 시 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회원국들의 자금요청 및 승인 절차, 스왑라인 가동 시 자금인출 방식, 만기연장 절차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15) 12개 시장조성자 은행들은 재정환율 스프레드를 중심으로 매입/매도 호가를 장중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6)

대중국 교역 중 위안화 결제 비중

(단위: 통관 기준, %)

	2014		2015		
	IV	I	II	III	IV
수출	1.7	1.9	2.9	3.4	4.3
수입	1.0	1.3	2.9	3.3	3.5

## 나. 외화자산 운용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라는 기본원칙 하에 운용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가치보전을 위해 원리금의 회수불능 등 신용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보유액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외환보유액 증가

2015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44억 달러 증가한 3,6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외환보유액의 규모 면에서 세계 7위<sup>117)</sup> 수준이며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sup>118)</sup> 보유자산 구성을 보면 외환(유가증권, 예치금)은 49억 달러 증가한 반면 IMF포지션과 SDR은 각각 5억 1천만 달러와 4천만 달러 감소하였다.

〈표 III-14〉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2013	2014(A)	2015(B)	증감(B-A)
외환보유액	346,460	363,593	367,961	4,368
외환	335,647	353,600	358,514	4,914
IMF포지션	2,528	1,917	1,412	-505
금	4,794	4,795	4,795	0
SDR	3,490	3,280	3,241	-39

자료 : 한국은행

### 외화자산의 유동성과 안전성 강화

2015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선진국 금융시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ECB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신흥시장국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큰 폭 하락, 자본 유출 등으로 통화 가치 및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유동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유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2015년 말 현재 자산별 구성을 보면 유동성 자산이 4.5%, 수익성자산이 80.0%, 위탁자산이 15.5%를 차지하고 있다.<sup>119)</sup>

통화구성 면에서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미 달러화 표시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였다.

117) 2015년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는 중국 3조 3,304억 달러, 일본 1조 2,332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6,355억 달러(2015년 11월 말 기준), 스위스 6,025억 달러, 대만 4,260억 달러, 러시아 3,684억 달러, 한국 3,680억 달러 순이다.

118) IMF는 2015년 5월 우리나라와 연례협의 후 공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향후 추가적인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동 평가에서는 단기외채가 크게 준 점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08년 말 74.0%에서 2015년 9월 말 32.5%로 크게 낮아졌다.

11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1〉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에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말 현재 한국은행 보유 외화 자산 중 미국 달러화 비중은 66.6%<sup>120)</sup>로 2014년 말에 비해 4.1%포인트 증가하였다.

상품별로는 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등에 대응하여 회사채 비중을 축소하였다. 한편 정부채 비중이 작아지고 예치금 비중은 커졌는데 이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의 결제 시차 등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및 주식의 비중은 전년 말에 비해 소폭 확대되었다.

(표 III-15) 외화자산<sup>1)</sup> 구성 내역  
(기말 기준) (단위 : %, %포인트)

	2013	2014(A)	2015(B)	증감(B-A)
<b>1. 자산별</b>				
유 동 성 자 산	3.1	4.3	4.5	0.2
수 익 성 자 산	81.6	80.5	80.0	-0.5
위 탁 자 산	15.3	15.2	15.5	0.3
<b>2. 통화별</b>				
미 달 러 화	58.3	62.5	66.6	4.1
기 타 통 화	41.7	37.5	33.4	-4.1
<b>3. 상품별</b>				
예 치 금	4.4	3.8	5.9	2.1
유 가 증 권				
정 부 채	36.8	37.1	35.7	-1.4
정 부 기 관 채	22.0	22.5	22.7	0.2
회 사 채	15.9	17.5	16.4	-1.1
자 산 유 동 화 채	14.8	13.0	13.1	0.1
주 식	6.1	6.2	6.3	0.1
계	100.0	100.0	100.0	-

주 : 1) (표 III-14)의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중 외환부분  
자료 : 한국은행

### 외화자산 운용체계 정비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화자산 운용체계를 정비하였다. 연간 외화자산 국외운용계획 수립 등 외화자산 운용의 중요 사항에 관한 내부 심의기구인 외화자산리스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유사시 국내 외환시장에 대해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 기능을 수행한다는 외환보유액의 정책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외화자산 운용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자산배분 과정에 반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외화자산의 최대 손실 규모와 유동화 가능 규모 및 유동화 기간 등을 점검한 결과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산은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자운용 과정에서는 신용부도스왑(CDS) 거래를 도입해 신용위험에 대한 헤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위탁자산 내에 별도의 펀드를 신설하여 시장여건 및 자산별 수익률 전망에 따라 한국은행이 자산별 투자 비중을 직접 결정하고 외부 자산운용사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였다. 특히 개별 국가의 리스크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장변수 전망모형 및 자산배분모형을 개선하

120) IMF가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2015년 9월 말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액 중 미국 달러화 비중은 64.0%이다.

고, 수익률곡선과 글로벌 주가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외화자산 운용지원 부문에서는 자금결제 업무의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담보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완료·가동하는 등 외화 자산 운용 및 리스크관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외화자산 운용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 외화자산 운용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5월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외화자산운용 자문프로그

램<sup>121)</sup>을 통해 글로벌 자산배분모형과 통화구성 설정방식 등 외화자산 운용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8월에는 스위스중앙은행(SNB)이 개최한 외환보유액 운용에 관한 양자 간 워크숍에 참석하여 자산배분, 리스크 관리, 주식 투자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운용 경험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세계은행 고위급 포럼, BIS-중국인민은행 공동 주최 콘퍼런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역내 포럼 등<sup>122)</sup>에 참석하여 당행의 의견 및 경험을 발표하는 등 외환보유액 운용에 관한 국제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림 III-15)

BOK-SNB 외환보유액 운용 워크숍  
(2015년 8월 31일~9월 1일, 스위스 취리히)



자료 : 한국은행

121) 한국은행은 세계은행의 외화자산운용 자문프로그램인 RAMP(Reserves Advisory and Management Program)에 참여하고 있다.

122) World Bank Executive Forum for Policy Makers and Senior Officials(2015년 4월), BIS-PBOC High-level Reserve Management Conference(9월), ADB Regional Forum on Investment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Reserves(9월) 등

##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

### 외화자산 구분 운용

한국은행은 보유 외화자산을 그 운용목적에 따라 유동성자산, 수익성자산 및 위탁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유동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기성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즉 유동성자산이란 한국은행 보유 외환 보유액의 자산 구분상의 명칭일 뿐, 해당자산만이 유동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익성자산과 위탁자산도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유동성자산과 함께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수익성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의 획득을 운용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을 목적으로 설정한 자산으로서 국제기구, 세계유수의 자산운용사, 한국투자공사(KIC)<sup>123)</sup> 등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 투자대상 유가증권

유동성자산은 일상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대비한 자산이므로, 매각 시 거래비용이 거의 없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미국 단기국채, 예치금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수익성자산은 유동성 및 안전성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주요 선진국 통화로 발행된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의 채권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부기관채와 MBS 등 자산유동화채의 유동성은 국채와 비슷한 수준이며, 회사채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금융기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이들 외화자산을 즉시 현금화 하는 것이 용이하다. 한편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만기는 대체로 10년 이하이며 수익성자산은 장·단기 증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위탁자산은 그 운용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투자대상 금융상품에는 우량 채권 뿐만 아니라 주식도 포함되는데 보유주식 대부분이 선진국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필요시 현금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123) 2006년에 처음으로 위탁운용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말 현재 원금 기준으로 200억 달러를 위탁하고 있다.

## 다. 국제협력업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및 경제 환경 급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다자 간 및 양자 간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G20, IMF, BIS 등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 회의를 통한 국제금융계와의 정책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제 공익을 제고하였으며, ASEAN+3, SEACEN, EMEAP 등 아시아 역내 협의체의 논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켰다. 역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협력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운용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정책수행 경험과 관련한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계은행과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 및 협력 채널을 확대하였다.

###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차원의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

재 회의(6회)에 참석하여 미국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고조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이 합의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적극적인 이행 및 G20 차원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IMF·세계은행 회의(2회) 및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7회)에서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및 대응방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등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금융계 차원의 정책공조에 반영토록 노력하였다.

〈표 III-16〉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15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2월 이스탄불, 4월 워싱턴 D.C., 9월 앙카라, 10월 리마)	· 세계경제의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G20 성장전략 수립, 글로벌 인프라 허브 구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개혁방안 등 · IMF 개혁안 등 국제금융체제 개편 및 금융규제개혁 강화 방안 등
· IMF·세계은행 회의(4월 워싱턴 D.C, 10월 리마)	·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
·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1, 3, 5, 6, 11월 바젤, 2월 마닐라, 9월 앙카라)	· 글로벌 금융 및 경제 현안 등

자료 : 한국은행

### 역내 금융협력 도모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앙은행 간 금융·경제 현안 논의 및 관련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우선 ASEAN+3의 통화·금융부문 협력<sup>124)</sup>을

124) ASEAN+3(한국·중국·일본) 국가들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의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ASEAN+3 정상들은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역내 협력과제중 하나로 통화·금융협력을 승인하였다.

강화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인력 확충 및 조직 운용 등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AMRO가 원활하게 국제기구로 전환<sup>125)</sup>하여 역내 거시경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CMIM의 운영지침 개정, 연구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CMIM이 실질적인 역내 자금지원 체계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EMEAP, SEACEN 등 역내 중앙은행 간 협의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EMEAP의

「역내 경제권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SEACEN의 「재원 조달모델 검토 T/F」, 「SEACEN 센터 조직개편 자문위원회」 등에서도 적극 활동함으로써 역내 경제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였다.

### 지식교류프로그램(BOK-KPP) 등 정책경험 공유 채널 확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업무와 관련한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전수함으로써 중앙은행 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해당국의 금융발전을 지원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식교류프로그램(BOK-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sup>126)</sup>을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미얀마 및 라오스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직원 초청연수와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연구 및 역량강화연수 등을 포함하는 정책자문 프로그램을 민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아울러 자체적으로도 2014년에 이어 캄보디아 및 베트남에 대한 KPP 지원을 계속하였다.

〈표 III-17〉 역내 금융협력체 주요 논의 내용 (2015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 제18차 ASEAN+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바쿠)	· 역내 경제 동향 및 정책대응과 CMIM 작동성 강화, AMRO 역량 제고 및 국제기구화 논의 등 금융협력 강화 방안
· 제14차 한중일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바쿠)	· 3국 경제동향, 역내 금융협력
· 제20차 EMEAP총재 회의 (5월, 싱가포르)	· 경제성장상과 통화정책 과제 및 역내 금융안정 관련 이슈
· 제7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9월, 양가라)	· 3국 경제동향, 금융자유화
· 제15차 한중일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10월, 리마)	· 3국 경제동향, 역내 금융협력
· 제51차 SEACEN총재 회의 (11월, 마닐라)	·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복원력 제고 · SEACEN 조직개편(안) 수행 등

자료 : 한국은행

125) AMRO는 2016년 2월 9일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126) 한국은행 지식교류프로그램은 중앙은행 업무에 특화된 지식 및 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 및 금융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표 III-18) BOK-KPP 실적  
(2015년 중)

협력대상국	유형	자문주제
미얀마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거시경제 분석역량 강화
라오스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라오스 금융시장 구조 선진화 방안
베트남	자체 추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캄보디아	자체 추진	한국은행의 통화금융 통계 및 국제 수지 통계 편제

자료 : 한국은행

아울러 12개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중앙은행 중견직원 46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실시하였다. 통화정책, 외화자산 운용, 지급결제, 금융안정 등 4개 분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은행의 정책경험을 전파하고 참가국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연중 총 13회에 걸쳐 34개국 중앙은행 직원 및 중견공무원 등 총 190명에 대해 한국은행 방문연수를 실시하였다.

(표 III-19) CBSP 개최 실적  
(2015년 중)

개최일정	참석인원
1차 CBSP(통화정책, 4월 21일~4월 24일)	10개국 13명
2차 CBSP(외화자산 운용 및 부채 관리, 6월 16일~6월 19일)	8개국 10명
3차 CBSP(지급결제, 10월 20일~10월 23일)	7개국 11명
4차 CBSP(금융안정, 11월 17일~11월 20일)	6개국 12명

주 : ( ) 내는 주제 및 일정  
자료 : 한국은행

한편, 2015년 2월에는 한국은행의 기술지원 경험 및 역량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의 제안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

를 통해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확대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금 2억 2,966만 달러, 출연금 3,955만 달러 등 총 2억 6,921만 달러 상당액을 추가 납부하였다. 2015년 말 현재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모는 총 81억 4,252만 달러에 달하였다. 출자금과 출연금이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DB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회원국에 자본금 또는 기금 확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2015년 말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우리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함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에 배정된 납입자본금 7억 4,770만 달러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입할 예정이다.

한편 IMF의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을 통해 6,860만 SDR을 신규 용자하였으나 2억 1,410만 SDR이 상환됨에 따라 용자규모가 6억 4,155만 SDR로 전년 대비 1억 4,550만 SDR 감소하였

다. 이외에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sup>127)</sup>을 통한 IMF에 대한 용자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1,000만 SDR이다.

〈표 III-20〉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단위 : 만 달러)

	2014 말(A)	2015 말(B)	증감(B-A)
<b>출 자 금</b>	<b>704,116</b>	<b>727,082</b>	<b>22,966</b>
IMF	479,502	479,502	-
IBRD	21,542	25,146	3,604
IDA	129,539	142,487	12,948
ADB	26,047	29,281	3,234
AfDB	1,898	2,160	262
AfDF	32,166	35,071	2,905
기 타	13,422	13,435	13
<b>출 연 금</b>	<b>83,215</b>	<b>87,170</b>	<b>3,955</b>
IMF	7,232	7,232	-
IBRD	3,380	3,380	-
ADB	50,413	54,368	3,955
IDB	10,100	10,100	-
MIF	6,000	6,000	-
IIC	4,000	4,000	-
기 타	2,090	2,090	-
<b>출자·출연금 합계</b>	<b>787,331</b>	<b>814,252</b>	<b>26,921</b>

자료 : 한국은행

〈표 III-21〉 IMF에 대한 용자 현황

(단위 : 만 SDR)

	2014 말 (A)	2015 중		2015 말 (D=A+B-C)	증감 (D-A)
		용자(B)	상환(C)		
NAB	78,705	6,860	21,410	64,155	-14,550
PRGT	1,000	-	-	1,000	-
<b>계</b>	<b>79,705</b>	<b>6,860</b>	<b>21,410</b>	<b>65,155</b>	<b>-14,550</b>

자료 : 한국은행

127) IMF가 저소득국가(LICs)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용자를 실시하였다.

## 7. 조사통계업무

### 가. 조사연구업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경제에 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에서부터 통화·금융, 성장, 물가, 고용 및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 (1) 본부의 조사연구

#####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2015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 및 주요 자원수출 신흥시장국은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중국의 위안화 절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국제금융 및 원자재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대외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위안화 절하 및 저유가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의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제경제와 관련된 조사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스의 채무재협상 현황과 향후 상황별 시나리오 분석, 중국관련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을 점검하는 한편,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내수회복의 지연과 관련하여 가계소득분배율 하락 요인을 점검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과 소비 간 연계성이 약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및 고용의 질적 수준 등 노동시장 개혁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물가 측면에서는 물가의 기초적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물가전망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하였다. 특히 목표제시 방식, 설명책임 등 물가안정목표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중 가격하락 품목 수 증가의 원인 및 평가, 주택시장 구조변화가 소비 및 주택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보고서들을 통해 최근의 경제현안들을 점검하였다.

한편,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변화하

는 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경제분석 모형을 꾸준히 개발·확충하였다. 특히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부문을 강화한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분기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여 민간, 정부 등 경제주체와 향후 경제전망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장기 조사연구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경제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실물과 금융 간 연계성,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무역구조, 자본이동 및 환율 등 개방경제와 관련한 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노동

시장을 포함한 대내외 구조적 불균형의 원인과 그 영향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금융 및 무역 연계성, 글로벌 유동성 등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충 및 교류 강화

연구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먼저 한국은행 창립 제 65주년을 기념하여 「Global Interest Rate Normalization and Monetary Policy Challenges」라는 주제로 6월에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콘퍼런스

〈그림 III-16〉

창립 65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2015년 6월 8~9일, 서울)



자료 : 한국은행

에서는 학계 및 국제기구의 저명 학자들<sup>128)</sup>이 논문 발표, 정책 관련 종합 토론회 등에 참여하였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저물가·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는 소위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의 이행을 앞둔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된 도전과제와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10월에 한국은행-연세대학교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학계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안정 평가와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부채 상황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11월에는 한국금융학회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엄에서는 학계 발표, 패널 토론 등을 통해 G2 리스크, 신흥국 경제불안 등 대외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12월에 BOK-IMF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Leverage in Asia: Lessons from the Past, What's New Now, and Where to Watch Out for?」라는 주제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아시아의 레버리지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과제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국제기구(IMF) 직원들 및 해외 대학 교

수들과 글로벌 유동성, 통화정책, 지급결제, 금융안정, 주택시장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국외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도 크게 확충할 수 있었다.

## 행내 협업연구 강화

새로운 금융·경제환경에 부응한 조사연구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과 전행적인 연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내 부서 간 협업연구를 강화하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연구위원회」<sup>129)</sup>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는 한편, 국외공동연구,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연구주제를 발굴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관련 부서의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BOK 경제연구」(30건), 「BOK 경제리뷰」(6건), 「BOK 이슈노트」(14건) 등 조사연구자료를 발간하였다.

##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경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역 소재 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

128) IMF의 후루사와 미쓰히로(古沢満宏) 부총재 및 OECD의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ite)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의장이 참석하여 기초연설을 하였다.

129) 부총재와 경제연구위원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8인의 주요 부서장(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과제 분석 등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지역본부는 지역소재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sup>130)</sup> 특히 2015년에는 지역 내 생산 및 고용비중,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본부별 중점 모니터링 대상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매월 「주력산업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지역본부는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등 지역경제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편제하였다.

###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주요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 고용구조 변화, 주력산업 육성, 기업 자금조달 행태 및 가계대출 등 지역 금융·경제에 관한 현안을 심층 분석한 조사연구 자료를 작성<sup>131)</sup>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지역의 다양한 연구 수요에도 부응하여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sup>132)</sup> 이 중 제조업 기술혁신, 지역금융 활성화, 중국의 신산업정책과 지역경제와의 관계 등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주제를 다룬 보고서를 선별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 논문집」(통권 제5호)을 발간하였다.

### 지역경제 연구 네트워크 확충

지역본부는 지역 내 유관기관 및 학계인사 등 지역 내 여론 선도층을 초빙하여 지역경제 발전전략,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세미나, 포럼 등을 활발히 개최하였다.

지역본부는 관할지역 내 경제중심지로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14개 지역본부에서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경북본부, 강원본부는 지역담당제 지정 지역인 구미와 안동, 원주에서 각각 지역발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지역담당제 지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연구 자료를 작성<sup>133)</sup>함으로써 지역담당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130) 지역본부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분기 작성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다.

131) 2015년 중 총 88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132) 2015년 중 총 64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133) 대전충남본부는 「세종시 출범이 대전 주택시장에 미치는 리플 효과에 대한 연구」, 전북본부는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투자자금 유치 경로 및 투자환경 개선에 중심으로」, 포항본부는 「울릉경제의 특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를 본부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최신 연구 조류를 파악하고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외사무소는 현지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충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제이슈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외사무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sup>134)</sup>

#### 나. 통계업무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금리, 통화지표 등 중앙은행의 전통적 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국민대차대조표, 국제수지, 국제투자대조표, 산업연관표(I/O),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자금순환,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조사(BSI), 소비자동향조사(CSI) 등 국가정책 수립 및 분석에 필요한 25개 경제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통계수요에 부응하여 가계부채 DB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등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한편 공표하는 통계에 경제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통계 개발 및 개선

최근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증이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약 100만 명의 신용거래내역을 표본으로 하여 개별 차주(借主)의 가계부채 자료가 수록된 가계부채 DB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가계부채 관련 조사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시장과 상품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인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하였다. 지역경제활동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8년 만<sup>135)</sup>에 2010년 및 2013년 기준으로 작성함으로써 지역본부 및 지역연구기관의 통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실적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경영분석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무지표의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경영분석 분위수(quartiles) 통계를 개발하였다.

134) 5월에 뉴욕사무소, 10월에는 북경사무소·상해주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인접 국외사무소 직원 및 영란은행·ECB·World Bank 등에 파견 중인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135) 2007년 3월에 2003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최초로 편제하였다.

###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5월에 통계청과 국가통계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국가통계의 주요 현안 및 다양한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국가통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8월에 「Macroeconomic Policy and Price Measurement Issues in a Low Inflation Environment」라는 주제로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통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11월에는 아시아지역의 공식통계 표준화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주제로 한국통계학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으로 아시아 통계포럼도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OECD, 중앙은행 통계협력

기구(IFC, Irving Fisher Committee on Central Bank Statistics)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 워크숍 등에 참가하여 다양한 통계 관련 논문 등을 발표하였으며 실무 T/F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통계전용 홈페이지인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통해 통계정보의 시각화 서비스를 개시하여 통계 이용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크게 제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up>136)</sup>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용자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보다 용이하게

〈그림 III-17〉

2015년 조사통계 국제컨퍼런스  
(2015년 8월 20~21일, 서울)



자료 : 한국은행

13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 접속하여 Open API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단체, 대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통계지표 해설 강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15년 판)»,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등 책자를

발간하여 국민계정통계의 변화된 내용과 최근 이슈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국민계정통계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III-18〉 경제통계 Open API 사이트



자료 : 한국은행

## 8. 국고 및 증권업무

### 가. 국고업무

한국은행은 세입금, 세출금, 기금<sup>137)</sup> 등을 포함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는 등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세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국고금을 단순히 수납·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회계제도<sup>138)</sup>에 맞추어 회계별·관서별로 계리하고 이를 정부와 상호대조 확인함으로써 엄정한 재정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고금의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수납 자료의 송수신 등 국고금 수급업무의 정확하고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국고금 수납 및 지급

2015년 중 한국은행은 1,347조 8,320억 원의 국고금 수납과 1,336조 6,410억 원의 국고금을 지급하였다. 국고금의 수납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납부대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거액의 국고금을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체 받아 수납하고, 중앙행정관서가 납부하는 국고금은 국고전산망의 국고계정 간 대체기능을 이용하여 수납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외의 수납기관은 일반 납부자들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고 있다. 2015년 중 한국은행에 직접 수납된 국고금은 1,001조 3천억 원으로 전체 국고금 수납액의 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당좌차기 방식을 이용한 수납으로 규모는 562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고금의 지급은 대부분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채권자 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일시에 다량으로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만 1일 1회 파일 송수신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2015년 중 한국은행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총지급 금액 중 29.0%를 차지하는 388조 1천억 원이었으며 금융기관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566조 4천억 원으로 비중은 42.4%에 달하였다.

〈표 III-22〉 국고금 수납 및 지급

(단위 : 만 건, 조 원, %)

	건 수		금 액		건당 금액 (억 원)
		비중		비중	
총 수납	6,688	100	1,347.8	100	0.2
국고대리점등	6,674	99.8	346.5	25.7	0.1
한국은행	14.4	0.2	1,001.3	74.3	69.5
(당좌차기)	1.4	0.002	562.9	41.8	397.9
총 지급	1,542	100	1,336.6	100	0.9
금융기관계좌이체	1,527	99	566.4	42.4	0.4
한국은행계좌이체	0.5	0.03	388.1	29.0	776.2
기 타	14.5	0.96	382.1	28.6	26.4

자료 : 한국은행

137)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기금 66개 중 43개가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탁되고 있다.

138)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수입·지출을 현금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현금주의 회계제도와 「국가회계법」에 의해 경제적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두 종류로 운영하며 한국은행은 현금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계리만 수행하고 있다.

## 국고대리점 현황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전국의 국고대리점은 17,234개로 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에 비해 17개 감소하였다.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322조 6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8천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23〉 국고대리점 현황 및 수납금액  
(기말 기준)

		(단위: 개, 조 원)		
		2014(A)	2015(B)	증감(B-A)
기관수	수납대리점	7,398(22) <sup>1)</sup>	7,318(22)	-80(-)
	수납점	9,853( 6)	9,916( 6)	63(-)
	계	17,251(22)	17,234(22)	-17(-)
수납금액	수납대리점	306.7	305.4	-1.3
	수납점	15.1	17.2	2.1
	계	321.8	322.6	0.8

주: 1) ( )내는 대상기관 수  
자료: 한국은행

## 국고전산망 운영

원활한 국고금 수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은행은 국고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고 있다. 특히 국고대리점 신설·변경·폐지업무의 전산화, 국고금 결제내역의 적기 제공, 국고금 수납매체의 세분화 등 국고전산망 기능 확충 및 보완을 위한 국고전산망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국고금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

였다. 또한 국고전산망 장애 시 한국은행의 대응에 상응하여 참가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한 참가기관용 「국고업무지속계획」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장애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전산센터 장애 발생 시 전산 백업센터에서 국고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산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고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속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015년 중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처리 규모는 8,308만 6천 건, 3,204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7%, 5.9%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으로 국세환급금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국고여유자금 운용 및 회계계정 간 상호대체 거래금액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표 III-24〉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단위: 만 건, 조 원, %)		
		2014	2015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906.8	932.3	2.8
	파일 송수신	6,670.0	7,376.3	10.6
	(국고금 수납)	6,142.1	6,664.4	8.5
	(국세환급)	527.9	711.9	34.9
	합 계	7,576.8	8,308.6	9.7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2,635.2	2,791.0	5.9
	파일 송수신	391.7	413.4	5.5
	(국고금 수납)	328.7	345.7	5.2
	(국세환급)	63.0	67.7	7.4
	합 계	3,026.9	3,204.4	5.9

자료: 한국은행

##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유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운영하고 있

는데 2015년도 한도는 40조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III-25〉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단위 : 10억 원)

	2014(A)	2015(B)	증감(B-A)
총 합 계 정	30,000	3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	8,000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	2,000	-
합 계	40,000	40,000	-

자료 : 한국은행

정부의 일시부족자금 중 기초적인 부족자금은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단기적인 부족자금만 한국은행 일시대출로 차입하도록 유도하여 2014년 이후 정부대출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다. 2015년 중에는 정부의 추경편성 등에 따른 지출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2014년에 비해 다소 늘어난 3조 2,050억 원(평잔 기준)을 대출하여 정부의 적시 재정집행을 지원하였다.

〈표 III-26〉 대정부 일시대출금 및 재정증권 평잔 (평잔 기준) (단위 : 10억 원, %)

	2013	2014	2015
대정부일시대출	6,524(50.8)	3,076(31.9)	3,205(33.1)
재정증권	6,331(49.2)	6,559(68.1)	6,474(66.9)
합 계	12,855(100)	9,635(100)	9,679(100)

주 : 1) ( ) 내는 합계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 나. 증권업무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탁에 따라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상환·등록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 등에 대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증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고채권<sup>139)</sup>은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연중 249회에 걸쳐 109조 2,891억 원을 발행하고 62조 4,401억 원을 상환하였다. 만기별로는 3년물, 5년물 및 10년물이 각각 26조 7,270억 원, 29조 7,340억 원 및 29조 7,461억 원 발행되어 전체 발행액의 78.9%를 차지하였다.

선매출 발행제도 및 발행일 전 거래시장 도입, 원금이자분리채권 활성화 등 정부의 국고채 제도 개선방안<sup>140)</sup>을 국고채권 발행 사무에 차질 없이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관련 증권시스템도 개선·보완하였다.

〈표 III-27〉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단위 : 10억 원)

	2014 말 잔액	2015 중			2015 말 잔액
		발행 (A)	상환 (B)	순발행 (A-B)	
국 고 채 권	438,254.8	109,289.1	62,440.1	46,849.0	485,103.8
3 년	58,522.0	26,727.0	21,148.0	5,579.0	64,101.0
5 년	103,048.8	29,734.0	22,069.0	7,665.0	110,713.8
10 년 <sup>1)</sup>	178,518.1	29,746.1	19,223.0	10,523.0	189,041.1
(물가연동)	8,390.4	1,818.0	1,073.0	745.0	9,135.4
20 년	77,187.9	10,952.0	-	10,952.0	88,139.9
30 년	20,978.0	12,130.0	-	12,130.0	33,108.1

주 : 1) 물가연동국고채권(10년물) 포함

자료 : 한국은행

139) 국고채권은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140) 정부는 2014년 12월 「2015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 중에 국고채 선매출 발행제도는 발행일 일정기간 전부터 차기 국고채 지표종목을 동시에 발행하는 제도를, 발행일 전 거래시장은 국고채 입찰 2일 전부터 발행일 전까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재정증권<sup>141)</sup>은 63일물로 연중 경쟁입찰을 통하여 31회에 걸쳐 37조 5천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증권은 연내에 전액 만기 상환되었다.

(표 III-28)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단위: 10억 원)

2015 중		I	II	III	IV
발행	37,510	10,000	15,510	12,000	-
상환	37,510	-	15,500	13,010	9,000

자료: 한국은행

한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으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채권 투자가 꾸준히 증가<sup>142)</sup>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sup>143)</sup>과 같이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자국 내 국채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증권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증권 커스터디 업무는 한국은행과 개별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증권 보관, 증권 및 대금 결제, 원리금 수령, 이자소득 원천징수,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2015년 말 현재 2개의 외국 중앙은행과 1개의 국제금융기구가 한국은행과 증권 커스터디 협약을 맺고 있다.

(표 III-29)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의 주요 내용

대상기관	대상증권	주요 업무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증권 및 대금결제, 증권보관, 원화당좌예금 관리, 원천징수, 거래내역 관리 등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2015년 중 외국 중앙은행 등에 대한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11개 중앙은행 및 BIS가 참석하는 「중앙은행 국제금융 및 커스터디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증권 커스터디 업무 발전과 중앙은행 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다. 기금관리업무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의 징수, 지출금의 지급 등 기금의 회계·경리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중 각종 기금의 자금수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및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금관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행,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 등을 통해 연중 160조 9,856억 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81조 1,353억 원,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등에 대한 예탁 73조 9,218억 원, 예수금의 원리금 지급 3조 3,420억 원 등으로 운용하였다.

141) 재정증권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채권이다.

142)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채권투자 규모는 2008년 말 4조 3천억 원(7개 기관)에서 2014년 말 43조 7천억 원(19개 기관), 2015년 말 47조 5천억 원(20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43) 현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ECB, 영국(BOE), 호주(RBA)·프랑스(BDF)·독일(DBB)·캐나다(BOC)·일본(BOJ)·중국(PBOC)·네덜란드(DNB)·뉴질랜드(RBNZ) 중앙은행 등이 외국 중앙은행 등에 대한 국제 금융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I-30〉 한국은행의 기금관리 주요 내용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p>정부의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다음의 계정을 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계정 : 국고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등에 대한 예탁,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li> <li>· 용자계정 :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li> <li>· 차관계정 : 국제협력기구, 외국 정부·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을 관리</li> </ul>
공적자금상환기금	<p>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년에 설치된 기금</p> <p>2003~2006년 중 부담한 총 49조 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p>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p>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치된 기금</p> <p>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p>

자료 : 한국은행

용자계정은 예탁금 및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2조 293억 원을 조달하여 예수금의 원리금 지급 1조 8,150억 원, 대책사업 등에 대한 재정용자 2,143억 원 등으로 운용하였다. 차관계정은 전대차관 회수 등으로 1,624억 원을 조달하여 타계정에 대한 예탁 900억 원, 재정차관 원리금 상환 724억 원 등에 사용하였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수금 등으로 2조 8,597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중 정부

출연금 493억 9천만 원, 한국은행 출연금 493억 9천만 원 등 1,003억 원을 조달하여 이 중 988억 원을 농어가목돈마련저축<sup>144)</sup>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연중 9만 1,583 농어민가구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통해 6,668억 원의 저축원리금을 수령하는 등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표 III-31〉 기금 조달(운용) 현황

(단위 : 10억 원)

	2014(A)	2015p(B)	증감(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153,610.9	160,985.6	7,374.7
용자계정	1,264.1	2,029.3	765.2
차관계정	297.0	162.4	-134.6
공적자금상환기금	8,725.2	2,859.7	-5,865.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99.7	100.3	0.6

자료 : 한국은행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자금의 조달 및 집행 시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게 되는 일시적인 잉여 자금을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단기 금융상품에 연중 174회에 걸쳐 운용하였다.

144)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1ha 이하 농지 소유 또는 임차 경작 농민, 5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 5ha 이하 산림 소유 또는 임차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3년 또는 5년 만기의 적금상품(연간 최대 납입한도 144만 원)으로 가구당 1인만 가입 가능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축만기 시에 저축가입자에게 연 1.5~2.5%(저소득 가입자는 연 6.0~9.6%)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9. 대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보도자료, 간행물 등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회의·행사, 홈페이지, 화폐박물관 등 직·간접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내실화

한국은행은 조사연구 관련 간행물 발간,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화폐박물관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소셜미디어(social media)용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도 부응하고자 하였다.

「조사통계월보」, 「BOK 경제연구」, 「BOK 경제리뷰」, 「BOK 이슈노트」, 「국민계정리뷰」, 「해외경제포커스」 등 연간 총 439건의 간행물과 410건의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를 생산·발표하는 등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경제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차보고

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BOK-IMF 국제콘퍼런스」, 「한국은행 워크숍」 등 대내외 회의를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 및 정책수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국제금융기구, 외국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 및 학계와 공유하였다. 또한 「통화정책 경시대회<sup>145)</sup>」를 통해 대학생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현안에 대한 식견을 기를 수 있도록 힘썼다.

홈페이지에 통화정책방향 의견문, 간행물 및 보도자료 등을 게재함으로써 이용자가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통계시스템, 지역본부, 경제연구원, 화폐박물관 및 경제교육 홈페이지도 메인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표 III-32〉 홈페이지(메인) 방문자수 (기간 중) (단위: 천 명)

	2013	2014	2015
홈페이지 방문자수	2,709	2,457	2,421

자료: 한국은행

한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가안정목표 주제의 웹툰(webtoon)을 제작하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 보도자료 내용을 시각화

145)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62개 대학 105개 팀 총 42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자료 : 한국은행

하여 수시로 게재하였으며, 유튜브를 통해 통화 정책방향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설명회, 경제교육자료 등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표 III-33>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sup>1)</sup>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 (Flickr)	카카오 스토리 (Kakao story)
개설 시점	2013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10월
수록 컨텐츠수 (개)	396	339	450	309	221

주 : 1) 2015년 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이밖에 외환심사 등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표 III-34>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  
(기간 중)

	2013	2014	2015
접수건수	1,401	1,044	1,217
처리건수	1,401	1,044	1,217

(단위 : 건)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화폐와 경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험학습을 위하여 화폐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방문자 수가 25만 5천 명에 이른다. 「생동의 땅 아프리카-화폐로 만나다」라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그 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구경북본부와 강원본부에서도 개항기 화폐와 근현대 회화 작품을 선보인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부산본부, 광주전남본부, 인천본부 등 8개 지역본부에서 「화폐

속의 패션박물관』이라는 순회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젊은 회화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신진작가 공모를 실시하였다.

여하였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무료급식, 노숙자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불우 청소년, 사회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도 수시로 열었다.

〈표 III-35〉 화폐박물관<sup>1)</sup> 관람자수  
(기간 중) (단위: 천 명)

	2013	2014	2015
화폐박물관 <sup>1)</sup> 관람자수	266	241	255

주: 1) 지역본부 화폐전시실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참

## 나. 경제·금융교육의 효과적 운영

한국은행은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경제교재 개발 등을 통해 대국민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먼저 현장 경제교육을 보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은금융강좌,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

〈그림 III-20〉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  
(2015년 6월 12일)



자료: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장 및 방문 강좌로 진행되는 경제강좌, 청소년 경제캠프 등 직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교사직무연수 및 경제교육봉사단<sup>146)</sup> 운영 등 간접방식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5년 중 총 1,506회에 걸쳐 약 7만 6천 명에게 현장 경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III-36〉

현장 경제교육 실적

(단위 : 회)

	2013	2014	2015
청소년 교육	708	576	774
일반인 교육	642	588	732
합 계	1,350	1,164	1,506

자료 : 한국은행

또한 온라인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홈페이지에 한은금융강좌 강의 동영상, 대학생 및 일반인용 「국제수지표의 이해」 등 e-러닝 동영상, 미취학 어린이 대상 「돈이

146) 대학생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초·중·고교생 대상 경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교육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147) 금융포용이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금융소외계층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계층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뭐예요?」 3D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경제관련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바일 환경변화에 맞추어 모바일 경제교육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책자 및 e-북)와 「고등학생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개정판(책자 및 e-북)을 발간하였다. 또한 금융포용<sup>147)</sup>(financial inclusion) 차원에서 서민층의 금융 이해력 제고를 위하여 신용관리를 소재로 한 「금융생활 길라잡이」 인포그래픽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e-북 및 동영상은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본부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5개 지방 소재 대학에 「중앙은행론」 강좌를 정규과정 등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IV

## 경영상황





## 1. 조직 운영

2015년 중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1월에 조직을 정비하였다.

### 가. 조직 체계

#### 통화신용정책 수립기반 확충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국 내 금융시장부를 금융시장국(부서)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국 내에 정책연구부를, 물가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내에 물가분석부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 전반의 잠재 리스크 점검을 위한 조사분석업무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 금융안정국 내에 금융시스템분석부를 신설하였다.

한편 7월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장국 내에 자본시장부를 신설하였다.

#### 대국민 경제 및 금융 교육 강화

금융 및 경제 교육의 중요성과 대국민 경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커

뮤니케이션국 내에 경제교육실을 신설하고, 경제교육실 내에 경제교육에 관한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할 경제교육기획팀 및 경제교육운영팀을 설치하였다.

#### 금융안정 담당부서 명칭 변경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의 용어인 ‘금융안정’을 반영하여 거시건전성분석국을 금융안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대국·대팀제 보완 및 경영지원 부문 슬림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대팀제조 직을 일부 보완하였다. 금융결제국 내에 지급결제 동향분석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결제감시부를, 국제국 내에 국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 및 운영, 외환·국제금융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금융부를, 전산정보국 내에 회계·결제·경영·정책시스템 등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전산운영부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기획협력국 내 법규제도실에 각각 중앙은행·금융법령 및 소송사건 등을 전담하는 금융법규팀 및 일반법규팀을, 발권국 내 화폐 및 화폐제도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화폐연구팀을 신설하였다.

경영지원 분야의 경우 지역통할실을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지역협력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지역협력실 내에 통할기획팀과 지역협력팀을 지역협력조정팀으로 통합하였다.

## 별관건축본부 신설

한편 8월에는 별관 재건축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별관건축본부를 신설하고 기존 재산관리실 소속의 건물신축전담반을 동 본부에 흡수하였다. 별관건축본부는 사업완료 시까지 경영관리 담당 부총재보 직속의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 나. 조직 운영방식

### 정책보좌관과 공보관 직책 신설

전행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직무의 특수성이 높은 분야에 집행간부가 직접 통할하는 정책보좌관과 공보관 직책을 새로 두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정책보좌관은 총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정부 및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조, 국제협력 관련 보좌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공보관은 당행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보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조직가치 설정

한국은행은 설립목적과 비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임직원의 소명의식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

직 운영 방향과 업무수행 자세를 담은 조직가치를 설정하였다. 조직가치 설정 협의회<sup>148)</sup>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6월 12일 창립 65주년을 기념하여 ‘공익, 중립, 책임, 소통 및 전문성’을 한국은행의 5대 조직가치로 확정·공표하였다. 이 조직가치가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표 IV-1〉 한국은행의 조직가치

가치	의미
공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함
중립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책임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책무를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음
소통	임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함
전문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어 책무 수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함

자료 : 한국은행

### 운영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리스크<sup>149)</sup>를 관리하고 있다.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Self-Assessment), 핵심운영리스크 지표(KORI, Key Operational Risk Indicators) 모니터링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운영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경감하기

148) 조직가치 설정 협의회는 기획협력국장 및 본부부서 2~4급 직원(24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의체이다.

149)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업무프로세스나 시스템, 직원관리 미흡,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 달성이 저해되거나 재무적 손실, 평판 훼손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여 업무지속계획을 보완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운영리스크 관리 관련 업무 담당 체계를 개편<sup>150)</sup>하여 리스크 관리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IT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수행방식을 개선<sup>151)</sup>함으로써 내부통제 업무의 통합적·효율적 수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업무지속계획」과 「충무사태 선포 이전 위기고조 시 대응방안」의 수립을 통해 특정 리스크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위기관리 역량을 확충하였다.

또한 IORWG(International Operational Risk Working Group)<sup>152)</sup>에 참여하여 운영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공유하였다.

###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4회)함으로써 정책 및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회의 및 행사 사진을 전자정보 게시대, 엘리베이터 스크린 등에 수시로 게시하여 주요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임직원이 참여하는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지역본부장 및 국외사무소장회의 등을 통해 정책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였다.

〈표 IV-2〉 연중 내부 주요 회의 개최 횟수

(단위 : 회)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지역본부장 및 국외사무소장 회의
10	2	4

자료 : 한국은행

## 다. 교육훈련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 개선

직무 전문성 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중에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주제가 특정 직무에 국한된 과정을 통폐합하고 각 직급별로 특화된 연수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직무 연수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과목을 5개에서 1개로 통폐합하였으며 직급별 연수의 연수기간을 늘리고 각 직급별 필요역량을 세분화하여 그에 집중된 연수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초빙강사 선정 시에도 강의역량과 전공분야 등을

150) 각 부서(지역본부)의 부국장(부분부장)이 자체 운영리스크 관리업무, 준법감시업무, 감사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통할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활동을 전행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운영리스크반, 개인정보보호반)을 신설하였다.

151) 리스크 관리와 감사 목적으로 각각 활용해 오던 '리스크 리스트'를 통합하여 '통합 리스크 레지스터'를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152) 한국은행은 2011년 12월에 IORWG에 가입하였으며, 2015년 12월 64개국 중앙은행과 BIS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면밀히 고려하는 등 연수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에 맞추어 직급별·부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보완하였다. 먼저 본부 국·실·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BOK 리더스 조찬」 과정을 신설하여 경영마인드를 고취하고 최신 경영 트렌드 경험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은퇴생활 설계 능력 제고를 위해 「퇴직준비 집합연수」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외국기관과의 교류 지속

한편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연수 및 세미나(GIP, Global Initiative Program)」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기존의 통화정책, 국제경제, 거시계량, 금융안정 중심이었던 연수분야를 금융, 통계 등으로 다변화하였다. 또한 각 과정별 난이도를 차별화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연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개설 횟수도 연수과정에 대한 실수요를 반영하여 7개 과정으로 축소·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12개국 37명의 외국 중앙은행 직원을 포함해 총 123명이 참가하였다.

이밖에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의 업무수행 절차 및 선진화된 직무 노하우 습득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IMF, 세계은행 등 국

제기구와 외국 중앙은행에 8명의 직원을 파견 중이다. 파견 직원들은 해당기관 일선 부서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보고서 및 연구논문을 작성함은 물론 회의참석 등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IV-3〉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 직무파견 현황  
(2015년 말 현재)

(단위: 명)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IMF	2	영란은행	1
World Bank	2	ECB	1
OECD	1	중국인민은행	1

자료: 한국은행

## 라. 청년 고용 확대 및 인력 운용의 개방성 제고

한국은행은 전문지식은 물론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청년 고용 증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적극 부응해 채용 규모를 큰 폭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신입 종합기획직원 70명을 포함해 모두 104명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채용 규모는 90년대 이후 최대인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인건비를 활용하여 채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 종합기획직원 중 여성합격자 수는 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여성 직원 비중의 증가세도 지속되었다.<sup>153)</sup>



자료 : 한국은행

이와 동시에 인력운용의 개방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조사국장은 물론 투자운용부장, 전산관리부장, 부공보관 등 상위직급의 개방형 직책과 함께 박사급 조사연구 인력 등 외부 경력직 전문가를 대외공모 절차를 거쳐 적극 유치한 바 있다. 한편 종합기획직원 채용의 경우 '스펙' 위주 전형을 지양하고 지원자의 실력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선발전형 절차를 큰 폭으로 개선하였다. 우선 자격증, 제

2외국어, 공인인증시험 등에 대한 서류전형 우대를 폐지하였다. 또한 지원서 기재사항 중 가족사항, 주소, 수상실적 등 지원자 역량평가에 필수적이지 않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서 작성은 간소화하는 등 지원자의 응시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아울러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협업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면접전형을 강화해 실시하였다.

153)

한국은행 직급별 여성 직원<sup>1)</sup> 현황

(단위 : 명, %)

	1급	2급	3급	4급	5급	합계 <sup>3)</sup>
2000 말	-	1	2	32	82	117 <9.1>
2015 말	-	2	9	153	214 <sup>2)</sup>	378 <22.7>

주 : 1) 종합기획직원 1~5급 기준 2) 2016년도 여성 신입직원 30명 포함

3) < >는 1~5급 전체 직원 수 대비 여성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표 IV- 4〉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

(단위 : 명)

채용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종합기획직원 <sup>1)</sup>	43	51	61	72	60	70
여성합격자	11	18	17	30	19	30
일반사무직원	9	-	14	-	12	20
일반기능직원	14	-	-	9	7	5
경력직원	9	10	25	20	7	9
합 계	75	61	100	101	86	104

주 : 1) 채용실시 연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마. IT시스템 개선

일선 부서가 업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분석시스템도 고도화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통계 편제를 위해 경제통계 홈페이지(ECOS)를 개편하였다.

한편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노후한 정보통신망 기기를 교체하고 회선을 증설하였으며, 지급결제 인프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은금융망 무중단 운영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였다. 사이버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였으며, 정보보호시스템도 개선하고 확충하였다.

## 2. 재무 현황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발권력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 및 정부에 대출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한다. 그러나 국외부문에서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함께 외화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화증권 및 예치금 등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화안정증권발행, 외화예수금 등이 부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수지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sup>154)</sup>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순이익을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 자산

2015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는 488조 8,973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 981억 원 증가하였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유가증권 및 예치금이

각각 13조 1,482억 원 및 7조 5,88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정부대출금은 2조 8,371억 원이 감소하였다. 외환평가조정금은 연말 원/달러 환율 등의 상승으로 인해 8조 9,099억 원이 감소하였다.

### 부채 및 자본

2015년 말 현재 부채 규모는 476조 9,516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 7,717억 원 증가하였다.

주요 항목별로는 화폐 발행,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예금이 각각 11조 8,123억 원, 2조 8,524억 원 및 3조 3,162억 원 증가한 반면 통화안정계정은 2조 5,000억 원 감소하였다.

2015년 말 현재 자본 규모는 11조 9,457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 3,264억 원 증가하였다.

주요 항목별로는 법정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각각 5,954억 원 및 7,310억 원 증가하였다.

### 손익상황

2015년 중 당기순이익은 국내금리의 하락으로 통화관리부문 비용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7,310억 원 증가한 2조 7,156억 원을 실현하였다.

영업수익은 전년보다 1조 3,969억 원이 증가한 14조 5,088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

154)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이 결산상 순이익금의 1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가증권매매익이 1조 1,880억 원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영업비용은 유가증권매매손이 1조 3,673억 원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6,754억 원 늘어난 11조 69억 원을 기록하였다.

### **당기순이익 처분**

2015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2조 7,156억 원 이었는데, 이중 8,147억 원이 법정적립금으로, 495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조 8,514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 2015년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표 IV- 5〉

**대차대조표** (제66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65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 원)

과 목	2015 말	2014 말
자 산		
I. 유동자산	478,746,284	475,880,057
1. 현금	235	132
2. 지급은	5,619,451	5,270,386
3. 특별인출권보유	3,798,861	3,605,843
4. 유가증권(주식 2)	377,422,444	364,274,181
가. 국채	16,177,827	16,867,312
나. 정부보증증권등	-	-
다. 외화증권	361,244,617	347,406,869
5. 예치금(주식 3)	24,734,866	17,146,169
가. 당좌예치금	6,398,343	4,538,241
나. 정기예치금	18,336,523	12,607,928
6. 당좌대출	-	-
7. 자금조정대출	-	-
8. 할인어음	-	-
9. 어음대출(주식 4)	18,729,556	14,162,406
10. 증권대출(주식 4)	2,437	91
11. 환매조건부매입증권(주식 5)	-	-
12. 정부대출금(주식 4)	1,280,100	4,117,200
13. 국제금융기구대출금(주식 4)	1,059,033	1,268,955
14. 외국환	105,397	152,248
15. 대리점	1,534,951	1,497,431
16. 분지점환	-	-
17. 기타자산 (외환평가조정금)	44,458,953 (-)	64,385,015 (8,909,861)
II. 비유동자산	10,151,037	9,919,137
1. 투자자산	9,642,328	9,409,045
가. 출자금(주식 6)	8,305,290	8,098,840
나. 출자증권	1,328,806	1,302,877
다. 전신회사사용권	73	73
라. 제가입권	8,159	7,255
2. 유형자산	494,337	497,663
3. 무형자산	14,372	12,429
자 산 총 계	488,897,321	485,799,194

과 목	2015 말	2014 말
부 채		
I. 유동부채	475,476,227	473,732,635
1. 화폐발행	86,757,133	74,944,785
2. 통화안정증권발행(주식 7)	184,367,340	181,514,868
3. 통화안정계정	10,000,000	12,500,000
4. 정부예금	3,753,738	3,775,886
5. 예금	126,232,982	122,916,739
가. 당좌예금	43,425,735	41,397,586
나. 결제전용예금	-	-
다. 자금조정예금	1,395,700	582,000
라. 별단예금	4,189,616	4,701,052
마. 외화예수금	77,221,931	76,236,101
바. 기타외화예금	-	-
6. 환매조건부매각증권(주식 8)	15,000,000	17,722,007
7. 특별인출권배분	3,908,185	3,828,021
8. 본지점환	-	-
9. 기타부채	45,456,849	56,530,329
(외환평가조정금)	(19,489)	(-)
II. 비유동부채	1,475,343	1,447,222
1. 차입금	-	-
2. 퇴직급여충당금	146,537	144,345
3. 출자증권발행	1,328,806	1,302,877
부 채 총 계	476,951,570	475,179,857
자 본		
I. 잉여금	11,945,751	10,619,337
1. 이익잉여금	11,945,751	10,619,337
가. 법정적립금	5,792,374	5,197,004
나. 임의적립금	3,437,768	3,437,768
다.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2,715,609	1,984,565
자 본 총 계	11,945,751	10,619,33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88,897,321	485,799,194

〈표 IV-6〉

**손익계산서** (제66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65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 원)

과 목	2015	2014
I. 영업수익	14,508,826	13,111,956
1. 수입이자와 할인료	8,061,545	7,975,158
(1) 유가증권이자(주석 9)	6,566,311	6,834,829
(2) 예치금이자	65,504	48,638
(3) 당좌대출이자	13	31
(4) 할인어음할인료	-	-
(5) 어음대출이자	106,097	110,880
(6) 증권대출이자	27	56
(7) 자금조정대출이자	67	67
(8)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603	675
(9) 정부대출금이자	34,709	43,426
(10) 국제금융기구대출금이자	539	1,177
(11) 수입잡이자	1,287,675	935,379
2. 수입수수료	117,507	115,397
3. 유가증권매매익	6,209,389	5,021,401
4. 통화안정증권상환익	-	-
5. 외환매매익	120,385	-
6. 자금은익	-	-
II. 영업비용	11,006,866	10,331,485
1. 지급이자와 할인료	7,301,416	8,140,451
(1) 예금이자	1,083,537	1,166,245
(2) 통화안정계정이자	238,505	302,555
(3) 통화안정증권이자	4,102,103	4,739,911
(4)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주석 10)	291,966	379,811
(5) 차입금이자	-	-
(6) 지급잡이자	1,585,305	1,551,929
2. 지급수수료	186,512	181,531
3. 유가증권매매손	2,807,769	1,440,502
4. 통화안정증권상환손	141,559	33,445

과 목	2015	2014
5. 외환매매손	8,472	16,703
6. 지금은손	-	-
7. 화폐제조비	148,097	128,672
8. 퇴직급여	30,667	23,505
9. 감가상각비	21,789	21,581
10. 무형자산상각비	6,179	4,251
11. 일반관리비	354,406	340,844
III. 영업이익	3,501,960	2,780,471
IV. 영업외수익	23,092	23,432
1. 자산처분익	1,205	14,993
2. 잡익	21,887	8,439
V. 영업외비용	10,514	13,399
1. 출연금	10,000	10,000
2. 자산처분손	29	3,332
3. 잡손	485	67
VI.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3,514,538	2,790,504
VII. 법인세등	798,929	805,939
VIII. 당기순이익	2,715,609	1,984,565

〈표 IV-7〉

**자본변동표** (제66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65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 원)

과 목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계
I. 2014년 1월 1일(전기초)	-	10,081,629	10,081,629
II. 정부세입 납부		-1,397,883	-1,397,883
III. 농어가기금 출연		-48,974	-48,974
IV. 당기순이익		1,984,565	1,984,565
V. 2014년 12월 31일(전기말)	-	10,619,337	10,619,337
VI. 2015년 1월 1일(당기초)	-	10,619,337	10,619,337
VII. 정부세입 납부		-1,339,805	-1,339,805
VIII. 농어가기금 출연		-49,390	-49,390
IX. 당기순이익		2,715,609	2,715,609
X. 2015년 12월 31일(당기말)	-	11,945,751	11,945,751

〈표 IV-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66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65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6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16년 2월 25일  
제65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15년 2월 26일

(단위 : 백만 원)

과 목	2015		2014	
I.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2,715,609		1,984,56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	2,715,609		1,984,565	
II. 이익잉여금처분액		2,715,609		1,984,565
1. 법정적립금 적립	814,683		595,370	
2. 임의적립금 적립	49,521		49,390	
가. 농어가기금출연목적	(49,521)		(49,390)	
나. 손실발생대비목적	(-)		(-)	
3. 정부세입 납부	1,851,405		1,339,80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재무제표 주석

###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가. 개요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됩니다.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이익금 처분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석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나. 재무제표 표시 금액 단위 변경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표시 금액 단위를 ‘원’에서 ‘백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도 동일한 금액 단위로 재작성 하였습니다.

#### 다. 자산·부채의 계상 및 평가기준

자산은 취득시점에 계상하고 부채는 부담시점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1)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취득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 개별법을 적용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대상물에 대한 투자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중 주식의 취득단가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라. 손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 마. 외화환산기준 및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 (1) 외화환산기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환산 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계정인 외환평가조정금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외화표시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2)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외환매매손익은 원화를 대가로 보유외환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도한 외환의 대응원화금액에서 동 외환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바.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증권을 담보로 한 자금의 대차거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환매조건부매입증권계정에 계상하고,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매각증권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사.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1)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건물은 정액법을,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각각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정액법을, 소프트웨어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종업원이 부담할 국민연금납입액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대납하고 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국민연금전환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등**

법인세등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와 동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

유가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2015 말	2014 말
과 목	종 목		
국채	국고채권	16,177,826,983,662	16,867,311,914,595
정부보증증권 등	-	-	-
외화증권	외국 정부채 등	361,244,617,397,925	347,406,869,184,555
합 계		377,422,444,381,587	364,274,181,099,150

### 3. 예치금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2015 말	2014 말
과 목	예치기관		
당좌예치금	외국상업은행 등	6,398,343,067,573	4,538,241,221,139
정기예치금	외국상업은행 등	18,336,522,425,114	12,607,927,697,238
합 계		24,734,865,492,687	17,146,168,918,377

### 4. 대출금

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2015 말	2014 말
과 목	대여처		
어음대출	국내금융기관	18,729,555,402,517	14,162,406,230,528
정부대출금	기획재정부	1,280,100,000,000	4,117,200,000,000
국제금융기구대출금	IMF	1,059,033,027,150	1,268,955,005,135
증권대출	우리은행	2,437,244,450	91,273,450
합 계		21,071,125,674,117	19,548,652,509,113

### 5. 환매조건부매입증권

환매조건부매입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2015 말	2014 말
과 목	상대처		
원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	-	-
외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	-	-
합 계		-	-

## 6. 출자금

출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2015 말	2014 말
과 목	출자대상		
국내출자금	한국수출입은행	1,165,000,000,000	1,165,000,00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645,000,000,000	445,000,000,000
	소 계	1,810,000,000,000	1,610,000,000,000
국외출자금	국제금융기구	6,495,289,712,477	6,488,839,962,498
합 계		8,305,289,712,477	8,098,839,962,498

## 7. 통화안정증권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2015 말	2014 말
이 표 채	158,328,620,744,041	153,508,593,828,007
할 인 채	26,038,719,000,000	28,006,274,000,000
합 계	184,367,339,744,041	181,514,867,828,007

## 8. 환매조건부매각증권

환매조건부매각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2015 말	2014 말
과 목	상대처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내금융기관	15,000,000,000,000	17,000,000,000,000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외국투자은행 등	-	722,006,750,400
합 계		15,000,000,000,000	17,722,006,750,400

## 9.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	2015 말	2014 말
원화증권이자	592,528,045,075	626,234,904,112
외화증권이자	5,973,782,821,214	6,208,594,455,977
합 계	6,566,310,866,289	6,834,829,360,089

## 10.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	2015 말	2014 말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291,941,116,639	378,592,318,501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25,314,589	1,219,099,468
합 계	291,966,431,228	379,811,417,969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영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11F (영도동 4동)  
 050-711  
 Tel: 02-2387-6600  
 Fax: 02-783-8890  
 www.ey.com/kr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은행 환채 거래

### 감사대상 재무제표

우리는 별첨된 한국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3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당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잉여표 및 이차당해당계분개입서, 그리고 총회계업 회계장부의 요어에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서의 확인

경험있는 한국은행별 제2호 및 한국은행 일반 제2호에 허가 예정된 회계장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신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거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없습니다.

###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충분히 요구사항을 갖추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실체적 공시에 대한 감사준거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적 수행을 포함합니다. 감사의 실체적 수행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확률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책임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준거를 설계하기 위하여 실체적 재무제표 적정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에 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실체적 표시에 대한 평가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험인의 적용한 회계장부의 적정성과 경험인의 적절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감사준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순행의 재무제표는 한국은행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당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그리고 이차당해당 및 자본의 변동을 한국은행별 제2호 및 한국은행 일반 제2호에 허가 예정된 회계장부에 따라 중요성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徐 珍 錫  
 회 계 사

2015년 2월 25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형태로 통보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점 당시에 발부된 한국은행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부 록

1. 한국은행 조직도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3. 경제일지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 15년 12월 31일 현재)

전략팀(운영리스크반),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예산회계팀	
협력조정팀, 지역경제팀	
법규팀, 일반법규팀	
팀	
총괄팀(교류프로그램반), 글로벌협력팀, 아태협력팀, 교류협력팀	
마케팅기획팀(박물관운영반), 커뮤니케이션운영팀(정보자료반), 뉴미디어팀	
교육기획팀, 경제교육운영팀	
기획팀, 정보보호팀(개인정보보호반), 품질관리팀, IT지원팀, 전산운영부(회계시스템팀, 결제시스템팀, 시스템팀, 정책시스템팀), 전산관리부(주전산팀, 서버운영팀, 통신운영팀)	
팀(연구지원반), 급여후생팀, 노사협력팀(열린상담반), 경리팀	
총괄팀, 시설운영팀, 조달관리팀	
계획팀, 경비팀	
반), (건축반)	
총괄팀, 글로벌연수팀, 국내연수팀, 연수지원팀, 교수팀	
총괄팀, 동향분석팀, 고용재정팀, 국제무역팀, 산업경제팀, 물가분석부(물가동향팀, 물가연구팀), 모형부(모형개발팀, 모형분석팀), 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 선진경제팀, 신흥경제팀)	
기획팀, 통계조사팀, 통계정보관리팀, 금융통계부(금융통계팀(가계부채DB반), 자금순환팀, 국제수지팀, 국외투자통계팀, 통계팀), 국민경제정부(국민소득총괄팀, 지출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국민B/S팀, 물가통계팀)	
총괄팀, 시스템리스크팀, 안정분석팀, 금융규제팀, 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 비은행분석팀), 안정연구부(금융안정연구팀, 금융제도연구팀)	
총괄팀(상시모니터링반), 일반은행1팀, 일반은행2팀, 특수은행팀	
총괄팀, 금융기획팀, 정책분석팀, 정책협력팀, 정책연구부(통화신용연구팀, 정책제도연구팀)	
총괄팀, 시장운영팀, 자금시장팀, 자본시장부(채권시장팀, 주식시장팀)	
정책팀, 결제연구팀, 결제운영팀(한은금융망개편반), 전자금융팀, 결제업무팀, 결제감시부(결제안정팀, 결제리스크팀)	
팀, 증권팀	
정책팀, 발권기획팀, 화폐수급팀, 화폐관리팀, 화폐연구팀	
총괄팀, 외환회계팀, 외환시장팀, 자본이동분석팀, 국제금융부(국제금융협력팀, 국제금융연구팀), 업무부(외환심사팀, 외환건전성조사팀, 외환정보팀)	
프랑크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위싱턴, 홍콩, 상해)	
기획부(운영기획팀, 외자운영연구팀, 리스크관리팀, 위탁운영팀(위탁관리반)), 투자운영부(운영전략팀, 글로벌정부채팀, 특별회사채팀, 자산유동화채팀, 신흥시장팀, 외환운영팀), 운영지원부(자금결제팀, 외자시스템팀)	
조정팀, 금융통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1),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경기, 경남, 강릉 <sup>3)</sup> , 울산, 포항 <sup>4)</sup> , 강남	총무팀 <sup>2)</sup> , 기획조사부(기획금융팀, 경제조사팀 <sup>3)</sup> , 기획조사팀 <sup>4)</sup> , 업무팀, 화폐관리팀 <sup>5)</sup> , 외환심사반 <sup>6)</sup>
기획팀(감사협력반), 감사1·2·3·4·5팀	

1) 부산, 경기, 강원, 제주본부 4) 전북, 충북, 인천, 경남, 울산본부 5)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강남본부

##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 차 례

####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15년 1월 15일) .....	128
◇ 통화정책방향 (2015년 2월 17일) .....	128
◇ 통화정책방향 (2015년 3월 12일) .....	129
◇ 통화정책방향 (2015년 4월 9일) .....	130
◇ 통화정책방향 (2015년 5월 15일) .....	131
◇ 통화정책방향 (2015년 6월 11일) .....	132
◇ 통화정책방향 (2015년 7월 9일) .....	133
◇ 통화정책방향 (2015년 8월 13일) .....	134
◇ 통화정책방향 (2015년 9월 11일) .....	135
◇ 통화정책방향 (2015년 10월 15일) .....	135
◇ 통화정책방향 (2015년 11월 12일) .....	136
◇ 통화정책방향 (2015년 12월 10일) .....	137
◇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5년 12월 24일) .....	138

####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15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15년 1월 15일) .....	145
◇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 (2015년 1월 29일) .....	145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5년 3월 26일) .....	146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2015년 3월 26일) .....	146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 (2015년 3월 26일) .....	146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2015년 7월 23일) .....	147
◇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등 실시 (2015년 8월 27일) .....	147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5년 11월 26일) .....	148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15년 11월 26일) .....	149
◇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2015년 12월 16일) .....	149

#### (3)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 주요 내용

◇ 「최근 거시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주요 논의 내용 (2015년 3월 26일) .....	150
◇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5년 9월 24일) .....	152

##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1월 15일, 제1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이어졌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 및 중국의 성장세 약화, 산유국의 금융·경제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내수의 회복이 미약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부진하였다. 고용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확대로 전월의 1.0%에서 0.8%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

션율은 전월과 같은 1.6%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움직임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지방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주요국 주가 하락, 외국인 주식순매도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 후 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엔화 약세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원·엔 동조현상이 약화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희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2월 17일, 제3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에 크게 기인하여 감소하고 내수의 회복이 미약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폭이 커지면서 전월과 같은 0.8%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6%에서 2.4%로 큰 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반등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수요 증대 등으로 그동안의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희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3월 12일, 제5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완만하나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의 0.8%에서 0.5%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4%에서 2.3%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는 소폭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최근 주요국 주가 하락 등에 영향받아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른 동

조현상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 후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희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4월 9일, 제7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

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세를 지속 하였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의 0.5%에서 0.4%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2.3%에서 2.1%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우려 완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으며 원/엔 환율도 상승 후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

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희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5월 15일, 제9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화추세는 지속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내수 관련 지표들이 월별로 등락을 보였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고용률이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감소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실업률은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과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나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과 같은 0.4%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1%에서 2.0%로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금리 급등, 채권 공급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 지연 가능성,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한 후 반등하였으며 원/엔 환율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협요인, 경제 내의 유희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6월 11일, 제1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가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화추세는 지속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부진,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 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4%에서 0.5%로 소폭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국내 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상승 후 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5년 7월 9일, 제13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다시 뚜렷해졌으며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

화추세는 지속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리스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큰 폭 감소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충격 진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0.5%에서 0.7%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1%에서 2.0%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사태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예상 등으

로 상승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그리스 사태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8월 13일, 제15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메르스 사태의 충격 등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고용률이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은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소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격의 오름폭 확대로 전월과 같은 0.7%를 나타내었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과 동일한 2.0%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국 위안화 절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

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9월 11일, 제17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및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움직임을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되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 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폭 확대로 전월과 같은 0.7%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10월 15일, 제19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

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오름세 둔화, 석유류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6%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1%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진정,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 지연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11월 12일, 제21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식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 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

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서비스요금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6%에서 0.9%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1%에서 2.3%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주요국 주가 상승,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 후 반등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상승, 국내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15년 12월 10일, 제23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

가하고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축소 및 서비스요금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9%에서 1.0%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3%에서 2.4%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은 상승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5년 12월 24일, 제25차)

### I.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 1. 세계경제

◆ 2016년 중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 하방리스크가 잠재

□ 2016년 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겠으나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여전히 약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기관들은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5년(3% 내외)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미국이 소비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유로지역도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중국은 감속 성장을 지속할 전망

□ 세계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간 통화정책 비동조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위험 등이 하방리스크로 잠재

○ 신흥시장국에서는 대외수요의 신장세 미흡 및 국제원자재가격 약세로 인한 구매력 약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불안 재발 가능성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및 글로벌 위기 이후 투자부진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전보다 낮아진 가운데 신흥시장국 경기 부진의 영향이 교역 및 금융경로를 통해 파급·전이될 가능성

○ 다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기저효과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지겠으나 경제내 유희생산능력 상존 등으로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015년 초의 담배값인상 효과가 사라지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2. 국내 금융·경제

### 가.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경제내 유희생산능력 상존 등으로 상승압력이 제한될 전망

□ 2016년 중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유지,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가 및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의 부진도 완화될 전망

○ 다만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

□ 주택매매가격은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다만 최근 주택공급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높은 전세/매매비율 등으로 매매전환수요도 꾸준히 이어져 상승세 둔화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나. 국내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및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문제 등이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으로 잠재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 및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정상수지 흑자 지속,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관리 등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경제 여건과 ECB·중국 등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전망 등에 비추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
  - 다만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취약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금융·경제 불안이 확산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 은행 신용공급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업황 부진 및 저신용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이어지는 등 신용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가계부채 총량의 높은 증가세, 저소득·저신용 가구의 신용 리스크 등이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상존
  - 또한 금융지원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의 경영상황 악화 등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잠재

- 금융기관 건전성은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자기자본비율,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가계부채 누증,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 가능성 등이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II.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 통화신용정책은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하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를 지속하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영
  -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통화정책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 금융·외환시장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 우려시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1. 물가안정목표제 운용

-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0%로 설정
  - \*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은 3년(2016~2018년)
- 경제구조 변화 추세를 반영한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중기 물가전망, 통화정책

운영여건,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종전 2.5~3.5%에서 2.0%로 변경

-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는 범위(range) 형태가 아닌 단일목표치(point target)로 제시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pm 0.5\%$ 포인트 초과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회견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 이탈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

- 이후  $\pm 0.5\%$ 포인트 초과 이탈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

## 2.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새로이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용

-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

큼 성장 및 물가의 하방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

- 국제유가 동향, GDP갭 및 고용·제조업의 유희생산능력지표 변화,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운용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미 연준 통화정책과의 비동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도 유의

- 가계부채 등 민간신용 증가세, 저소득 가계·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리스크,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상시 점검

-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하는 데도 유의

## 3.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유효성 제고

□ 새로이 설정된 물가안정목표 하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

-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결문의 내용, 기술방식 등을 개선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사·연구자료의 발간 등을 활성화
- 새 물가안정목표의 운영방식과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단일 물가안정목표치 제시방식의 의의, 종전 방식과의 차이점 등을 상세히 설명
  -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 \* 기존의 반기별 보고서(4, 10월)에 더해 축약된 형태의 중간보고서(1, 7월: 직전 3개월 대상)를 추가 발간. 2016년 중에는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하에서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해 4월부터 발간할 예정
-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통합하고 주요 금융·경제 상황 판단지표를 활용하여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
-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강연, 기자간담회 등 금통위와 금융시장간 소통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통화정책방향 의결 시 소수의견 제시 금통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
-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
- 통화정책 결정의 적정 시계 확보, 경제전망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현재 연 12회인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2017년 부터 연 8회로 조정하고 4회를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
  - 통화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취지에 맞추어 금통위 본회의에서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
  -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
  -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연 4회) 포함 시 연간 금통위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현재와 같은 24회 유지
-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와 효과적인 정책대응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
-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가계부채 누증, 인구고령화 등 경제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잠재력 및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

-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간 최적 조합을 모색

#### 4. 통화정책수단의 실효성 제고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핵심 선정기준을 규정화하여 공표하는 등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
-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유동성 조절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다기화된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 운용 체계를 정비
  -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신용경계감이 과도하게 확산되어 정상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 \*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적인 영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중소기업
  - 자금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
    - \* 은행의 심사기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대출취급유인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여건 변화에 대응한 통화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방안 강구

#### 5.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국내외 리스크 증대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비
  - 자본유출입 및 가격변수 동향, 시장참가자 행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에는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
    -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쓸림현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실시
    - 필요시 정부와 협의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탄력적운영을 도모
  - 금융·외환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단계별 종합대책(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 대외 금융협력을 강화
  - 역내 금융안전망 기능을 확충하고 통화스왑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주요국 중

양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금융협력 증진 노력도 지속

## 6.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등으로 국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체계를 강화

○ 「금융안정보고서」 및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신용 시장, 자산 시장, shadow banking 등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축적 상황을 상시 점검

○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정부와의 정보·인식 공유 및 정책협력 강화

○ 공동검사는 금융시스템에 잠재된 리스크의 조기 포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요인 및 주요 현안 중심으로 실시

□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가계부채 DB 확충 및 이를 이용한 미시 통계 작성을 통해 가계부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민간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

□ 금융안정 관련 국제기준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개선을 도모

○ 글로벌 금융규제 제·개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당국 등과 협력하여 동 규제가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

○ 지급결제 국제기준의 이행을 추진하고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효과적 감시방안을 마련

○ 소액결제망과 한은금융망간 연계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을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의 은행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도있게 연구

##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 2015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15년 1월 15일, 제1차)

□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 구분	회 계 별	대출금 한도(억 원)	상환기한	기타
일시 대출금	통합계정	300,000	2016년 1월 15일	대출취급기한: 2015년 12월 31일
	양곡관리 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16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양곡관리특별 회계의 경우 2014년 대출금 중 미상환액을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공공자금 관리기금	80,000	2015년 12월 31일	
	합 계	400,000		

○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sup>\*\*</sup>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부대조건

○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가급적 재정증권의 시장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초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위임사항: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 시행일자: 2015년 1월 15일(목)

○ 단, 대출금리 산정방식 변경은 2015년 2/4분기 대정부 일시대출금에 대한 이율통보 시부터 적용

### ◇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 (2015년 1월 29일, 제2차)

□ RP매입 대상증권 증거금률의 하한을 변경(105% 이상 → 100% 이상)하고 잔존만기에 따른 증거금률 차등화를 명시(제6조 제2항)

○ 증거금률의 하한을 RP매입 체결시 대상증권의 시장가격이 신용공여액을 상회하는 최소치인 100%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대상증권의 잔존만기별 실제 가격변동성 등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인 증거금률 수준은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시장조작세칙」에서 정함

□ 시행일 : 2015년 4월 1일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5년 3월 26일, 제6차)

□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을 폐지

□ 시행일 : 2015년 4월 1일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2015년 3월 26일, 제6차)

□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현재의 15.0조 원에서 5.0조 원 증액하여 20.0조 원으로 정한다.

□ 이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3.0조 원에서 2.0조 원 증액한 5.0조 원으로 한다.

○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3.0조 원에서 3.0조 원 증액한 6.0조 원

으로 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는 1.0조 원 추가 증액한 7.0조 원으로 한다.

○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0조 원을 유지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는 1.0조 원을 전액 감액하여 폐지한다.

○ 여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이율」 개정 (2015년 3월 26일, 제6차)

현 행		개 정	
1. 대출이율 (중략)		1. 대출이율 (현행과 같음)	
구분	이율	구분	이율
2. 총액 한도 대출	연 0.50~1.25% 범위 내에서 총재가 별도로 정함	2. 금융중개지원대출	연 0.50~0.75% 범위 내에서 총재가 별도로 정함
(후략)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15년 4월 1일

##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2015년 7월 23일, 제14차)

### □ 대상기관<sup>1)</sup>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국내은행 (7)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외은지점 (4)	도이치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아이엔지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비은행 (11)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계	22

환매조건부증권매매	
국내은행 (14)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외은지점 (4)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아이엔지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BNP파리바은행
비은행 (6)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계	24

증권대차거래	
국내 은행 (6)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외은 지점 (1)	BNP파리바은행
비은행 (5)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삼성생명
계	12

일중환매조건부증권매매	
비은행 (3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BN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한국거래소
계	31

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조 제2항 제5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콜차입이 허용되는 증권사는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인 증권사에 한함

□ 유효기간 : 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일

## ◇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등 실시 (2015년 8월 27일, 제16차)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 대출금리 : 연 0.5%

○ 대출기간 : 364일

○ 대출규모 : 3,431,272,402,517원 이내

○ 대출실행일 : 총재가 결정

○ 대출방식 : 어음대출

○ 대출담보 : 한국산업은행이 상대매매 방식  
으로 취득하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담보 교체는 불가)

- 액면금액 전액을 담보가액으로 인정

○ 발행방식 : 상대매출

○ 부대조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은행 대출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이차 전액을 한국은행 대출 실행일자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② 한국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시장안정 P-CBO 운영 이후 잔여 보증재원이 있는 경우 동 재원의 타 용도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협의토록 조치

③ 한국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시장안정 P-CBO 발행시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조치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발행

○ 발행금리(수익률) : 연 2.0% (할인율 연 1.961%)

○ 만기 : 364일

○ 발행규모(액면금액) : 3,448,719백만원 이내

○ 발행일 : 한국은행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실행일과 동일

3. 기 타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실행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재가 결정

- 총재는 대출 실행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발행 후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

○ 동 건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분기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5년 11월 26일, 제22차)

□ 당행 대출담보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추가(제4조제1항제4호)

○ 다만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한 은행의 동 증권 의무보유기간(가중평균 1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부칙)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15년 11월 26일, 제22차)

□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제21조 개정)

○ 다만, 은행의 의무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부칙> 제2조 신설)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2015년 12월 16일, 제24차)

1. 물가안정목표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0%로 설정한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pm 0.5\%$  포인트 초과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 이탈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후  $\pm 0.5\%$ 포인트 초과 이탈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한다.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고, 국회 요구 시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하여

답변한다.

2.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이번 물가안정목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하고, 다음 물가안정목표는 2018년말 이전에 경제여건을 점검하여 다시 설정한다.

3. 기타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한다.

### (3)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 주요 내용

#### ◇ 「최근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 주요 논의 내용

(2015년 3월 26일, 제6차)

(1) 안정총괄팀장이 「보고 제28호 - 최근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보고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2015년 3월 19일 위원협의 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 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신용에 대한 분석 시 가처분소득 등 여타 지표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기업부실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분석 시에는 요주의 여신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여 살펴보는 등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의 수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이어 일부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북구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플로우(flow) 측면의 가계저축률과

스톡(stock) 측면의 가계자산상황 등에 따라 충격에 대한 복원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북구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높고 금융자산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축적되어 있는 데다, 연금이 발달되어 있어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대출 또는 중소기업대출로 관리되는 자영업자 대출상황에 대하여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유동화가 어려운 주택이 가계의 보유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행정통계 등 다양한 통계원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부동산의 담보활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고DTI 대출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된 데에는 대출금리 하락, 장기분할상환대출의 비중 증가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석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기존의 금융안정보고서 심의에 더하여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회의를 총 연4회 갖게 된 것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와 관련한 의사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복원력 점검은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와 깊은 관련이 있고, 금융안정상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책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나 금융안정보고서에 글로벌 금융규제에 대한 최근 논의내용을 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한은이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았으나 동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은 통화정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책수단 점검과 관련하여 유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이 한은법 제1조에 임무로 부여되어 있지만 제28조에는 자료제공

요건 외에는 당행의 거시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당행이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감시 및 정보 기능에 머무르지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및 복원력(resilience) 평가 외의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당행의 금융기관 검사결과를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당행의 금융기관 검사는 거시 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한 분석, 당국간의 정책부조화 해소 등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거시금융안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긴급하며 시스템 리스크 조기발견을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효과적인 대외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 또는 매매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세의 매매전환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향후 가계부채 총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금리인하 효과와 DTI, LTV 규제완화 효과를 분해(decompose)해서 가계부채 동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상호 영향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를 더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외부기구에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영란은행의 경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통화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가 있고 두 위원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했다고 첨언하고 금융안정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황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의 실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측

면이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경제주체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예금·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저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여타 거시정책과의 정책조합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 주요 논의 내용

(2015년 9월 24일, 제18차)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95호 -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2015년 9월 21일 위원회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 분석시 HP필터링을 통해 추세를 제거할 경우 동 비율의 갭 추정치가 작게 추산되어 실제 현상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계신용의 경우에는 GDP외에 가처분소득 대비로도 추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경기사이클과 신용사이클이 상이할 경우 어느 정도의 갭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BIS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한 경우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여부보다는 신용의 과잉팽창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경영지표 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출 등 자산규모 확대에 따라 성장성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S&P가 우리나라와 일부 국책은행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시 은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대해 경계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은행 경영상황에 대하여 장단기를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1인당 생산성 저하, 핀테크(Fin Tech) 발전에 따른 경쟁압력 증가 등의 여러 요인들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은행경영 상황을 평가하고 금융기관 경영상황에 대한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위원회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포착한 경우 동 위험성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다른 일부 위원은 대외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설정 시 좀 더 큰 프레임(frame)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부동산 충격,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 요소 외에도 수출 악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 실물·금융 간 상호 증폭 가능성을 감안하여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다양한 충격 및 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잠재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취약 차주 점검과 관련하여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 분석에 유용한 가계부실 위험지수의 개념을 채택한 데 이어 금번 분석은 최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잠재 취약 차주중 하나로 자영업자 가계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명확히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부채, 소득, 자산간 연계 분석이 필요하므로 가계부채 통계의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조기경보 차원에서 빅 데이터(big data) 등 미시정보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개별 금융기관별로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기업부문 분석에 대해 기업 스스로의 유인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증권사의 채권운용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시장에서 알고리즘(algorithm) 거래, 프로그램(program) 매매 및 고빈도 거래 등의 최신 거래방법이 많이 활용되면서 어떤 계기로든 쏠림현상이 촉발될 경우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은행으로부터의 크레딧 라인(credit line)이 없는 증권사의 경우 금융불안 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동성 사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시스템리스크의 조기 포착 및 제어를 위해서는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데이터의 자료축적과 구조적인 문제 등을 감안한 분석의 심화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미시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경제통계국에서 가계부채 DB를 구축하고 있고, 공동검사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므로 동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분석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산업 전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으며, 은행의 경우 저금리 지속, 낮은 생산성, 핀테크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1-2년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보험사의 영업환경이 역마진 확대, 회계규정 변경에 따른 준비금 확충 가능성 등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증권사도 과도한 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권별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금융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동 위원은 중앙은행이 금융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신용정보 집중기관 진행 현황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 기존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내년에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규상 한국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이 공무상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금융안정 정책방향 제시에 큰 역할이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 등을 통해 당행의 상황판단 및 평가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수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 및 이슈 제기 등의 방법으로 동 회의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당행의 시도들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 3. 경제일지

#### (1) 통화 · 금융 · 재정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 안전행정부 등, 담배 관련 세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1갑당 1,550원(판매가 2,500원 기준)에서 3,318원(4,500원 기준)으로 상향 적용</li> </ul> </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5년 7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li> </ul> </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시행 2015년 7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이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 조합의 결손금 중 해당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li> <li>○ 중앙회가 조합에게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중앙회가 합병 · 계약이전 ·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를 추가(기존에는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경우로 한정)</li> </ul> </li> <li>▷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가를 요구 · 약속하면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기존에는 대가를 실제로 수수한 경우만 금지)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li> </ul> </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를 포함하고,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2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li> <li>* 사업주체(신탁업자)와 자금조달자(위탁자)가 분리된 토지신탁 방식</li> </ul> </li> </ul>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li> </ul> </li> </ul>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운용 및 결제 과정에 필요한 일시적 금전차입을 허용(기존에는 대량 환매요청 또는 매수청구에 따라 대금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li> <li>○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 운용실적 및 성과보상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함</li> </ul> </li> </ul>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펀드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5% 이하씩 분산투자하는 경우 나머지 자산은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기존에는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 금지)
  - 펀드 간 자전거래\* 허용 요건 중 불가피성 요건, 증권시장 매각 곤란 요건 등을 폐지
    -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간에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로, 수익률 조작 등의 위험이 있어 법령준수, 환매대응 목적시 예외적으로 허용
  - 설정원본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와 대형펀드 간의 합병 시에도 소규모 펀드 합병 특례\*를 적용
    - \* 합병계획서 작성 및 수익자총회 결의 절차를 면제
- 1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9월 12일 시행)
  - 신용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신용정보 제공 시마다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이용·제공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기존에는 금융기관 협회별로 설립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폐지
  -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를 유출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함
- 12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19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회사형 펀드, PEF 등에 금융투자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
    - \*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 소유분으로 의제하여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를 차단
-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시중은행 등과 동일 조건으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직접대출을 허용하고, 조합이 대출한도의 50%이상을 대출한 경우(기존에는 조합이 대출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 중앙회가 연계대출 할 수 있도록 함

24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 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총 20조 원 규모로 16 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li> <li>○ 2015년 3월 24일부터 판매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20조 원을 추가로 공급</li> </ul>
30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5월 1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기존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만 의무화)</li> <li>○ 부동산 시설대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li> </ul>
4. 2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시 동의방법을 특정방식(기존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한정)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li> <li>○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적 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그 밖의 선택적 정보는 삭제하도록 함</li> </ul>
7	▷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5,500만 원 이하 세 부담 증가자를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출산세액공제 신설 등 보완대책을 발표</li> </ul>
14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지연이체제도*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로 지연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10월 16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이체를 신청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제도</li> </ul> </li> <li>○ 총자산이 10조 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 겸직을 금지(4월 16일 시행)</li> </ul>
5. 8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체결된 계약 등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정부의 허가·승인 등에 따른 매매 및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등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li> </ul> </li> </ul>

- 6. 4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연말정산 보완대책’ (2015년 4월 7일)에 따라 원천징수제도 개선
    -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
    -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등 간이세액 표 산정방식 보완
  - 발전용 유연탄, 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
  
- 11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25 ▷ 정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추경 등 15조 원 이상의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
  -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 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투자 활성화
  -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업종별 기업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가계·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
  
- ▷ 금융위원회,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증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 대상으로 하며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화 함
    - \* 설권증권으로 실물증권 폐지가 불가능한 기업어음 등이 예외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예정
    - 전자증권의 등록, 발행 및 거래 내역 등의 통합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
    - 전자증권 초과등록\* 오류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오류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초과분을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함
  - \*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경우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개별 금융기관의 등록오류로 발생

7. 3 ▷ 정부, 「메르스 극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메르스 극복 지원 2조 5천억 원, 가뭄 및 장마 대책 8천억 원, 서민생활 안정 1조 2천억 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조 7천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
- 23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 설립·운영 관련 보고 항목을 축소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  
 - 기업이 1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7억 원으로 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0월 25일 시행)  
 ○ 사모펀드를 경영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  
 \* 기존에는 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4종류로 구분  
 -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투자대상별 최소투자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설립·운영 규제를 완화  
 -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고 등록만으로 영업을 가능하도록 함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되, 투자한도 제한 및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6년 7월 25일 시행)  
 ○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및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 등
8. 1 ▷ 금융위원회, 「LTV, 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 발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현행수준(전 금융권에서 각각 70%, 60%)에서 1년 연장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대용량 가전제품 등의 개별소비세 폐지 등</li> </ul> </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 편입가능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li> <li>○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출 이외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li> <li>○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간 임직원 겸직승인 대상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해외 자회사 등의 임직원 겸직은 승인절차를 폐지</li> </ul> </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최근 소비동향과 대응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유통업계 합동 세일행사 개최, 주택연금 가입요건완화 등</li> </ul> </li> </ul>
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2016년 예산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지출을 2015년 375조 원에서 2016년 387조 원으로 3.0% 확장 편성</li> <li>○ 청년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직업훈련 강화, 실업급여 인상(실직 전 임금의 50% → 60%) 및 수급기간 30일 연장</li> </ul> </li> <li>○ 경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거점화,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신설 등</li> </ul> </li> <li>○ 문화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창조융합센터 신규 지원, 의료·관광·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li> </ul> </li> <li>○ 민생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최대 월 105만 원 → 127만 원) 등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강화</li> </ul> </li> </ul> </li> </ul>

11	<p>▷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월 12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시 동의방법을 특정방식(기존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한정)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li> <li>○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적 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그 밖의 선택적 정보는 삭제하도록 함</li> <li>○ 기술신용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교환·활용될 수 있도록 함</li> <li>○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지체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1만 명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li> </ul>
10. 23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월 25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금액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1억 원과 3억 원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요건을 최소 자본금 20억 원, 운용전문인력 3인 이상 등으로 구체화</li> <li>- 사모펀드 설립·운용 관련 보고 항목을 축소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li> </ul> </li> </ul>
11. 24	<p>▷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일반 농어민은 144만 원, 저소득 농어민은 12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간의 납입한도 구분을 폐지</li> </ul>
26	<p>▷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인 대부업자의 자산 기준을 12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대부업 등록 시 대주주 및 등록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신용 요건을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구체화</li> <li>○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신용공여 거래의 기준을 10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0.1%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li> <li>○ 대부업자 및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제한</li> </ul>

- 12. 14 ▷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방향」 발표
  - 대출의 사전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의 실제 소득 및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반영한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은 2016년 2월 초, 지방은 5월 초부터 시행하되 급격한 대출 둔화 및 부동산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조항을 구비
  
- 16 ▷ 정부,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 물가안정목표 재설정, 경상성장률 관리,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민자 투자 확대 등
    - 내수·수출 회복 :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등
    - 리스크 관리 :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 기초가 튼튼한 경제 : 4대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개혁 완성, 대·중소 기업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 등
    - 역동적인 혁신경제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화, 규제 프리존 도입 등
    - 내수·수출 균형경제 :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등 우수 외국인력 유치, 관광·의료·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 지원 강화, 청년·여성일자리 확대
  
- 17 ▷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외부감사인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에서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를 제외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
  
- 22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변액보험계약에서 실적에 관계없이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험 적용대상에 추가(2016년 6월 23일 시행)
  -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이를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 23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의사 확인 등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
  -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증권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기존에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만 발행 가능)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 ·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시계열 연장 및 공표 항목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대차대조표의 시계열을 현행 2012년 이후에서 2009년 이후로 소급연장</li> <li>○ 경제활동별(총 30개 산업) 재고자산 신규 작성</li> <li>○ 상위분류 항목 신설 등 공표 항목 추가</li> </ul> </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 1억 원 이상인 기업도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기존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기업만 수탁 가능)</li> <li>○ 홈페이지 또는 전산설비가 없으면서 개인신용정보를 1만 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 · 제공 내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li> </ul> </li> </ul>

## (2) 무역 · 외환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환 · 금융규제 개선, 공공기관 해외 투자 활성화 및 연계 확대</li> </ul> </li> </ul>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 2016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전년과 동일한 12개 은행(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6개)을 선정</li> </ul> </li> </ul>

### (3) 산업·고용 및 기타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한전 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및 산업단지 내 OLED라인 증설 지원</li> </ul> </li> <li>○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호텔 확충, 시내면세점 확대,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li> </ul> </li> <li>○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의 융·복합 발전을 위한 집적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선정, 항공정비산업 육성</li> </ul> </li> <li>○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li> </ul> </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 R&amp;D 기술료*를 재원으로 955억 원 신규 투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R&amp;D 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li> </ul> </li> <li>○ 기술사업화 부진 및 중소기업 R&amp;D 인력 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신규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li> <li>- R&amp;D 재발견 프로젝트</li> <li>-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li> <li>-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li> <li>-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li> <li>- 산업현장 여성 R&amp;D 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등 10개 사업</li> </ul> </li> </ul> </li> </ul>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촉진프로그램(30조 원 규모)을 도입하기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의 공동투자, 기업 수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안(상환우선주·전환사채·회사채 인수 등) 도입</li> <li>-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투자 등 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 중점 지원 등</li> </ul> </li> </ul> </li> </ul>

3. 27 ▷ 정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  
 ○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으로 참여하기로 결정
4. 8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의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여 총 7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 추진 예정  
 - 위험분담형(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  
 - 손익공유형(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사업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
5. 7 ▷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발표  
 ○ 2016년 시행예정인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추어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
- 27 ▷ 정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의결  
 ○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3대 분야에서  
 -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 공공부문에서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폐지·축소  
 -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핵심기능 강화
7. 9 ▷ 기획재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관계기관 간 협의 지원 및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관광콘텐츠 개발·인프라 확충 및 단체관광 품질관리 개선 추진  
 ○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해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M&A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민간자금 유입 촉진  
 ○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노후 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 촉진 등
- 27 ▷ 정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 교원 명예퇴직 확대,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청년고용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연령기준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 등  
 \*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8. 14	▷ 정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 광복 70주년 기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8월 14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9. 15	▷ 정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 ○ 금추석전 농산물 할인 등을 포함한 ‘한가위 스페셜위크’ 설정, 추석 직후 2주간 유통업체 합동 판촉행사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실시 등
10.1-14	▷ 정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 소비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된 할인 행사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전통시장 등 3만여 개 점포가 참여 ○ 10월 1일 ~ 14일 중 - 22개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 - 외국인 관광객도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b>I. 한국은행 개요</b> 1. 연혁 및 설립목적 2. 조직 가. 금융통화위원회 나. 집행간부 및 감사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통화정책국  금융통화위원회실 비서실 기획협력국 인사경영국	김아름  김낙현 정승렬 박준민 한재찬
<b>II. 경제동향</b>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나. 국내경제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나. 국내금융시장	조사국 조사국  지역협력실  조사국 금융시장국  국제국	이재호 이홍직, 김정성 이현진, 전기영 김민수 엄주영  이재호 노진영, 김보경 추명삼, 윤대혁 백봉현
<b>III. 업무상황</b> 1. 중점추진전략 2. 통화신용정책 가. 물가안정목표 나. 기준금리 다. 여수신제도  라. 공개시장운영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3. 금융안정업무 가. 금융안정 상황 분석·점검 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다.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4. 발권업무 가. 화폐 발행  나. 화폐 유통	기획협력국  조사국 통화정책국 통화정책국 금융결제국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금융통화위원회실 비서실  금융안정국 국제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발권국	허 현  이동원 박동현 이정국 우동진 황지용 박동현 김낙현 정승렬  심 원 유재현 윤대혁  김상규, 박지원 박종남, 김선진 김상규, 박지원 박종남, 김선진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5. 지급결제업무 가. 한은금융망 운영 나. 감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행 준비 마.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가. 외국환업무 나. 외화자산 운용업무 다. 국제협력업무 7. 조사통계업무 가. 조사연구업무  나. 통계업무 8. 국고 및 증권업무 가. 국고업무 나. 증권업무 다. 기금관리업무  9. 대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내실화 나. 경제·금융교육의 효과적 운영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국제국 외자운용원 국제협력실  조사국 경제연구원 지역협력실 경제통계국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커뮤니케이션국 경제교육실	남택정, 김영석 남택정, 김영석 남택정, 김영석 남택정, 김영석 남택정, 김영석  유재현, 안주은 김민정 이석우  최강욱 민병기 오석은 강준구  문현주 문현주 문현주  강유진 이병희
IV. 경영상황 1. 조직 운영 가. 조직체계 나. 조직 운영방식  다. 교육훈련 라. 청년 고용 확대 및 인력운용의 개방성 제고 마. IT시스템 개선 2. 재무 현황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 커뮤니케이션국 인재개발원 인사경영국 전산정보국 기획협력국	박준민 박준민 강유진 권혁찬 한재찬 한채수 김보희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3. 경제일지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기획협력국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국 커뮤니케이션국	박준민 김낙현 이홍직 강유진
보고서 작성총괄	커뮤니케이션국	이상호, 박창현 강유진, 이현정



## 2015년도 연차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편집인** 장택규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16년 3월 31일

**제 작** (주)제일프린테크

- 이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자료 > 주요 보고서 > 연차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전화 02-759-4520, 이메일 [publicinfo@bok.or.kr](mailto:publicinfo@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연차보고서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서적·기념품 코너(02-759-4805, [www.seowonbook.co.kr](http://www.seowonbook.co.kr)) 또는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734-6818, [www.gpcbooks.co.kr](http://www.gpcbooks.co.kr))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SSN 1975-4922

